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2005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2004년도 북한인권 상황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고 유 환(동국대 북한학과)
연구원 : 강 성 윤(동국대 북한학과)
 김 용 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 미 영(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진 희 관(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 윤 해 숙(동국대 북한학과)
 이 상 숙(동국대 북한학과)
 홍 민(동국대 북한학과)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연구결과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요 약

1. 서론

북한인권 상황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가 2003-4년 연이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일본 국회도 미국과 비슷한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에 관하여 남북관계와 병행 추진, 대북 지원을 통한 인권개선 환경 조성 등 국제사회와 다른 특수한 입장을 고려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UN을 통한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의 인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존하여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었고, 북한에 거주하였을 때 보고 들은 인권 상황을 담고 있다. 결론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탈북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탈북자 증언에만 의존한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이 된 탈북자들이 특정 지역(함경북도 출신)에 편중되어 있어, 본 조사결과는 북한의 인권 상황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음을 밝혀둔다. 함경북도 출신 편중현상은 이 지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두만강 연변이기에 탈북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함경도 출신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기대하며, 본 조사결과는 그 기초자료로서의 의미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50명의 탈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하였으며, 하나원에서 교육중인 100명의 탈북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하나원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생활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집단면접(면접 요원 6인)으로 이루어졌는데 2004년 12월 18일, 12월 22일, 12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인터뷰는 탈북자 1인당 1~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설문조사는 모두 28개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탈북과정에 대한 질문,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 북한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설문조사 결과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탈북과정에 관한 설문 결과, 입국한지 3개월 이내인 응답자들 중 1/3(35%)은 1999년 이전 탈북자들이며, 2004년 탈북자들은 1/4(26%)에 이른다. 그리고 응답자중 1/3 이상의 탈북자들이 국경경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도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수가 브로커의 도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일상생활을 묻는 질문에서, 탈북의 직접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식량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탈북자들의 응답 중에서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응답자(2000년 이후 탈북자)의 절반가량(43%)은 다소 나아졌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43%)에 가

까운 응답자가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먹는 문제라는 응답이 62%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설문에서는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89% △공개처형 목격 포함 인지도 94% △부정부패 경험과 그에 대한 인지도 88% △인신매매에 대한 경험 또는 인지도 83% △강제낙태에 대한 경험과 인지도가 약 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해외 및 남한 정보의 공유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통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90년대 말 극심한 위기 상황과 비교할 때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식량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국경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경우 인권 침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탈북자 수감소(단련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탈북과정에서의 인권

탈북 이후 탈북자들은 중국 내에서 항상 고발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및 강제 결혼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임금 착취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강제)송환 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탈북이 경제적 이유로 이루어지고 그 횟수가 처음인 경우는 1-2주의 조사를 받고 풀려나오지만, 탈북이 정치적이거나 수차례 반복된 경우 장기구금 등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수용시설에서의 비위생적 환경, 구타, 강제 낙태가 있다

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최근 탈북 경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을 비롯한 제3국 경유 한국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행을 원한다 하더라도 제3국에서 장기간(2-10개월) 호텔에 머무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이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브로커들에 의한 기초생활자금의 유출이다. 따라서 정착지원자금 지원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재외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있어 브로커의 도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후 브로커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지원되는 임대주택 비용의 경우, 정부가 장기 임대자가 되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점차 탈북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식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5. 경제적·사회적 권리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사회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게 된 식량난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이 침해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먼저,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화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이고 절정에 이른 시기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임을 알 수 있다. 배급이 중단된 시기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빠르게는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1996년을 전후하여 배급이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난 타개를 위해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없었으며, 외부의 지원도 북한주민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중 일부는 중간 관리들에 의해 불공정하

게 분배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전반적인 영양부족 상태로 인해 아사자가 발생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났다. 특히 아사자 중에서 노인과 아동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7년과 1998년의 경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 이후 아사자의 발생이 줄어든 것은 식량 문제가 개선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생존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병약자들이 이미 90년대에 아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극심한 식량난은 아동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하였다. 유아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 성장장애 등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약국과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의사와 약사들마저 생존을 위해 의약품을 밀거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들어 주민들이 식량 확보를 위한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장마당에서의 상거래를 보장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개인의 최소한의 생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상행위를 위해 이동할 때 통행증을 통한 통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여행증명을 발급받고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물가인상,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제품의 절대적 부족 상황에서 물가만을 인상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서 출신성분과 연좌제로 인한 차별이 커 평등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직장에서 승진 및 임금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고, 직장 내의 성폭력도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식량난이 심화된 이후 식량 획

득의 임무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들은 식량난 해결과 가사노동 등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침해현상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야기된 식량부족 현상의 장기화되고 이 과정에서 식량배급제를 비롯한 국가·사회적 보장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스스로 생존능력이 부족한 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보호되지 못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6. 시민적·정치적 권리

개인의 신변안전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심화 이후 당 간부들의 공권력이 남용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이들의 공권력 남용은 간부 자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발견되고 있다. 장마당에서의 상행위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지 품목을 팔거나,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뇌물 수수가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생존형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속에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자들이 수감되는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서 교도관들의 고문과 폭행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구타와 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증언되고 있다. 공개처형의 경우 경제난의 심화 이후 생존을 위한 사회적 일탈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범들에 대한 공개처형을 시행한 경우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경우, 북한체제는 외부국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외부

세계의 소식에 대한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는 터부의 대상이며, 종교 활동에 대한 제재는 정치범으로 취급할 정도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민들이 국가나 공권력에 대해 항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통로는 없으며,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 제67조에 명시된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 결론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악화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권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원인 중 가장 많은 응답이 식량문제이므로 향후에도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계형 탈북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조기 입국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며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연좌제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에 대한 정보 접근도 차단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어 이러한 현상이 탈북현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난 악화로 인한 사회 통제의 강화는 당간부 및 사회안전요원의 공권력 남용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간부들은 자신들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주민들에게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품 수수를 요구하고 있어 간부들과 주민 사이의 불신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오기까지 겪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되, 국제기구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식량의 투명한 분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심각한 경제난에 기인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이해를 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는 특정 조사방법(설문 및 면접)에 대한 의존과 특정 지역에 치우친 조사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 등 두 가지 점에서 큰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방법의 적용을 통한 사실의 교차확인, 조사 표본의 대표성 획득, 보편적 평가기준의 제시, 나아가 북한지역 직접 조사 등을 통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목 차>

요 약

| | |
|---|----|
| I. 서론 | 1 |
| II. 연구 방법 | 3 |
| 1. 인터뷰 | 3 |
| 2. 설문조사 | 5 |
| III. 설문조사 결과 | 7 |
| 1. 설문 분석 | 7 |
| 1) 탈북과정에 대한 질문 | 7 |
| 2)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 | 13 |
| 3) 북한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 | 22 |
| 2. 종합 분석 | 36 |
| IV. 탈북과정에서의 인권 | 39 |
| 1. 재외 탈북자의 인권 | 39 |
| 1) 중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 39 |
| 2) 기타 제3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 49 |
| 2. 북송 이후 처벌 | 51 |
| 1) 비정치적·초범의 사례 | 51 |
| 2) 무산·청진도집결소 및 혜산 <927사무소>의 인권 실태 | 52 |
| 3. 한국 입국 후의 인권문제 | 57 |
| 1) 브로커 비용과 생활 문제 | 58 |
| 2) 직업과 생활의 문제 | 59 |
| 3) 정부에 대한 기대 | 63 |
| 4. 기타 | 64 |
| 1) 식량난 및 생활고에 의한 탈북 사례 | 64 |
| 2) 연쇄탈북 현상 | 67 |
| 3) 생계형 한국행 | 68 |
| 4) 일시적 재입북 사례 | 69 |

| | |
|---------------------------------|------------|
| 5) 국경경비대의 협조 | 69 |
| 5. 소결 | 71 |
| V. 경제적·사회적 권리 | 73 |
| 1. 생존권 | 73 |
| 1) 식량부족의 현황 | 73 |
| 2) 대량 아사자 실태 | 83 |
| 3) 아동의 생존권 | 86 |
| 4) 의료현황 | 89 |
| 2. 개인의 경제활동권 | 92 |
| 1) 이동권 | 92 |
| 2) 경제활동 보장권 | 96 |
| 3) 생산물 소유권 | 100 |
| 4) 7.1 경제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 101 |
| 3.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 | 106 |
| 1) 신분차별 | 106 |
| 2) 직장 및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 109 |
| 3) 가정에서 여성의 인권 | 111 |
| 4) 아동보호권 | 113 |
| 4. 소결 | 118 |
| VI. 시민적·정치적 권리 | 121 |
| 1. 개인의 신변안전 | 121 |
| 1) 공권력 남용 및 공권력 빙자 폭력 | 121 |
| 2) 공권력 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 | 126 |
| 2.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 130 |
| 1) 수감자 인권 및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여부 | 131 |
| 2) 공개처형 사례 | 137 |
| 3. 사상 및 표현의 자유 | 143 |
| 1) 정보접근의 자유 | 143 |
| 2) 종교의 자유 | 149 |

| | |
|--|------------|
|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51 |
| 4. 소결 | 153 |
| VII. 결론 | 155 |
| <참고문헌> | 160 |
| <부록 1> 북한인권 상황 조사 설문지 | 161 |
| <부록 2> 주요 심층면접 질의사항 | 168 |

<표 및 그래프 목차>

| | |
|--------------------------|----|
| <표 1> 심층 인터뷰 신상명세 | 3 |
| <그래프 1> 북한 식량난의 추이 | 27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탈북 시기 분포 | 7 |
| 〈그림 2〉 탈북에서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 | 8 |
| 〈그림 3〉 탈북 동기 | 9 |
| 〈그림 4〉 탈북 방법 | 10 |
| 〈그림 5〉 한국으로의 입국 방법 | 12 |
| 〈그림 7〉 북한주민들의 주식 현황 | 14 |
| 〈그림 8〉 아사자 목격의 경험 | 15 |
| 〈그림 9〉 아사자에 대한 정보 경로 | 15 |
| 〈그림 10〉 최악의 식량난 시기 | 16 |
| 〈그림 11〉 2000년 이후 식량난 호전 상황 | 18 |
| 〈그림 11 "〉 식량난 호전 상황 | 18 |
| 〈그림 1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인지도 | 19 |
| 〈그림 13〉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영향 | 20 |
| 〈그림 14〉 의료 실태 | 21 |
| 〈그림 15〉 응답자의 북한에서의 생활 정도 | 22 |
| 〈그림 16〉 출신성분에 대한 차별 | 23 |
| 〈그림 17〉 공개처형 목격 사례 | 24 |
| 〈그림 18〉 (정치범) 수용소 인지도 | 25 |
| 〈그림 19〉 당원들의 부정부패 정도 | 25 |
| 〈그림 20〉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인식 | 26 |
| 〈그림 21〉 아동 및 청소년 생활 실태 | 28 |
| 〈그림 22〉 여성 인신매매 실태 | 29 |
| 〈그림 23〉 제3국에서의 여성 인권 실태 | 30 |
| 〈그림 24〉 제3국에서의 생활 정도 | 31 |
| 〈그림 25〉 탈북 여성의 낙태에 대한 인지도 | 32 |
| 〈그림 26〉 남한 정보 접근도 | 33 |
| 〈그림 27〉 남한 소식 유입 경로 | 33 |

I. 서론

북한인권 상황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가 2003-4년 연이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 국회도 미국과 비슷한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에 관하여 남북관계와 병행 추진, 대북 지원을 통한 인권개선 환경 조성 등 국제사회와 다른 특수한 입장을 고려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UN을 통한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의 인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존하여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었고, 북한에 거주하였을 때 보고 들은 인권 상황을 담고 있다. 결론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탈북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진행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탈북자들의 지역적 대표성이다. 탈북자 증언에만 의존한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이 된 탈북자들이 특정 지역(함경북도 출신)에 편중되어 있어, 본 조사결과는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음을 밝혀둔다. 함경북도 출신 편중현상은 이 지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두만강 연변이기에 탈북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함경도 출신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합

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기대하며, 본 조사결과는 그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에서는 하나원내 탈북자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 6장은 하나원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탈북자들 50명을 심층면접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장은 탈북과정에서의 인권 상황을 다루었고, 5-6장에서는 북한내의 인권상황을 사회권과 자유권으로 나누어 탈북자들의 경험과 전언(傳言)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간단한 제언을 하고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탈북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사회의 인권 상황, 그리고 탈북과정에서의 인권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50명의 탈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하였으며, 하나원에서 교육중인 100명의 탈북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인터뷰

인터뷰는 집단면접(면접 요원 8인)을 통해 12월 18일, 12월 22일, 12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평택시와 서울 양천구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탈북자 1인당 1~2시간 가량 소요 되었으며, 내용 구성은 탈북과정과 경로, 탈북동기, 제3국에서의 생활 및 인권 실태, 북한의 생활 및 인권 상황(아동, 여성, 일반 등)으로 크게 나누어 약 50여 가지 문항을 질문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아래의 각 장에서 분야별 설명을 통해 전개하고자 한다.

<표 1> 심층 인터뷰 신상명세

(*나이: 2005년 기준)

| 부 문 번호 | 나이 | 성별 | 직업 | 당원 유무 | 탈북일 | 입국일 | 입국 경로 | 주소지 (고향) |
|--------------|----|----|----------|----------|----------|----------|-----------------|-------------|
| T01 | 46 | 여 | | | 01.10.25 | 03.03.01 | 중국 | 평양 |
| T02 | 43 | 여 | 세멘트공장 | | 01.01.17 | 04.06.01 | 중국/베트남/ 캄보디아 | 함북 회령시 |
| T03 | 36 | 여 | 가사 | | 02.01.27 | 02.09.25 | 중국/베트남 | 함북 새별군 |
| T04 | 21 | 여 | | | 01.10.25 | 03.03.01 | 중국 | 평양 |
| T05 | 74 | 여 | 의사 | × | | | 중국 | 새별군(서울) |
| T06 | 41 | 여 | 약사 | | | 02.10 | 중국 | 함북 새별군 |
| T07 | 33 | 여 | | | | | 중국/베트남 | 함북 무산군 |
| T08 | 43 | 여 | | | | | 중국/베트남 | 함북 회령시 |
| T09 | 33 | 남 | 운전 | | 1997 | | 중국/베트남 | 함북 회령시 |
| T10 | 27 | 남 | | | 1998 | | 중국/베트남 | 함북 온성군 |
| T11 | 71 | 남 | | | 03.12.31 | 04.03.06 | 중국/베트남 | 함북 연사군 |
| T12 | 37 | 남 | | | | | 중국/베트남 | 함북 온성군 |
| T13 | 37 | 여 | | | 02.06.10 | | 중국/베트남 | 함북 온성군 |
| T14 | 30 | 여 | 장사 | | 1998 | | 중국/베트남 | 함남 허천군 |
| T15 | 39 | 여 | | | 97.06.23 | | 중국/베트남 | 함북 무산군 |
| T16 | 34 | 여 | | | 1998 | | 중국 | 함북 무산군 |
| T17 | 34 | 여 | | | 04.05.27 | 04.06.13 | 중국/베트남 | 함북 회령시 |
| T18 | 45 | 남 | | | 97.09 | 04.05 | 중국 | 함북 온성군 |
| T19 | | 남 | 장사(중국왕래) | | 03.01.05 | 03.06.18 | 중국/몽골 | |
| T20 | 48 | 여 | | | 00.09.11 | 04.03.30 | 중국 | 양강도 |
| T21 | 28 | 남 | 함주장공장 | | 98.05.15 | 04.07 | 중국/베/캄/ 태 | 함남 함주군 |
| T22 | 25 | 남 | | | 1999 | 04.09 | 중국/태국 | 함북 청진시 |
| T23 | 76 | 여 | 인민군협주단원 | ○ | 00.11 | 01.01 | 중국 | 함북 경성군 |
| T24 | 44 | 남 | 장사(중국상대) | ○ | 04.01 | 04.07 | 중국/태국 | 함북 청진시 |
| T25 | 74 | 여 | 간호사 | ○ | 04.04.08 | 04.04.15 | | 함북 새별군 |
| T26 | 17 | 남 | | | 03.10 | | 중국/베트남 | 함북 온성군 |
| T27 | 45 | 남 | 영화기술원 | ○ | 99.03.13 | | 중국/베트남 | 함북 회령시 |
| T28 | 38 | 여 | | | | 01 | 중국/베/캄 | |

| 부 문 번호 | 나이 | 성별 | 직업 | 당원 유무 | 탈북일 | 입국일 | 입국 경로 | 출신지 (남측 고향) |
|--------------|----|----|--------------------|----------|----------|----------|----------|----------------------|
| T29 | 30 | 남 | | | 04.01.13 | 04.05 | 중국 | 광강도혜산시 |
| T30 | 46 | 남 | 함흥컴퓨터과학 기술대학 강사 | ○ | 03.11.17 | 03.02.27 | 중국/? | 함남 함흥시 |
| T31 | | 여 | | | 98.03.11 | | | (부모: 길림) (조부: 전주) |
| T32 | 46 | 남 | 군단 외화벌이 | | 99.04 | | | |
| T33 | | 여 | | | 99.03.10 | 04.06.20 | 중국/베트남 | |
| T34 | 42 | 여 | 수의사 | ○ | 04.02 | 04.07.06 | 중/캄/라/태 | 함북 청진시 |
| T35 | 23 | 남 | 대학생 | × | 1998 | 03.08 | 중국 | 함남 함흥시 |
| T36 | 32 | 여 | 기업소 노동자 | | 1998 | 04.07.28 | 중국/베트남 | 평남 문덕군 |
| T37 | 31 | 여 | | | 99.03 | | | 원산시(국군 포로가족) |
| T38 | 69 | 남 | 기관차 운전사 | | 03.11 | 04.07 | 중국/? | 함북 연사군 |
| T39 | 39 | 여 | 농장 근로자 | | 2001 | 04.07 | | 함북 회령시 |
| T40 | 36 | 여 | 화학공장노동자 | | 98.01.25 | 04.10.06 | 중국/베트남 | 평북 삭주군 |
| T41 | 55 | 여 | 유치원 교사 | | 98.02.25 | 04.10.06 | 중/라/태 | 함북 온성군 |
| T42 | 41 | 여 | 사무원 | | 02.08 | 02.12 | 중국/몽골 | 평남 남포시 |
| T43 | 38 | 여 | 탄광실험실기사 | | 03.12.24 | 04.03.09 | 중국/캄 | 함북 온성군 |
| T44 | 43 | 여 | 문화회관 관장 | ○ | 98.01.01 | | | 함북 |
| T45 | 53 | 여 | 주부(부양) | | 98.05.15 | 03.10 | 중국/베트남 | 함남 함흥시 |
| T46 | 68 | 여 | 방역과 의사 | ○ | 03.09.02 | 03.12.24 | 중국 | 함북 무산군 |
| T47 | 36 | 남 | 외과 의사 | | 04.02 | 04.05.21 | 중/미/태 | 함북 온성군 |
| T48 | 36 | 남 | 군수공장노동자 | | 03.11 | 04.07 | 중/? | |
| T49 | 14 | 남 | 무 | | 03 겨울 | | 중국/베트남 | 함북 온성군 |
| T50 | 15 | 남 | 무 | | 2001 | 04.07 | 중국/베트남 | 함북 회령시 |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모두 28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질문 문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되었는데, 첫째 탈북과정에 대한 질문 6문항,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 9문항, 북한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 1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통계처리를 통해 계량화하였고, 이러한 수치와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인터뷰

내용은 제 4, 5, 6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설문 내용은 <부록 1>에 실어두었다.

Ⅲ.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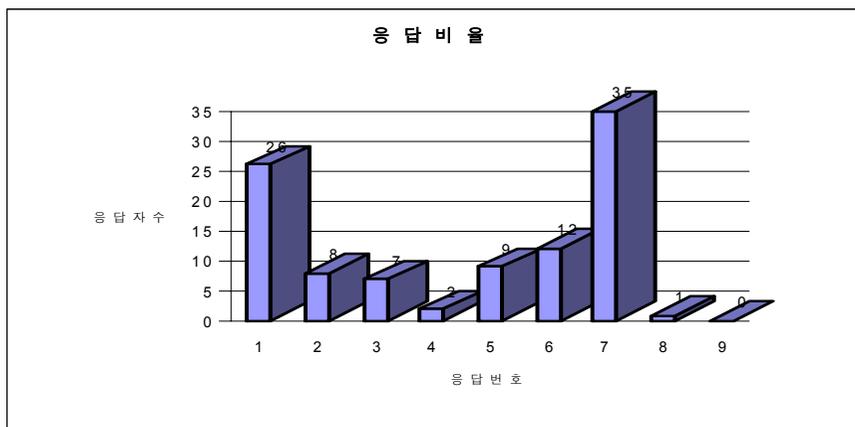
1. 설문 분석

1) 탈북과정에 대한 질문

문항 1. 북한을 탈출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1999년 이전
- 2) 1999년
- 3) 2000년
- 4) 2001년
- 5) 2002년
- 6) 2003년
- 7) 2004년

<그림1> 탈북 시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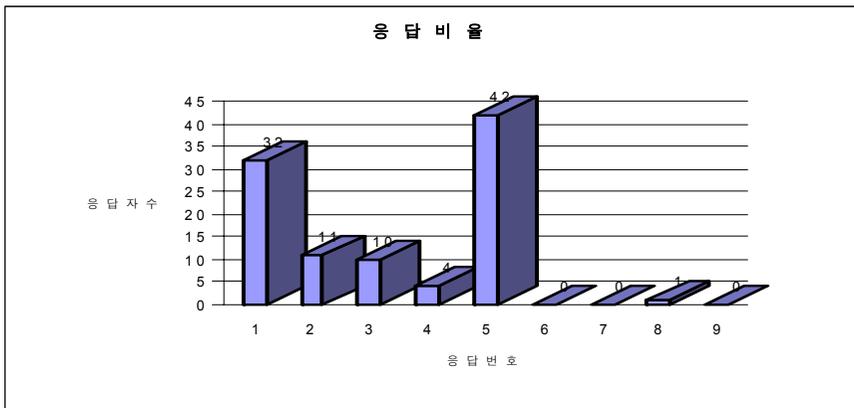
* 8번과 9번의 응답은 무응답 및 통계추정 불가능한 자료 분류를 위한 통계 처리상의 분류임.

2004년 11월 하나원에 교육중인 탈북자들의 탈북시기는 2004년 이 35%로 가장 높으며, 1999년 이전 탈북자들이 26%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탈북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7월 말 베트남에서 대거입국한 탈북자들 중 일부가 아직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것이 작용한 것이다. 또한 여전히 99년 이전의 탈북자들이 많은 것은 식량위기가 가장 심했던 시기에 탈북한 동포들이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항 2.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 1) 6개월 이하 2) 6-12개월 3) 13-24개월
- 4) 25-36개월 5) 37개월 이상

<그림 2> 탈북에서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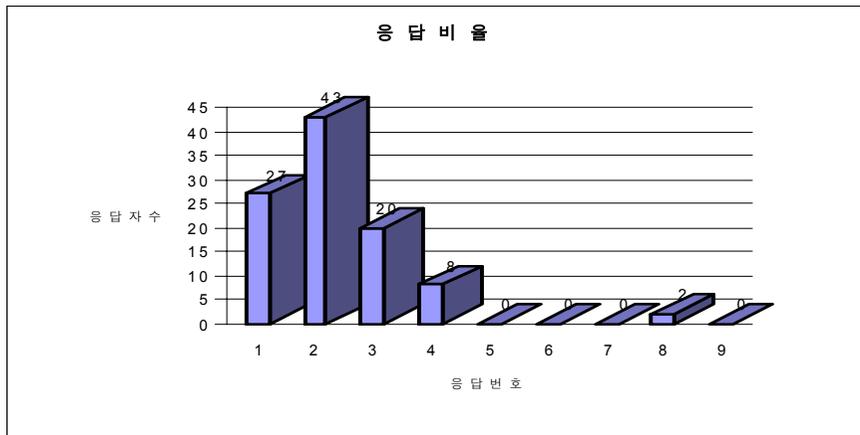


문항 2는 문항 1과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탈북자와 1999년 이전 탈북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동되어 6개월 이하 (32%) 와, 37개월 이상(4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항과 다소의 순서가 바뀐 것은 ‘5) 37개월 이상’ 을 선택할 경우 2000년 11월 이전 탈북자를 포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6개월 이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항 3. 북한을 탈출한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② 보다 나은 삶을 위해
 ③ 정치적 억압 때문 ④ 남한의 가족 등 주변사람의 권유로

<그림 3> 탈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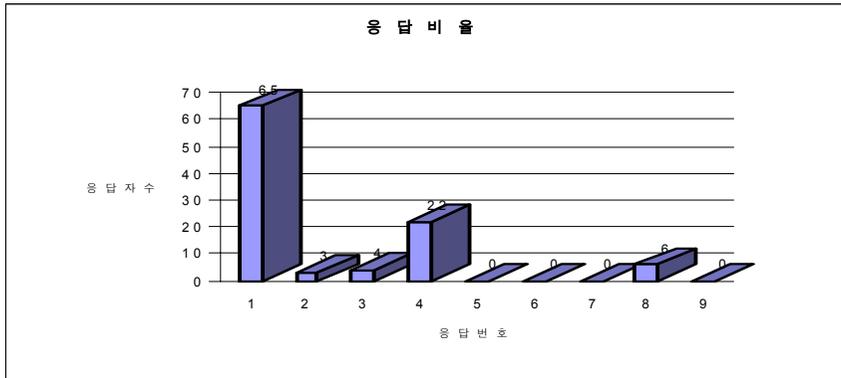


북한 탈출의 주요 동기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43%)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20%), ‘정치적 억압 때문에’ (20%), ‘남한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8%), 기타 (2%)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북한의 식량난이 탈북의 원인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추세는 최근 변화를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최근 북한 식량난이 과거 90년대 말과 비교할 때 보다 나아진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삶이 북한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반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북한의 생활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 이동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억압

<그림 5> 한국으로의 입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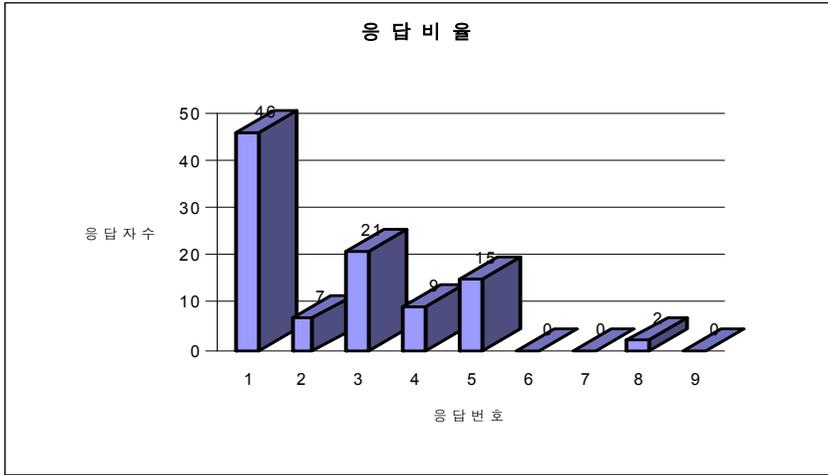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는 최종적으로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3%, 그 밖에 방법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22%에 이르는 것은 한국행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못밝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북한, 중국을 비롯한 제3국 등을 거치면서 해당국가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항 6. 탈북 후 제3국에 있을 때 의식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 ① 의식주 해결이 그럭저럭 가능했다
- ② 의식주 해결이 조금 힘들었다
- ③ 의식주 해결이 거의 어려웠다
- ④ 기타()

<그림 7> 북한주민들의 주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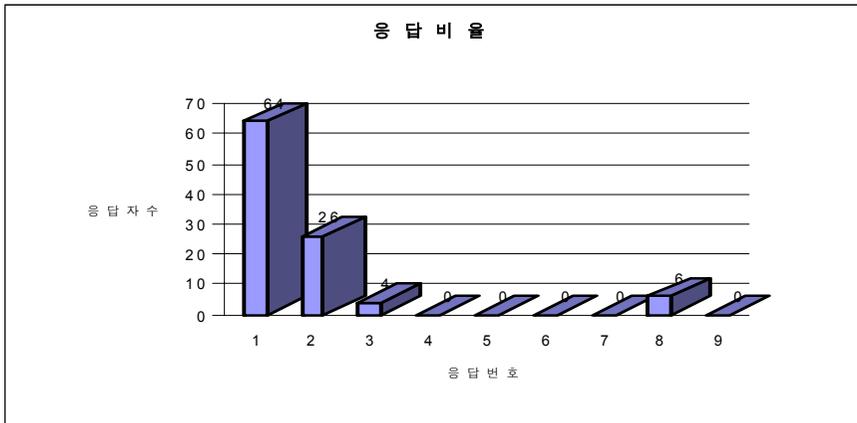


북한에서의 식량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인 55%는 곡류 (곡류 및 원조식량)를 주식으로 생활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45%는 구황작물, 죽 등을 주식으로 먹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04년 탈북자의 경우 35명중 14명(40.0%)이 후자의 답을 했는데, 1999년 이전 탈북자의 경우 26명중 12명(46.2%)이 이와 같은 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5년전 식량위기 때와 비교할 때 북한의 식량난이 조금 나아진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조식량을 받았는지 인지하는 탈북자는 모두 9%로 9명이 답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2004년 2명, 2003년 3명, 2002년 3명 그리고 1999년 이전에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9-2001년까지 탈북자 17명 중에는 0%로서 원조식량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이 대단히 활성화되던 시기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북한 자체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최근 탈북자들의 경우 소수이긴 하지만 원조식량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8.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직접 보았다 ② 본 적은 없고 소문만 들었다
- ③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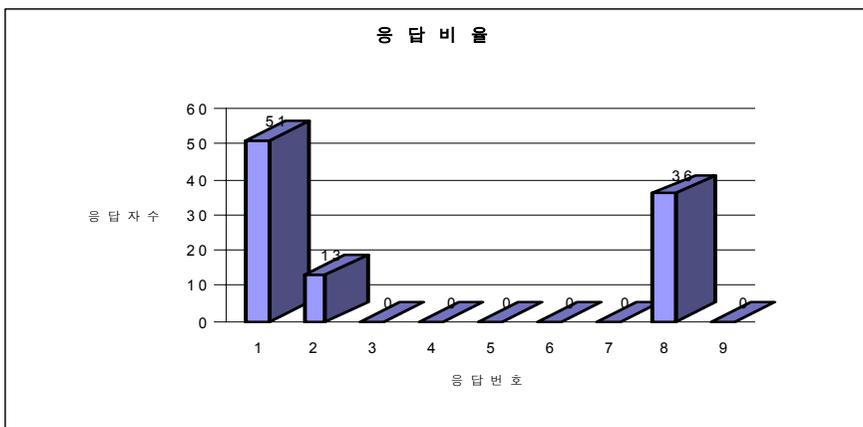
<그림 8> 아사자 목격의 경험



문항 9. 굶어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들었습니까?

- ① 직접 보았다는 사람으로부터 ②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그림 9> 아사자에 대한 정보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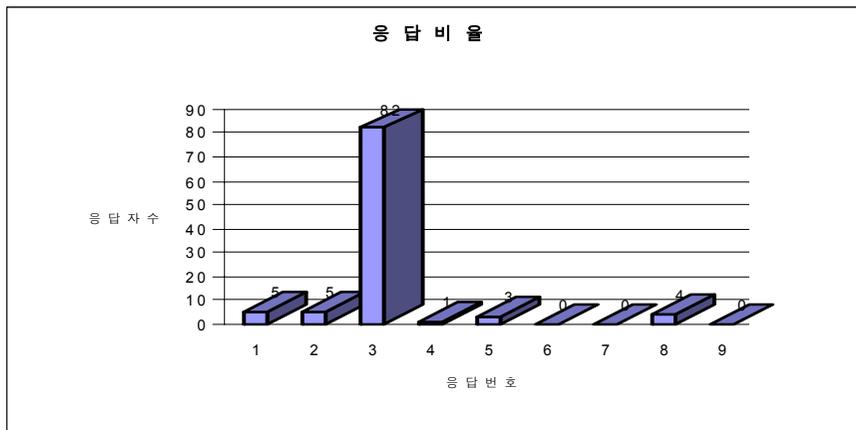


문항 8과 문항 9에 의하면 북한에서 아사자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는 64%에 이르고 있으며, 본적도 들은 적도 없거나 기타의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목격한 경우는 탈북연도별 살펴보면, 1999년 이전 탈북자 26명중에는 절반인 50%가, 1999년 탈북자 8명중 4명(50%), 2000년 탈북자 7명중 6명(85.7%), 2001년 탈북자 2명중 2명(100%), 2002년 탈북자 9명중 7명(77.8%), 2003년 탈북자 12명중 7명(58.3%), 그리고 2004년 탈북자 35명중 23명(65.7%)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9년까지만 해도 이후보다 오히려 아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후 아사자를 목격한 경우는 어느 해가 특히 많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04년 탈북자인 경우 목격 연도를 적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문항 10. 북한에 있을 때 식량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① 1985 - 1990년 ② 1990 - 1994년 ③ 1995 - 1999년
 ④ 2000년대 이후 ⑤ 잘 모르겠다

<그림 10> 최악의 식량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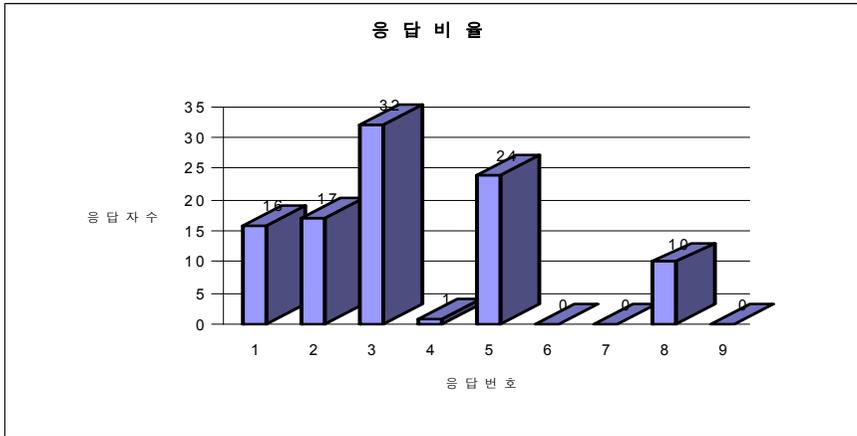


북한의 식량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995-1999년’ 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0-1994년’ 이 5%, ‘1985-1990년’ 이 5%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는 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에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을 선택한 경우가 각각 5%씩 된다는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95-96년 2년에 걸친 대홍수 이후 식량난이 극심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94년도부터 그리고 혹은 92년부터 ‘미공급’ 이 이루어졌다는 답을 하였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식량난이 심각했다고 답을 한 경우는 지역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5명 중 4명은 함경도 출신으로 이지역의 경우 80년대 말에 지역에 따라 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항 11.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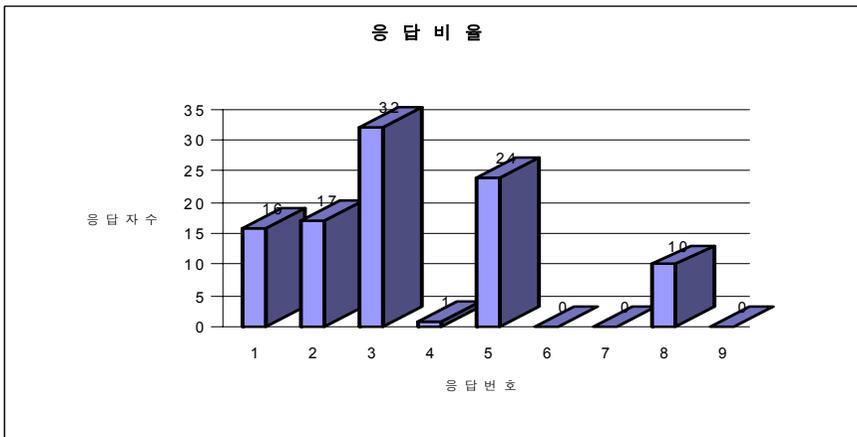
- ① 끼니는 거르지 않을 정도로 나아졌다
- ② 조금 나아졌지만 끼니를 거를 때가 있다.
- ③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
- ④ 식량 걱정은 이제 하지 않는다
- ⑤ 2000년 이전에 탈북하여 잘 모르겠다

<그림 11> 2000년 이후 식량난 호전 상황



위의 도형은 2000년 이전 탈북자를 포함한 통계이며 이들을 제외하여, 2001년 이후의 탈북자들만으로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1 " > 식량난 호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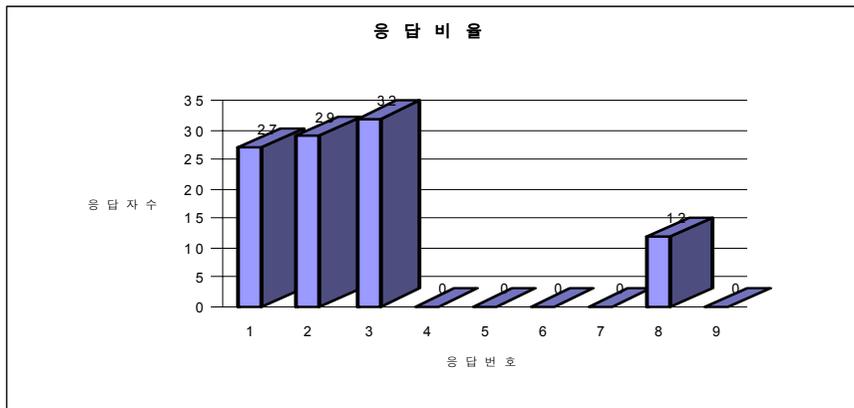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응답은 모두 43%, 여전히 어렵다는 답변이 43%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답변은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수준과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졌

다' (21%)는 응답을 한 탈북자중 상류·중류층이 16명중 8명 (50%)이며, '조금 나아졌다' (22%)에서는 상류·중류층이 17명중 10명(58.8%)이지만, '여전히 어렵다' (43%)에서는 상·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35.5%로 상대저공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식량난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 12. 2002년 시행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림 1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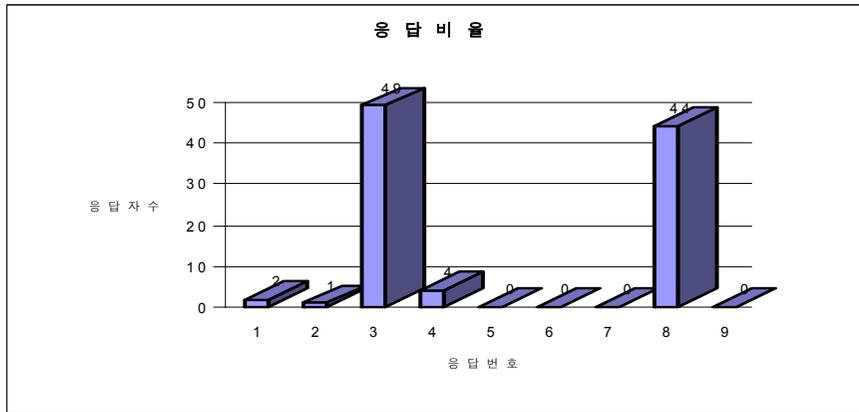


문항 13. (위 질문에 ①에 답한 사람만 응답해 주세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인민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근로의욕을 높여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③ 가격이 너무 비싸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림 13>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영향



7.1경제개선조치의 인지도를 조사하는 질문에 대해 27%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27명 중 25명(2004년 19명, 2003년 6명; 92.6%)는 2003-2004년 탈북자들이다. 응답자 중 2003-2004년 탈북자가 모두 47명이며 이들중 25명(53.2%)이 잘 알고 있는 것 나타났고, ‘들어본 적 있다’ 14명(29.8%)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83%에 이르게 된다. 즉 북한 주민의 상당수는 7.1조치 이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2년 탈북자들의 경우에서도 9명중 6명(66.7%)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7.1조치 이전(2001년 이전) 탈북자들의 경우 극히 소수(43명중 11명으로 25.6%)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탈북 이후에 북한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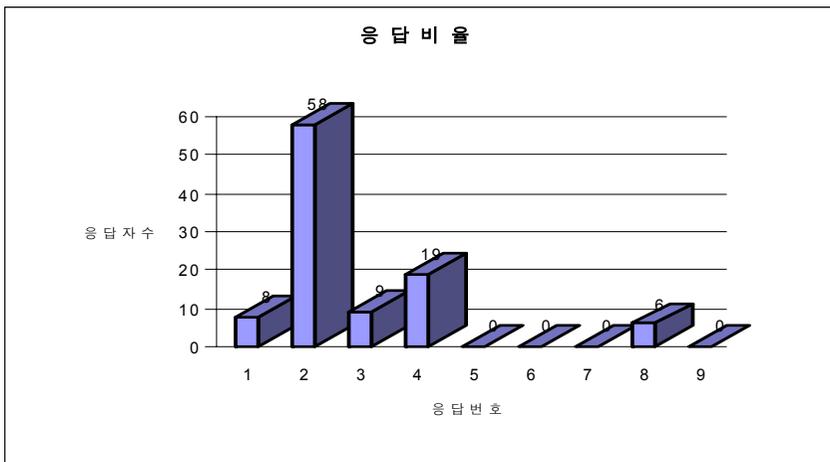
또한 7.1조치의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9%)이 ‘식량이나 생필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절반 가량(44%)은 ‘가격이 너무 비싸 생활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 응답했다. 즉 상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담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의욕을 높

였다는 응답(4%)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볼 때 7.1조치는 성공하지 못한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14. 환자가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 ① 병원에서 치료 받는다
- ②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는다
- ③ 옷돈이나 뇌물을 주고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한다
- ④ 치료나 약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림 14> 의료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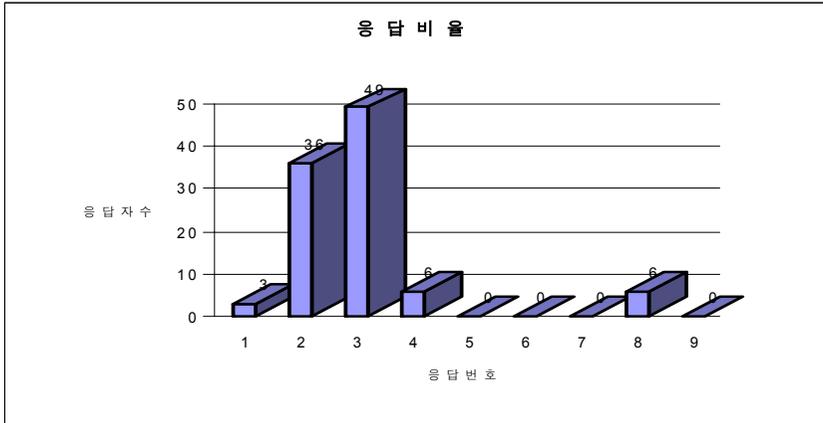


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인 58%가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는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는 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옷돈이나 뇌물을 주고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한다’는 응답이 19%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응답은 북한은 ‘무상의료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의료서비스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 15. 북한에서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상류층 ② 중류층 ③ 하류층 ④ 밝힐 수 없다.

<그림 15> 응답자의 북한에서의 생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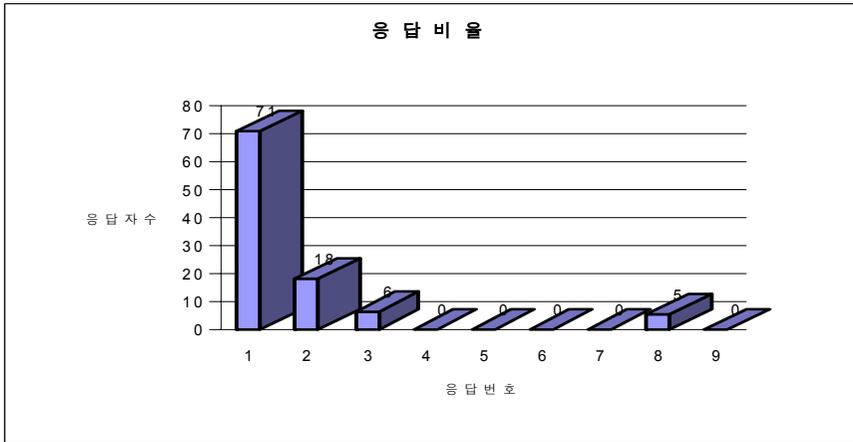
응답자중 절반인 49%는 북한에서의 생활 수준을 하류층으로 인지하고 있다. 중류층 38%, 상류층은 1%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상류층으로 응답한 탈북자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무역회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로동당원이었다. 특이한 점은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탈북자 49%인 49명중 10명(20%)이 로동당원이라는 사실이다. 로동당원은 북한의 최고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가 인민대중을 보살피기 어렵게 되면서 로동당원들의 생활수준도 낙후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북한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

문항 16. 북한에서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거의 없다

<그림 16> 출신성분에 대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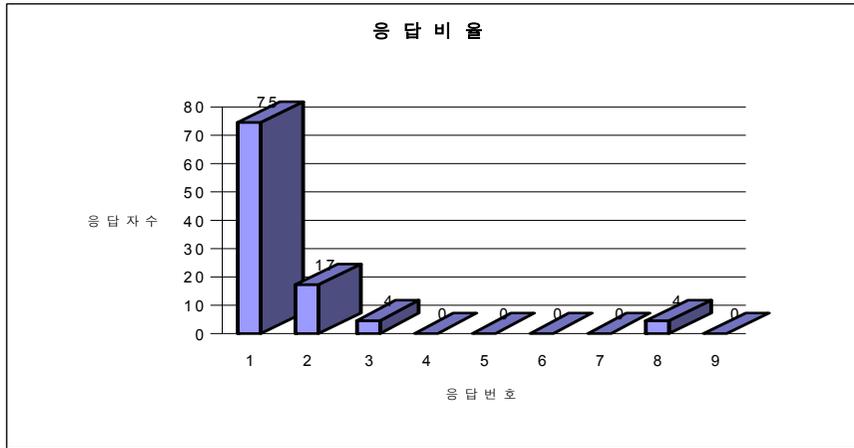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인 71%가 ‘매우 많다’ 는 응답을 했으며, 18%가 ‘조금 있다’ 고 응답하였다. 요컨대 응답한 탈북자중 약 90%는 북한 사회의 신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거의 없다’ 와 무응답은 11%에 불과하였다. ‘거의 없다’ 고 응답한 6명 중에는 청소년이 2명(13세, 17세), 제대군인 1명, 21세 농장원과 28세 노동자 그리고 로동당원 1명(49세)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과 제대군인의 경우 아직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항17. 공개 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은 들었다
- ③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림 17> 공개처형 목적 사례



90년대 후반 한 때 공개처형이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어왔으며, 응답자들 중 7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본적은 없지만 소문은 들었다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모두 92%에 이른다.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한 4%(4명)의 경우 여성이 3명이며(96년 탈북자 1명 포함), 나머지 1명의 남성은 회령시에 거주하던 운전기사이다. 즉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하거나 존재하는 사실로 알고 있다.

또한 문항 18에서와 같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 94%(‘있다’ 75%, ‘소문을 들었다’ 17%)의 응답자가 알고 있거나 소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 18.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시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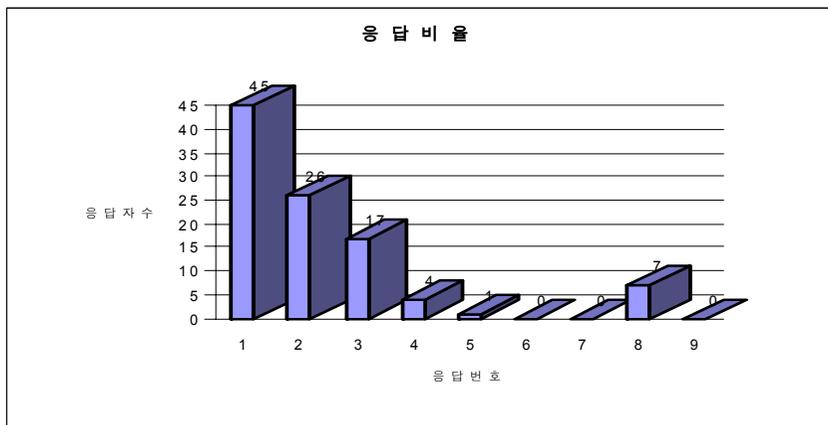
- ① 있다
- ② 소문을 들었다
- ③ 없다
- ④ 모르겠다

들이 심하다고 응답하였고(‘매우 심하다’ 45%, ‘심하다’ 26%, ‘조금 심하다’ 17%), 4%만이 심하지 않다(4%)라고 응답했다. (무응답 7%) 심하지 않다고 응답한 4명중 2명은 남성으로 당원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중년 여성으로 90년대(97년, 99년) 탈북한 응답자들이다.

문항 20. 북한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먹는 문제
- ② 능력에 따른 대우
- ③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여행
- ④ 경제 활동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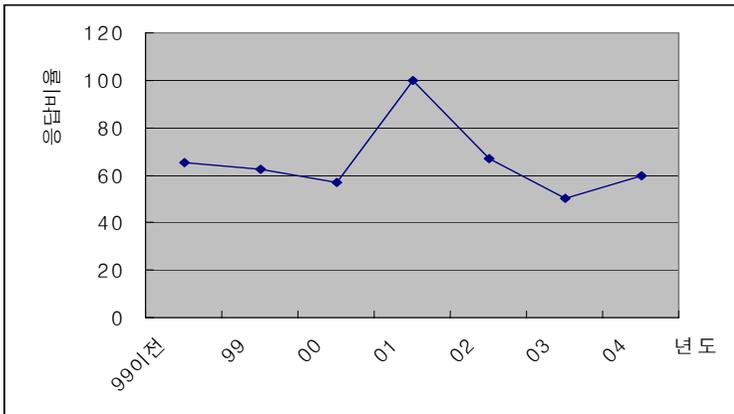
<그림 20>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인식



북한에서의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62%가 식량문제를 들고 있다. ‘① 먹는 문제’를 선택한 62명에 대해 탈북시기별 구분지어 해석하면, 1999년 이전 탈북자 전체 26명 중 17명으로 65.4%이고 이러한 계산으로 1999년 탈북자의 62.5%, 2000년 57.1%, 2001년 100%, 2002년 66.7%, 2003년 50%, 2004년 60%로 나타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2001년도의 경우 전체 2명중 2명이 식량문제를 선택하여 100%로 나타나지만, 통계로서 의미는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1년을 제외할 경우 그래프는 99년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안되고 있지만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아닌가 평가된다.

<그래프 1> 북한 식량난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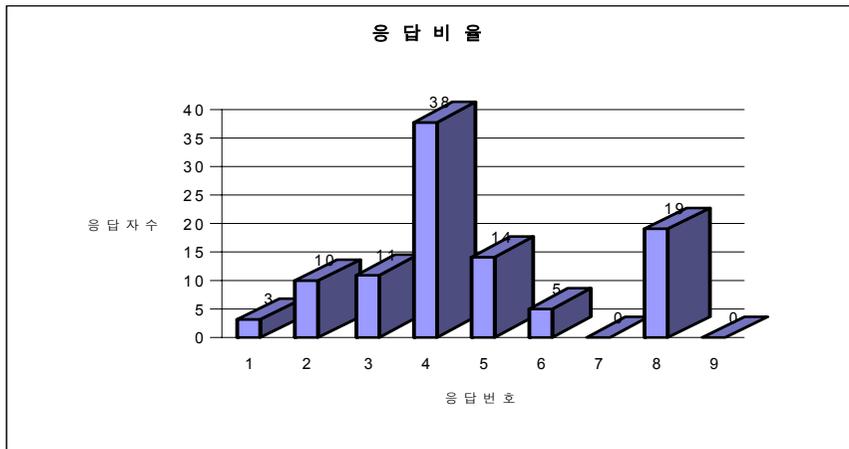
또한 ‘능력에 따른 대우’가 안되는 점이 힘들었다는 응답자는 1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에서의 차별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 15명 중 1999년 이전 탈북자 7명(1999년 26명중 26.9%)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2004년 탈북자 35명중 2명만이 응답하여 5.7%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보다 능력에 따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능력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4년 탈북자들의 경우 경제적 자유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선택한 14명 중 2004년 탈북자가 8명(2004년 탈북자 35명중 22.9%)으로 가장 많으며, 1999년 이전 탈북자 26명중 1명(3.8%)만이 선택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북한사회에서의 사적

이들 중 상당수는 인신매매를 거쳐 동거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되거나, 술집에서 몸을 파는 경우가 22%에 이른다는 것도 이들 인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문항 23.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 여성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 ① 스스로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다
- ②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생사확인이 어렵다
- ③ 술집에서 일하거나 몸을 파는 일을 한다
- ④ 중국인이나 조선족과 결혼해 가정생활을 한다
- ⑤ 숨어지낸다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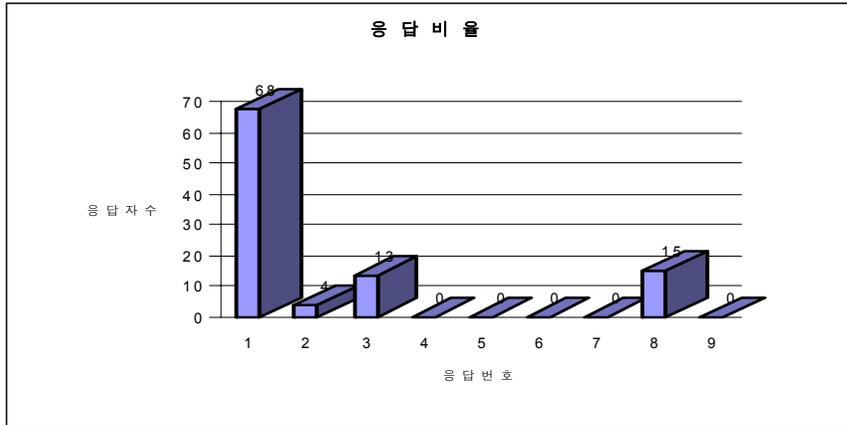
<그림 23> 제3국에서의 여성 인권 실태



문항 24.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할 때 제3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더 나아졌다
- ② 더 못했다
- ③ 별 차이가 없다

<그림 24> 제3국에서의 생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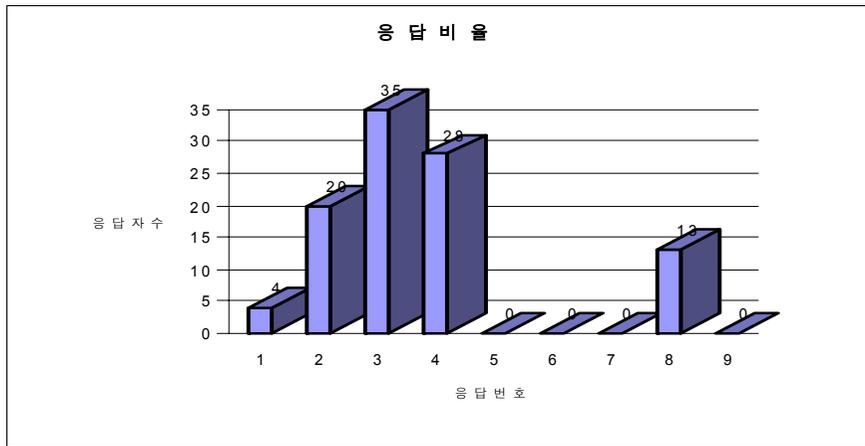


탈북 이후 제3국에서의 생활과 북한에서의 생활을 비교하는 질문에서는 68%의 압도적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① 더 나아졌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별차이 없다’와 ‘더 못하다’는 17%이고 무응답이 15%로 나타났다. 무응답 15%인 15명 중 2004년 탈북자가 12명(80%)으로 가장 많고, 2002년 1명, 99년 이전 탈북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2004년 탈북자의 경우 아직 한국 사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 부족에서 답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 25. 탈북하다 잡힌 여성 중 강제 낙태를 당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직접 당한 적이 있다
- ② 본 적이 있다
- ③ 소문만 들었다
- ④ 전혀 모른다

<그림 25> 탈북 여성의 낙태에 대한 인지도



탈북과정 또는 제3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 탈북자들의 강제 낙태 유무와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3%인 3명의 응답자가 직접 강제 낙태를 경험한 바 있었고, 21%인 21명이 직접 목격하는 바 있다는 답을 하였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다는 의견 35%를 합해서 강제 낙태를 인지하고 있는 탈북자는 61%에 이르고 있다. 결국 북한의 탈북자 수용소에서 강제낙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항 26. 북에 있을 때 남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 ① 쉽게 들을 수 있었다
- ② 가끔씩 들었다
- ③ 듣기가 매우 어렵다
- ④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다’ 12%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들을 수 있었던 탈북자가 무려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7) 또한 남한 소식을 접하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는 ‘라디오’가 29%로 가장 많았고, ‘중국 친척’이 28%, TV가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경우 과거 ‘로터리’ 방식에서 ‘전자식 버튼방식’으로 바뀌면서 당국에서의 채널고정이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국경일대 지역에서는 중국방송(연변 등) 시청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사회의 정보 통제는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탈북자들의 대남 인지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문항 28. 그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① 무응답(70)

② 응답(30)

<응답 내용>

- 1)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살고 있다. 자기가 고생하는게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나니 아직까지 고생이 이 세상이 다 이런 것으로 여기고 있다" (N10)
- 2) "노동단련대라는 것이 있어 노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N11)
- 3) "북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차별이 많다" (N12)
- 4) "북한제도는 인권체제가 거의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N13)
- 5) "언론의 자유가 없고, 조직에 복종하고....자유가 없다" (N14)
- 6) "인권이란 체제의 예속이었다" (?) (N16)
- 7) "인권에 대한 무시가 심하다" (N17)
- 8) "북한은 우선 전면개방해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부 사람들만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몰래 세계정세도 청취하며, 자유도 심히 박탈한다" (N18)
- 9) "북한에서 인권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N20)
- 10) "교예(교회)를 믿거나 교예(교회) 말만 하여도 정치범인 수용소나.....몰래 없어진다는 소문을 들었다" (N22)
- 11)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는 주민을 위한 헌법에 제정되어 인권○○ 상황이 실시

- 되지 못함.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시기○ 사회와 주민을 차별하거나, 헌법의 자유권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법을 운영하고 있다 “(N24)
- 12) "북한은 세계최대 인권유린 지대라고 본다. 구타, 가혹한 형벌, 처참한 죽음 “(N28)
 - 13) "간부, 보위부, 안전부에게 정당한 말을 하면은 강제로동 심하면 감옥, 정치적으로서는 정치수용소. “(N31)
 - 14) "인권의 ○○ 자유의 보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N28)
 - 15) “도 보위부나 도 보안국 밑 지하실에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도끼 사형수가 있다는 소리도 들음(비밀리에) . 북한은 인간생지옥으로 체제가 만드시 무너져야 한다” (N37)
 - 16) "돈만 있으면 큰 제인(죄인) 이라도 ○가 되는 법. 당원이면 비당원들을 억누리는 세상 “(N38)
 - 17) "남한사회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험하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많다 “(N39)
 - 18) "살아도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없고, 죽어도 묻힐 곳조차 없는 사회,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지옥의 독재정권, 말로는 바탕(출신배경) 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탕으로 시작됨 “(N40)
 - 19) "사무원과 노동자간의 생활상, 언어상, 대우 등의 차이가 매우 높다. <죄>가 아닌 <죄>를 쓰고 정치수용소에 가는 경우가 많다 “(N45)
 - 20) "말듣는 것 대로는 청진시 도집결소에서 비경하여 온 사람○○, 짐승처럼 매우 다스리고 짐승보다 못한 천대를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말 많이 들었다 “(N50)
 - 21) "북한에서는 정부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무조건 처벌받는다 “(N52)
 - 22) "한국에 도주했거나 기독교 말만해도 정치범위에 지고(취도) 새도 모르게 붙잡아간다 “(N57)
 - 23) "아마 이 지구촌에서 인권이 제일 한심하고 무지한 나라 “(N58)
 - 24) "군사독재 폭○정치를 한다 “(N60)
 - 25) "권력과 돈의 세상, 즉 권력은 당일군, 보위일군, 돈은 외국 친척에 의한 원조 돈 “(N72)
 - 26) "능력있다면 내가 특무로 김정일이 잡으러 가겠다 “(N73)
 - 27) "북한은 물값이 비싸서 매우 어렵다 “(N80)
 - 28) "북한에 한번 잡혀 나가면 사람취급도 안되고 목숨을 내내야(내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 할 말을 하자면 며칠을 지내면서 해도 다 못합니다 “ (N92)
 - 29) 폭력 독재정권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N95)

30) 북한에서는 비법월경자, 중국에 와서 살던 사람들은 함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성원리에 있는 9교화소 3과(농산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약으로 70% 굶어죽고 있다” (N97)

* (N, 설문응답지 일련번호)

2. 종합 분석

이상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과정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 입국한 지 3개월 이내의 응답자들 중 1/3(35%)은 99년 이전 탈북자들이며, 2004년 탈북자들이 1/4(26%)에 이른다. 특히 2004년 탈북자들의 경우 최초 탈북에서부터 한국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중 1/3 이상의 탈북자들이 국경경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도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브로커의 도움을 통해 남한으로 오고 있다는 점이 이후 정착생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3장에서 적시하고 있지만, 브로커에게 전해지는 비용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착자금을 지원받고도 빚을 얻어 생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일상생활을 묻는 질문에서, 탈북의 직접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식량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9년 이전 탈북자에 비해 최근의 탈북자들은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2000년 이후 탈북자) 절반가량(43%)은 다소 나아졌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3%)

가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먹는 문제라는 응답이 62%에 이르고 있다.

한편 탈북 이후 제3국(중국 등)에서 식량난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향후에도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계형 탈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묻는 항목들에서는 여전히 비인권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항목은 탈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이 북한 전체의 상황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설문 결과만 놓고 볼 때 △출신성분에 대한 차별 89%, △공개 처형 목격 및 인지도 94%, △부정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지도 88%, △인신매매에 대한 경험 또는 인지도 83%, △강제낙태에 대한 경험과 인지도가 약 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음성적 보급 및 중국(연변방송)을 통한 한국드라마 TV시청 등으로 인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여전히 외부 정보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90년대 말 극심한 위기 상황과 비교할 때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우선 식량권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국경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비인권적인 처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탈북자 수감소(단련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보다 크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

IV. 탈북과정에서의 인권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제3국(중국 등)에서의 인권,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후의 인권, 그리고 정착국(한국)에서의 인권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50명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탈북과정의 인권을 세 가지 주제별로 정리하고 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1. 재외탈북자의 인권

탈북자들이 탈북할 경우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제3국에서의 인권은 대부분 중국에서의 탈북자 인권문제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내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의 경로를 거쳐 정착지역(주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의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 중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중국에서의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크게 몇 가지 쟁점들을 들 수 있다. △수색·연행·강제송환 중지 문제 △임시거류증 부여 문제 △아동·여성의 인권 보호 △국제결혼 인정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²⁾

2) (사)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탈북난민 3,005인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 실태를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한 북한인권보고서』, 2004.

① 수색, 연행, 강제송환

우선, 수색·연행·강제송환 등의 문제를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강제연행 및 송환 문제이다. 둘째, 이로 인해 중국내에서 탈북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며, 위조여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생활 불안으로 인해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정부의 강제 연행은 중국내 보호소에서의 체류 후, 북한으로 보내지는 강제송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 중국 보호소에서의 구타 사건을 비롯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 46세 여성, T01에 의하면 이 여성은 중국에서 도문과 만주리 감옥에 각각 7개월씩 구금되었다가 미국의 친척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사례이다. T01은 중국의 감옥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언사례 1>

T01, 폭행 경험은 없어요. 없는데 제때, 없으니까 뭐가 없어서 그런지, 종이 같은 것도 안주고, 칫솔대도 안주고 치약도 안주고 하니까 7개월 있는 동안 너무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약간 때리고 그러더라구. 화장실도 잘 안내고 하루에 오줌을 뭐 안에서 밖에서 누고. 하루에 한번 내보내는데 물 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구타하고 그러더라구요. 여자들은 잘 안 때려요. 그리고 (생필품을) 아무래도 뭐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중국에서는, 안 주더라구요.

T01의 사례는 여성이기 때문에 구타당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에 대한 구타는 발생한다고 증언하고 있고, 생리현상 및 기초생활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43, 39세

여성인 경우에도 남편이 중국 감옥에서의 구타당한 사실과 강제 송환을 증언하고 있다.

<증언사례 2>

T43, 귀국하던 길에 중국에 잡혔을 때 중국 감옥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한국 오다가 붙잡혔으니까 거기 단서가 잡혔거든요. 한국 가던 길이라고 문건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북한에만 들어가면 우리 가족은 모두 몽땅 몰살되기 때문에 제발 한국 보내달라고 거기서 말했어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단식투쟁도 했어요, 그게 조금 담박하게 되면 조금 매도 때리고 제 남편은 매까지 맞았어요. (중국 공안이?) 남편이 매를 맞고 그러면 그 감방 사람들, 경찰들은 남자는 무지하게 때려요, 그래서 제들이 제가 막 나서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사람 왜 때리는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면 때리다가도 할 수 없이 때리다가 고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중국에서 두 달 동안 있고. 북한에 나갔는데

이상과 같이 중국에서 체포될 경우 일반적으로 북한 온성으로 이송되지만, 한국행 도중에 붙들린 경우는 장기간(몇 달씩) 가둬둔다고 한다. 그리고 T15의 경우 중국측에서 브로커를 사서 한국으로 가라고 권유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기 보다는 브로커와 감옥 실무자간의 커넥션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증언사례 3>

T15, " 원래는 붙들리면 저리 온성(군)으로 이송하는데 우리는 한국가다 붙들린 사람들은 몇 달씩 가둬둬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장기수지 뭐, 장기순데, 사람들은 북한에 나가면 죽어요. 솔직히 말해서, 알죠? 그러니까 한 한달지났는지, 두달지났는지 그러더라 말이에요. 니가 한국 브로커를 잡아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처음엔 안하겠다 했어요. 안하겠다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북한에 나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저는 딸이 있는데 딸을 인질

로 잡아서 이 사람들이 뭐를 경계했는가, 나는 딸이 미성년이잖아요. 그러니 도망쳐도 애를 감옥에다 그냥 잡아 못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 우려했단말이에요. 그래 여덟달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좀 시켜보자, 이래 마지막에 여덟달, 일곱달 반만에 나를 또 다시 불러가지고 해라, 하면 네 딸하고 둘을 중국에서 내보내겠다 했단 말이에요 “

둘째로 중국에서의 탈북자들의 생활은 주변인들의 고발로 인해 불안감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증언이 빈번하다. T35, 40, 45, 46, 48등(이 밖에도 T08, 10, 14, 42 등)의 경우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쫓긴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증언사례 1>

T35, "위험같은 게 많죠, 한국 사람들은 상관안했는데, 교포들이(조선족들이), 원래 조선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하면 고동안 저한테 뭐 나쁘다하면 경찰에 신고하죠. 신고하면 그날 딱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 사람이란 건 말 못해요. 고달프죠, 뭐 다니지도 못하고, 고발할까봐 “

<증언사례 2>

T40, “한집안이 여덟 명이 건너 온 데다가 시아버지까지 아홉 명이 뒀으니까 한 집에서 한 칸에서 1년 같이 살았어요. 피해가지고 산골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또 잡으러 온다 그러면 친척집에 뿔뿔이 헤어 있다가 좀 완화됐다 그러면 다시 또 와가지고 살다가 한 3년 살다가 오니까 너무 무섭고 겁혀갈 거 같은 마음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토대가 잡혀가니까 말도 좀 되가니까 3년 동안은 겁혀갈까봐 밥 먹어도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죠. 산골에 가서 몇 달 동안 우리 식구끼리 나무 해가지고 땅해서 심어먹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심은 것도 땅이 모자라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사는게”

<증언사례 3>

T, 45 “자꾸 이케 꼬장, 신고드가면 다 잡혀가잖아요, 중국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농사도 일년 졌어요. 졌는데 그 담엔 조사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모르는데 중국 사람 같지 않다 어디 사람인가 조사들어오니까 다 재산 팽개치고 받고 소고 다 팽개치고 청도라는 데 왔어요”

<증언사례 4>

T46, “중국쪽에서 공안에서 총을 차고 잡을려 다닌다 말예요 잡은 탈북자 묶었던 집까지 돈을 물리고 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무슨 제한하고 이런 그런 것까지, 탈북자들 잡아 널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북경연변 주변엔 탈북자가 오면 별별 떠다 말예요 떠 집에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난 중국측에서 그래요 탈북자들이 온다는데 다 사유가 있지 정말 생활이 평탄한 이런 사람은 올리 만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모두 잡아서 북송하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안돼 겠나 중국에 살면서 중국규정을 위반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건 잡아서 법적으로 처리해도 좋지만 의식적으로 막 잡을려 다니고 막 잡아서 북송하고 이런 걸 볼때 야 탈북자가 진짜 과연 북한인민들이 이렇게....”

<증언사례 5>

T48, ” 흑룡강성에 친척이 있으니까 친척집에선 못살고 농사일 도와주고 차도 수리해주고 사람 믿지 않는 게 이게 제일 패심하거든요 조선족들 말안들으면 쥘혀나가고 그럼 고생하고 자기네 이속만 사릴고 또 일 시켜먹고 돈 안주고 사람이 감정이 쌓여서 폭발한단 말임다, 대들면 고발하고 잡혀나가고 (아이들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셋 가족은 다 나왔죠 “

또한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4세 여성인 T05, 07의 사례는 쫓겨다니는 생활과 위조여권으로 생활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어려움을 토

로하고 있다.

<증언사례 6>

T05, "그러니까 중국에서 1년반동안 그렇게 쫓겨다녔죠.....그리고 그 비행기 탈 적에 그 위조여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사람, 그 사람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죠. 조선 사람한테 들어간게 아니라 중국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그때 안개가 끼서 거길 통과했는데 되돌아 나와야 될 형편이....."

<증언사례 7>

T07, "왜 그러냐면 물론 주민등록증이 없고 이러면 떨려 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게 마음에 걸리고 겁도 나고 그렇지만은 먹고 사는건 솔직히 조선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의 불안감은 임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T22의 사례에서는 월급을 못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언급과 함께, 한 직장에 정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T40의 사례에서와 같이 작은 월급으로 인해 자녀교육은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자 2세들의 경우 상당수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증언사례 8>

T22, "북에서 왔다면 월급을 많이 줘야 300원이고 돈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죠.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임금이나 이런 문제, 그리고 자꾸 옮겨 다녀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이죠. (한 곳에서 일하는 기간은) 대략 한 5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한지 3-4일만이라도 검열 온다고 하면 가야하니까 대중이 없죠."

<증언사례 9>

T40, "근데 말도 잘 안되지 북한에서 왔다고 중국 사람들도 우

리 많이 천대라고 할까, 말하자면 로임도 작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조금 주니까 우리 아빠가 400원, 맨 처음엔 300원 받다가 나중엔 400원 받고 일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겨우 밥이나 먹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기도 학교 못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중국말은 조금 배웠으니까 인력거 있죠, 그걸 끌었거든요. 그래도 장사 수리하면서 남의 봉급 탈 때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한 달에 500-600원까지 벌어들였어요. 그래도 아 학교보내는 건 힘들더라고요.”

셋째, 중국에서의 생활불안은 결국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증언이 나타나고 있다. 74세 여성 T27은 중국 생활이 힘들어서 한국행을 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T25 역시 “중국정부가 자꾸 못살게 구니까 다른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사례 10>

T27, “처음엔 한국 생각 안하고 그냥 중국으로 갔지. 중국에 와서 자꾸 붙잡아 내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한국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 처음에 한국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꿈에도 생각도 못한다구. 한국에 간다는 것은 국가를 배반한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연변지역 같은 경우 여기 방송도 듣고 티브이 연속극도 보고하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생겼지.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뒤떨어졌구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면서 그게 다 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아 이렇게 우리 정책이 잘 못됐구나 하면서 느끼죠. 말은 못해도 야 이 정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여요” .

이상의 사례들은 탈북자들이 탈북지(중국)에서의 신변 불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

우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항상 불안감에 빠져있다.

② 인신매매와 결혼

탈북 여성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건 그렇지 않건 인신매매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신매매의 경우 중국인(조선족 또는 한족)에게 혼인시키는 경우와 유흥업소에 팔리는 경우가 있겠으나, 본 인터뷰의 경우 혼인으로 중국을 오게 된 사례들만이 확인되었다. T14의 경우 장사 물건을 떼기 위해 중국으로 잠시 왔지만 중간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려 했던 사례를 증언하고 있으며, T41의 경우 딸들이 인신매매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증언사례 1>

T14, “중국에 넘어갔다가 그날 저녁에 온다면서리, 갔다가 오면 물건도 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밤 10시에 갔다가 12시에 넘어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 해가지고 밤에 넘었는데, 여덟명이서 넘었어요, 두명은 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6명이서 건났어요. 그래 건너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정세가 심해가지고 우리를 팔아먹으로 데리고 가는거 몰랐어요, 저희는. 98년도 그래 갔었는데 정세가 갑자기 심해져 가지고 우리를 못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소개해 가지고 남자하고 동거를 한 거예요”

<증언사례 2>

T41, “둘째, 셋째 딸들이 중국에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외가 삼아 좀 방조 받아서 온다는 것이 중국 조선족들한테 잡혀서 팔렸어요, 중국 돈으로 4천5백원씩, 그래 가지고 소식이 좋 무소식이어 가지고 제가 좀 중국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아보니까 소식이 전혀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담하게 강을 건넜어요. 밤에, 그 때가 98년 2월 20일날, 강을 건너 중국에 가자고 친척집을 찾

아가니까, 안왔다고. 안왔는데 좀 더 있다가 소식이 연결되면 알리겠다고, 그랬는데 21일날인가 소식이 왔어요, 개들이 왕청 다다구란데 팔려가 있다구”

이와는 달리 T15의 경우와 같이 인신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탈북한 사례도 있다.

<증언사례 3>

T15, “장사 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에 올 생각을 했어요, 돈 벌러 중국에 올 생각을 했는데 친구를 통해서 중국사람 알게 되서 그 분을 통해서 중국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 시집을 가야 데려다 주겠다 이래서, 저는 시집 올 생각을 안했는데, (이혼하고 혼자 있다가) 결혼을 해야 데리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그러겠다. 그러니까 음, 나쁜 말로는 팔렸다고.....조선족에, 그래 중국 길림성 장춘시 능마현 농촌마을에 시집을 갔었어요.”

또한 T02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국에서 조선족 또는 한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정식 결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혼 생활에서도 어려움들이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16의 사례와 같이 한족과 동거하는 경우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T36에서와 같이 조선족과 동거(결혼)하는 경우에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시집으로부터 인간적 차별을 받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다.

<증언사례 4>

T02, “결혼식은 안 올리고 비법으로 왔으니까 안 올리고 그저 나중에 음식 삼아 놓고 식을 올렸지. 올리고 그 날부터 정식 살았지.....나 한번 (북한으로)나갔다 왔었어요. 2002년도에 나갔다가 이혼하고 왔지요. 들어올 때는 이혼 못하고.....”

<증언사례 5>

T36,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당하죠. 시부모들한테, 시집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차별받는 거. 아무래도 좀 못사는데서 왔으니까 그런 차별 있잖아요. 그런게 좀 힘들고. 그 답에 뭐 있냐면, 호구, 호적을 못하니까, 맘대로 어디가서 취직도 못하겠고, 그런 거 있죠. 그까 내가 생각하면 언어장애, 첨에, 이젠 5-6년 살다보니까 언어장애는 안착했는데, 그 전에 1-2년은 못살겠더라고요, 언어장애가 되가지고, 속은 뻘한데, 말을 던지질 못하니까. 그게 참 고통스러운게 없더라고요.”

2) 기타 제3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중국 외의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의 경우 대체로 재외 한국대사관측과 한국의 교회 및 시민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려움 점에 대해 지적이 있으며, 특히 T08, T35, T36, T45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 한국행이 결정될 때까지 무작정 호텔에서 기다리는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증언사례 1>

T35, "(베트남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그런 건 없었어요, 같이 바깥 출입 못하죠, 집 안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증언사례 2>

T36, "베트남에서, 우리 보내는 문제 때문에 거기서 잡히면은 우리가 북송당해야 하잖아요. 그니까 그런 위험이 많이 따랐어요. 우리 보내느냐, 아니면 돌려보내느냐, 한국을 보내느냐, 논의되면서 우리를 데리고 있던 사장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면, 자기네도 다 바쁘니까, 불법이잖아요, 다 비법적이니까, 고저 우리 몇 십명한 호텔에 한 80명, 85명되는데, 우리를 버리고, 다 바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불안하잖아요, 밖에 내다보면 경찰들이 쪽 둘러섰지, 막 잡아갈 거 같고 하니까, (밖에) 못 나가지, 내가 두 달 반 있다가 왔는데, 두 달 반 동안 바깥 구경 한 번 못했어요. 근데 두 달 반 동안은 나는 행운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섯, 여섯, 여덟 달까지 있다와요. 우리는 빨리 왔죠. "

<증언사례 3>

T45, "베트남 와서도 7개월 동안 감옥같은 데서 말도 못하게 하고 바깥에도 거기 열대지방에서 그래도 붙잡히는 거 보단 낫죠. 이런 고생으로 생각 안해요."

그리고 T24, T33등의 사례와 같이 시민단체와 교회의 도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례로 있지만 T03의 증언처럼, 일부 탈북과정에서 제3국에서 지원단체들의 부정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확인되고 있다.

<증언사례 4>

T33, "우리가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서 해서 한 40시간 잤어요. 거기서 잤거든요. 베트남 공안에 우리 13일 갇혀 있었어요 다섯이서. 우리 북한에 갈줄 알았거든요 가면 우리 죽어야 되거든요. 베트남 공안에서 한국하고 이렇게 해서 13일만에 나와가지고 베트남 대사관 들어갔어요. 우리가 공안에 잡혀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나 말이 안통해서, 누가 접촉해서 그래서 왔어요.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죠. "

<증언사례 5>

T03, "제가 베트남에 석달 있으면서 제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거 좀 남한 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들 다 상처 받은 사람들인데.....우리 북한 사람들 당한게 많아요, 솔직히.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우리 작은애 같은 경우는 혈우병이 돼 가지고 피가 나면 멈추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남한에 오니까 혈우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코피 흘려가지고, 그렇게 환자인데도 또 자기네 알력관계 때문에 아이를 안 보내가지고 저희 오빠가 외교부 찾아가고 난리 피워서 그래 뽑았어요. 진짜 그런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더라고, 사람 가지고 뭐 압력하고. 북한사람들 솔직히 뭐 다 감정있고, 인간인데 사람 취급 안 하고, 안 좋죠. 기분 나쁘더라고요.....베트남 도착해서부터 교회말 아는데 그 도착했을때 자기말,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네 행동에 우리 북한 사람들이 교회란 이렇구나 이리 인식하거든요.. 저 원래 오면 저 교회 안 갈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이중성격 나고, 그리고 말 한마디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 좀 잘 해줬으면 좋겠더라

구요.”

2. 복송 이후 처벌

1) 비정치적·초범의 사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경우, 사례별 인권 유린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T31과 T39, T43의 경우 초범이라든가, 비정치적 탈북으로 분류되어 2주일 가량 구류 후 풀려난 사례,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일찍 풀려난 사례를 보이고 있다.

<증언사례 1>

T31 “98년도 1월 달에 넘어왔다가. 고모랑 같이 물건해가지고 음력설 세고 20일되었어요. 보름명절 세고, 다시 건너가다가 경비대한테 붙잡혔거든요. 감화소라고 탈북자들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보름정도 있었어요. 1998년 2월 20일 정도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때였죠. 그때 강냉이 주는 거 먹고 있었어요. 보름 있다가 나왔거든요. 기관에서 통행증하고 물건 만졌고, 그 물건 찾고 중국 돈 좀 있었는데 그거 주고 찾아 왔어요.”

<증언사례 2>

T39 “거기서 잡혔을 때 기본적으로 보위부에서 조사 한 장 하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바빠서 들어갔다 하면 정치적인 거만 없으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단련대에 붙잡혔다가 다시 나오고 일단 다시 넘어왔어요 나와가지고 그카는데 보위부에서 직결소 가거든요 거기서 또 해당부서까지 가거든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내 친구 언니가 안전부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련대는 안갔어요.”

<증언사례 3>

T43 “중국에서 잡혀 북한에 나갔는데 북한에서는 또 우리가 침 잡혀나갔어요, 침 잡혀나간 사람이니까 크게 취급은 안하는데 가족

이라고 혹시 한국가다 잡혔는가 해서 심사를 몇 번 했어요. 세 명이 아이는 그 때 아파가지고 쓰러지다 나니깐 아이는 심사를 못하고 남편하고 제가 엇바뀌서 나가는데 세 번씩 다시 묻고묻고 했는데 거기서는 다행히 크게 걸리지 않고 둘이 말을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어요.”

T20에서와 같이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4개월여만에 환자가 된 하나의 확인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증언사례 4>

T20 “중국에 있다가 작년(2003년) 3월 27일에 잡혀나갔거든요. 북한에 잡혀 나갔다가 북한에서 판결을 5년 받았거든요. 감옥살이 하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병보로 나왔거든요. 8월 13일 병보로 나왔는데 8월 26일 날에 중국을 건너서 다롄까지 3일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걸어서 도착해가지고 다롄에서 차를 타고 연길에 도착해서 셋집을 잡고 있었거든요. 11월 26일 날에 북경 영사관에 갔다가 들어 못 가고 다시 연길에 돌아왔다가 12월 7일 날에 다시 북경영사관에 들어가서 영사관 생활 6달 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2) 무산·청진도집결소 및 혜산 <927사무소>의 인권 실태

T41의 경우 무산보위부와 청진도집결소의 인권 유린 상황을, 그리고 T44는 혜산시의 927사무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심한 폭행, 나체조사, 강제낙태와 매장 등이 행해지고 있는 사례에 대한 매우 자세한 증언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당의 선전원으로 활동했던 T44의 경우 927사무소의 1일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북한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한다.

<증언사례 1>

T41 “연길에 있다가 2000년 4월 25일 날 강제송환 되가지고 북한에 나갔어요, 나가서 6월 5일 날 청진도집결소라고 있어요, 무산 보위부 거쳐서 도 집결소에 한 달 있다가 다시 7월 5일 날 탈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무산에 잡혔을 때 나도 이때까지 북한에 있었어도 죄를 안 짓고 살다노니깐 법이 그런 줄을 몰랐어요. 무산 보위부에 처음 잡혔을 때 옷을 아예 다 벗기고 손을 머리에 얹고 앉아 일어나 50번을 하거든요. 그까 나는 왜하는줄 몰랐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에 물어보니까, 돈이 향문이나 자궁에 돈을 넣은 것이 나온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50번을 하고 벽을 짚고 옆테라고, 옆테니까 우리들이 옷 벗어놨잖아요 그걸 양쪽 손에 쥐고 이케 향문하고 자궁을 들여다 보거든요. 돈이 안나왔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힘을 썼으니까 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보이는데, 안보이니까 일어나 옷티 입으라고, 옷티 다 검사하고, 몸 다, 이빨, 어간 다 머리 밑, 젓 큰 사람 젓까지 다 들고 뒤져보고는 옷티 입으라고. 그케 가지고 무산 보위부에 들어가서 여드레 동안 있었어요, 8일 간 있으면서 왜 중국 갔댔냐 집에 누구 있는가 어디가 살았나 물어보고 도 집결소에 갔어요. 갔는데 그 때 당시 여자들이 한 240명 있었고, 남자는 그닥 많지 않아서 18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국에서 여자들이 팔려갔거나 그냥 건너갔다가 임신한 여자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임신한 여자들이 들어오면 여자 호실이 1호실, 2호실, 3호실 세 개가 있었어요. 1호실은 노동능력이 좀 건강한 사람들로, 2호실에는 파라티푸스 환자, 역병 환자, 환자들 넣는 칸, 3호실에는 좀 따뜻하기도 하고 좀 아늑했거든요, 임신한 여자들도 많이 넣고, 건강한 여자들도 넣고 무조건 이 안에 잡히면 임신한 여자들이 6개월 돼 들어왔건, 7개월 돼 들어왔건 이 안에서 애기를 낳아야 나가거든요. 애기 나오는 건 옆에 할머니들이 나와요. 할머니들 내오고 우리 방이 좁으니까 벽에 다 이렇게 서서 애기 엄만 애기 앓아서 낳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서서. 우리끼리 다 하는 거예요, 바깥에선 안전원들이 겹겹이 살창을 쳤으니까 나뭇가고 애기 나면 애기를 코를 땅에 단게끔 엮어놔요. 이러케 엮어노면 애기가 울잖아요, 살겠다고, 버둥거리면서 살겠다고 울고 정말 그럴때면 엄마는 애기가

죽기를 기다리는게 정말 말도 못해요, 애기를 죽기를 기다리는 게
 엄마는 가슴을 쥐어뜯고 실제 해산은 했는데 위생적으로 관리문제
 없지, 하혈을 하는데 틀어막을 천도 없잖아요, 바지를 벗어서 위의
 내복을 벗어서 다 이케 차고 앉아서 그냥 눈물로 세월보내, 건강한
 애기가 3-4일, 이틀 이렇게 울더라고요. 안전원들이 그 때는 들어
 와서 그래요, 너 애기 우는 걸 봐서라도 중국 종자는 받을 것도 못
 되며 이 우리 조선, 북한 땅에 떨어지면 안되니까 이케 우는 과정을
 봐서라도 중국 다신 가지 말라, 북한이 인덕정치, 광폭정치 이 얼마
 좋은가, 너네 다 포섭해서 받아들이니까 애기 나서 죽이고 빨리 나
 가라고. 실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애기엄마들은 자식인데, 인간
 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케 있는 간에 딱 한 달 있었
 어요. 6월 5일 날 들어가서 7월 5일 날 온성군 보위부로 넘어갔거
 든요, 딱 한 달 있는 동안에 애기 일곱을 낳어요. 유산된 애기 둘,
 팔개월 짜리 조산한 여자 하나, 굶어죽는 사람 둘, 못을 먹고 죽은
 사람 하나, 어른 들이 남자 셋, 이케 죽었는데 묻는 거는 변소간에
 세워 놔다가 어느 한 날에 집결했어요, 그까 열이 되잖아요, 애기
 일곱 그 담에 죽은 어른들 셋해서 어느 산에 가서 파가지고 다 같
 이 묻고 왔잖아요. 묻고 오니까 묻으러 갈 때 우리 아들도 아마, 우
 리 아들도 같이 잡혔거든요, 아들 아마 청년이니까 묻으러 갔됐나봐
 요, 묻고 와서 너무 놀레가지고 막 며칠동안 열나며 아프고 머리가
 아예 다 빠졌어요, 한 울도 안남고,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게 너무
 가슴아파요, 머리 빠진 건 그래도 살았잖아요, 애기들하고 정말 말
 도 안되죠. 신생아는 자연히 죽게 생겼죠. 애기가. 그리고 낙태를
 시키죠, 더러, 배를 막 발로 차가지고.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중절
 시키는 약이 없으니까 배를 차서 8개월 짜리 아기는 조산되고 4개
 월 짜리 애기는 유산되고, 그런 일이 한 달여 동안 있었어요. 하튼
 말도 안되죠.”

<증언사례 2>

T44 ” 40일 동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산 속에서 헤맸어요. 그
 러다 돌고돌다가 온게 결국 장백현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18덕에서 붙들려 가지고 북한으로 끌려왔어요. 끌려가서 진짜 끌려

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아우 잘살던
 지 못살던지 그래도 제 나라 제 고향에서 굶어죽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 미련가지고 갔는데, 제가 붙들려 가서 <927사무소>에 들어갔
 는데 <927사무소>에서 하는 걸 보고 이가 갈렸어요. 왜 그저 거기
 서 부녀자들 정말 밥 한 끼, 이밥에다 돼지곰국을 먹고 한 끼라도
 먹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둘 서이 데리고 중
 국을 넘어갔다가 붙들려서 다시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몇 차
 례 붙들려 왔으니까 <927사무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누구 엄만지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붙들려 와가
 지고 몸수색 다 당하고 또 끌려들어왔으니까 매가 가해지는데 어디
 서면 깡패 같은 아 새끼들, 야 정말, 그 아주마이들 고저 손 들게
 짹 피게 하고는 고저 이런 몽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패요, 이런
 몽둥이 가지고 이 발을 있는 힘껏 내리치는데, 세상에 고저 대담한
 몽둥이가 한 메다 조금 더 되는 몽둥이가 세 토막으로 나가요, 그래
 이 아주마는 고저 나는 그거 보는 순간에 아야 악하고 소리치고 말
 았어요. 어찌 여자한테다가 이런 몽둥이를 대요, 그것도 글썸, 뭐
 범죄를 저서 정말 도둑질하고 살인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면 모르겠
 는데 그 불쌍한 아이들 둘 서이 데리고 한 끼 얻어먹기겠다고 중국
 건너갔다가 쥘혀서 들어온 사람인데, 거기다가 어디 몸덜대가 있어
 요. 근데 이 아주마는 옥 이 소리밖에 안해요. 우리 옆에서 본 사람
 들은 악하고 소리치고 기절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주마가 신음소리
 한다고 손 들고는 그 우산, 산창 있잖아요, 비올 때 쓰는 우산 살갈
 은거, 이만한 거 그거 가지고 손을 들게하고는 그거로 내리치는데,
 세상에 난 막 그거보고 까무라칠 뻔했어요. 내가 소리치니까 이 갓
 나새끼 벽쪽으로 돌아서래요. 돌아서라 그래 돌아서 있었어요. 그
 술한 사람들 그렇게 맞는데 난 침 들어왔고, 옷도 잘 입었고 이케
 되니까 눈은 좀 다르게 봤겠죠. 어디 가서 뭐이 굶다가 온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딱 보더니 옷을 보니까 저네가 좀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해요 저하고는, 때리지도 않고그래
 서 내가 그것도 많이 겪으면서네 <927사무소>에서 끌려가서 딱 하
 루 있다 나왔는데, 9월 27일이란 거는 김정일이가 그 때 방침내렸
 어요, 중국 갔다온 사람들 이제 거기 다 몽땅 수용을 시켜서 교양을

해서 고향으로 보내라 이렇게서 수용소가 생겼는데 혜산에 량강도 혜산. 거기 큰 여관 그 통째로 하나를 수용소 만들었어요. 그간 중국 갔다온 사람들 몇 번이나 붙들려서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조금 경과에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서 아이 낳고 산 사람들은 엄청하죠. 그런 사람들은 보위부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보위부에 그냥 갇혀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내는 또 말을 좀 다르게 했으니까 난 뚝에 올라섰다가 친구네 가는데 뚝에 올라 섰다가 붙들렸다, 중국 땅에 가서 난 밥 한 끼도 얻어못먹고 뚝에 올라섰다 걸려들었다 이러케서 붙들려왔다 이러니까 더 말 안해요. 그래서 난 그렇게 관대히 용서를 받았고 내가 우에 입었던 옷이 가죽잠바 옷이라 그게 일본 아이들 건데, 그거는 정말 북한에서도 사기 힘들고 중국에서도 그런 거 없고 이케 되니까 그것들이 그 옷에 맘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내가 왜 나를 때리지 않았는가 그거이 보니까 하룻 밤자고 이튿날 아침에 날 딱 부르다 놓고서는 나갈 생각이 없는가 당장나가지, 여기 한 달만 있으면 영양실조 되가지고 다 나간대요, 내가 눈 뜨고 현실적으로 봤으니까. 아침에 되니까 강가에 시체들 다서 여섯 개 들고 나가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한 달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거기서 주는 거라는 게 콩강냉이죽, 그거 중국에서 돼지 사료로 들어오는 거, 거기선 고저 큰 가마에다 가루 막 퍼놓고 삽으로 막 저서가지고 그릇에다 막 담아서 주는데 하도 사람이 몇 백 명, 거의 사람들이 7-800명 되는 사람들 언제 그릇을 해서 줍니까, 고저 먹던 사람들에다가 그 그릇이 나게 되면 거기다 또 퍼주고 또 퍼주고, 숟가락은 손잡이도 없고 손잡이 꼭 띠고서는 쪽지만 있는 그런 거 가지고 퍼먹고 이러는데, 그렇게 먹이니까 그 안에서 영양실조 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거기 한 달만 있으면 영양실조 온대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한 달만 있으면 영양실조 걸리니까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래요. 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이런 말 할까 했더니만, 아줌마 그 옷만 하나 벗어 주면은 내보내겠대요. 그래서 난 그 옷을 벗어주고 이튿날 아침에 다행히도 난 나올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죠. 뭐 주체들이 한심하고 세상에 그 안에 무슨 피부병이 돌았는지 고저 사람들이 막 굶고, 막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너무 끔찍해서 세상에 북

한 사람들은 굶어죽고 얼어주고, 맞아죽고 진짜 그 안에서 그 실태를 놓고 내가 진짜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거 서른 여섯 살 동안 거기서 살면서 최하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느끼지 못했던 거 나는 거기 들어가서 정말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이런 사회를 놓고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제일이라고 맨 선두에서 마이크 쥐고 우리가 이 사회주의를 위해서 목숨바쳐 싸워나가야 된다고 막 외쳤던게 너무나 혐오스럽고 내가 내 자체가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가 내 조국이지만 이런 나라를 조국이라고 믿고 있는 게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내 죽어도 다시는 이 땅에 발 길 돌리지 않는다 그 때 결심을 든듯이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 들어오기 전까지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보위부를 찾아가서 자수를 하고 내 잘못을 단동을 하고 정말 다시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게 거기서 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는 내 죽어도 이 나라 땅에 발 길 돌리지 않는다 내 다시는 그렇게 맘먹고 나오자마자 저 그 다음 날 저녁으로 중국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

3. 한국 입국 후의 인권문제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어떤 문제제기 보다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브로커비용으로 인한 생활고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취업의 어려움은 장기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다수 탈북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문화의 차이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장기간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넷째,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불편한’ 인식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북한 자격증의 한국내 인정여부 문제 등에 대한 기타 견해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1) 브로커 비용과 생활 문제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 중 상당수는 직접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였고, 일부는 가족 또는 제3자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용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T10의 사례의 경우 브로커비용 지불로 인해 빚으로 연결되고 있고, T11, 12, 20, 21, 22, 23, 24, 28 등 많은 사례에서 생활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증언사례 1>

T10 “뭐 특별한 할말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 같은 건 혼자 오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도 브로커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요. 다 돈을 많이 주기로 하고 오다보니까 여기와서도 다 빚지고 계속 이렇게 사는...

<증언사례 2>

T11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브로커비라는게 와 보니까 물자니까 대단히 그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래 정부에서 뭔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면 자식들이 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 돈은 tv에도 나오지만..... “

<증언사례 3>

T12 “당장 뭐, 브로커 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오백씩 줬어요. 천만원 줘야 하는데, 집값이 높다 보니까 방세도 제대로 안되고, 아직도 그 돈이, 근심이 좀

<증언사례 4>

T21 “여기 와서 받은 정착금이 약 3,500만원 정도인데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왔으니 브로커에게 정착금 일부를 주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나중에 또 왔으니까 다 합쳐서

1,300만원을 브로커한테 주었거든요. 거기에다 집 얻는데 700만원 정도 들고 해서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브로커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이제 정착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과정까지 고려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증언사례 5>

T22 “브로커에게 50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니까 그런 것 (정부에서) 좀 도움을 더 주었으면 합니다.”

<증언사례 6>

T24 “괴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브로커한테 돈을 주는 거죠. 300만원, 400만원도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정확히 얼마나 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7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만원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때먹지도 못하고 받드시 줘야 한다고 해서 저는 7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줘도 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3,500만원 받는데 한 500만원 못 주나 했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브로커 문제가 큼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과정에서 조금 돈을 썼겠죠. 그러나 500만원을 쓸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 쓸 겁니다. 나하고 하나원으로 같이 온 사람이 열 명이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쓴 것이 700만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고 나면 나가서 살 돈도 없다고 해서 100만원 깎아서 준겁니다.”

2) 직업과 생활의 문제

단기간의 교육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곧바로 취업이 어려우며, 또

한 한국사람의 노력의 몇 배를 해도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미취업으로 인해 장기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28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160만원 정도 벌어서 생활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내용과 사업 실패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T47은 국가에서 주는 기초 생계비로 가족이 생활하고 있어서 근심이 크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증언사례 1>

T28 “제가 2002년도 하나원 졸업해 가지고 문방구회사 다니다가 저는 60만원 남편은 100만원 받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일하니까 생계가 어렵다 라구요. 임진각에서 식품. 호박전을 팔았어요 파주에서 재료 받아서, 30만원정도 들더라구요. 그때는 가을이라 그런지 팬찮더라구요. 12월 되니까 겨울이니까 갔다왔다 딱 차비 돼더라구요. 이 상태 끌고 갈려니 안돼겠더라구요. 다시 회사 찾아서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 바로 못 찾았어요. 그러던 찰라에 파출부 다녔어요.”

<증언사례 2>

T47 “한국에 와서는 하나원 나오고 나서 처량 컴퓨터 학원 다니고 이카거든요 직업이 업고 아이 있으니까 신통한 직업 못잡지 그래가지고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형편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기초 생계비로 살아가는데 미래가 아직 신통치 않으니까 근심이죠.”

<증언사례 3>

T36 “조선에서 많이 배운 게 없어요, 배웠다해도 여기 한국 사람들이 수준이 높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대학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서 취직하는 문제가 점점 어렵더라고요.”

<증언사례 4>

T37 “막상 한국에 와 보니까 기존에 한국분들이 한걸음을 걸으면 저희는 열걸음을 뛰어야 하고 그걸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런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나 교육수준이나 모든 게 엄청난 차이를 나잡아요. 그걸 따라 갈려면 피나는 노력해야. 중국에서는 참 그런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 과연 한국에서 진짜 생존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런 성공적인 정착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나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증언사례 5>

T38 “내 달부터는 지금 50십만원 받는데, 내달 부터는 30만원, 내년부터는 그거로 생활할 수 없단 말예요. 솔직히 어디 가서 청소 부래도, 무슨 이런 걸 물론 내 능력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찾지 못하는게 내 결함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몇 번 재묻는단 말ियो, 그간 내가 또 상대방 하는 말도 역시 그렇고 무슨 말하나, 네? 뭐랍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가 돌아다니며 땡겨봐도 말도 통하지 않지, 사실도 여기서는 거기와 달라서 60넘어 70되면 직업을 안구해주더만.”

그리고 T06의 경우는 북한의 약제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시 이를 가지고 오지 못해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T28의 사례와 같이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한 고민들이 제시되고 있다.

<증언사례 6>

T06 “저희는 아직 인권이란 개념이 잘 안 서있거든요. 그런걸 예사롭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저는 뭐랄까 자격인정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면 침해인 것 같고.....그러니까 그러면 졸업장 가져오면 너네를 인정해 주겠다.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우리는 주머니에 쥐약 하나 딱 넣고

오는데 거기다가 졸업증 누가, 챙길 사람이 어디있냐.”

<증언사례 7>

T28 “큰 애는 이제는 고등학생이죠. 여기 와서 중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어려워 하더라구요. 작은애는 초등학교라 괜찮아요. 그리고 큰애는 공부가 따라 못가니까 피가 말리 하더라구요. 못따라 가더라고요. 수학하고 영어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학교 그렇게 중요치 않잖아요. 국어가 딸리거든요. 중학교에서 힘들어해서 4개월 다니다가 지금 검정고시에 가니까 못따라 가더라고요. 한 반년은 지금은 북한애들만 하는데 다니거든요. 검정고시 다니면서 너무 재밌어해요.”

이 밖에도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와 아울러 교회 및 시민단체의 지원이 결국 브로커 비용만큼만 소요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증언사례 8>

T34 “오다보니까 어쨌든 삼국인으로 취급하잖아요, 우리 이등인으로 취급해요, 한국인으로 취급안하죠.”

<증언사례 9>

T22 “와서 역시 십일조를 내니까요. 그게 그거죠. 브로커에게 주는 돈이나 십일조로 주는 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증언사례 10>

T35 “브로커들이 없으면 또 못와요, 못오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돕긴 돕는데 그 돈 브로커 돈이랑 마찬가지로요, 교회에서도 뭐 해 주는데요, 교회서도 십일조로 얼마 내란단 말예요, 그 돈이 그 돈이자, 브로커 돈이죠, 그 돈이 그 돈이죠, 다 그만큼 줘요, 교회에서도 단체에서도 북한 사람들 도와준다 하지만.....”

3) 정부에 대한 기대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는 탈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와 브로커 비용에 대한 문제 및 그 해결방안으로서 정부의 역할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증언사례 1>

T02 “지금 다 베트남, 캄보디아 거치는게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통일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지금은 뭐 정부에서 우리 얼마나 배려를 돌려줘요. 배려를 돌리는 만큼 더 넓게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행기, 내 생각에 비행기 선을 밟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아니면 배를 한다던가. 어쨌든 배하고 비행기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오는 방법은. 그래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증언사례 2>

T22 “(정착금) 저는 일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냥 일 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고요.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제 동료 중에는 일 안하고 그냥 돈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버릇이 되면 큰 일이죠. 정착금은 그렇다고 쳐도 매달 주는 돈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주었으면 합니다. 자기가 바빠야 돈을 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증언사례 3>

T47 “브로커가 개입하기 보다는 국가 단체가 개별 단체가 정부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게 이왕 브로커들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한국까지 데려다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사관까지 데려다주는 거지. 영사관에서 받아주니까 영사관에서는 나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식이지, 그 전의 일은 책임안지거든요. 결국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돈 다 뺏기면서 다 받아주는 거죠.”

4. 기타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특징들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탈북동기가 여전히 식량난 및 생활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이미 탈북한 가족 또는 이웃과의 연락을 통해 제2의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단신 탈북 또는 일부 가족의 탈북은 북한의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국 체류중 이의 해결을 위해 북한행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여전히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국경경비대와의 사전 조율(뇌물공여)을 통해 도강(渡江)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식량난 및 생활고에 의한 탈북 사례

식량난 및 생활고에 탈북이 비롯되는 사례는 T11(2003년/ 함북 연사군), 13, 33(1999년), 35(1998년), 36(1998년), 41(1998년), 43(2003년 / 함북 온성군) 등을 들 수 있다. 90년대와 비교할 때 감소되었지만 2003년도의 2건의 사례와 같이 여전히 식량부족 문제가 일부 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언사례 1>

T11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연료보장 받았기 때문에 배급을 주지 않고, 연료보장비라는게 한달간 연료보장비를 가지고 쌀 한 키로를 사게되면은 다른 데 쓸데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전기세요, 그 과외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연료보장 받았기 때문에 자작하는게 땅 파서 자기 먹을 걸 해결하게 되요. 그런데 작년(2003년)부터는 쌀 평당 우리 북한돈으로 12만원씩 제한니까 그거 내고 이렇게 되면 생활고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현실이,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대고 이러니까, 식량난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탈북했습니다. "

<증언사례 2>

T13 “국가 배급 체계가 이래 되어서, 그제 나라에서 하란대로 직업을 가지고 노동자 농민을 하던 일이 갑자기 장사를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국가가 체제가, 로임도 못하고 배급도 못주게 되니까, 막,바쁘게 됐어요, 생활이. 굶어죽기 직전에 이르렀지요..... 나부터도 우리 식구를 어떤 돈을 먹여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고, 정말 북한에서는 죽을 때까지 돈은 구경도 못할 집에서 살고 우리 저 북한에 가서 살자면, 전기도 없는데 가서 살자고 해봐요, 그거 끄찍하지요.”

<증언사례 3>

T33 “식량 때문에요 그랬지요.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있다 보니까. 조선에 갔거든요 아이들 생각이 나서. 가보니까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넘 힘들어서 가지고요 친척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요 없잖아요. 장사도 못하고.....”

<증언사례 4>

T35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경제적으로도 곤하고, 정치적으로 아버지가 좀 걸리거든요, 중국에서 도움을 좀 받자고, 원래 남양이라는 데 중국 국경의 도문 쪽에, 그제 막 도와나 달라가지고 가자 했는데, 친척들이 도움을 주더니만 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살겠는가 그리고 자기 주위에 들어오라 하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게, 도문에 들어오게 됐죠.”

<증언사례 5>

T36 “우리는 그때는 북한에 있을 때 장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살기는 그냥그냥 살았는데, 하루하루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옆에 사람들 막 죽어나갔어요, 능력 없으니까.”

<증언사례 6>

T41 ” 탈북하게 된 동기는 남편이 94년도에 사망 이후 북한도 같이 식량난이 같이 겪었어요. 자식 넷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서 둘째딸이랑 셋째딸이 중국에 갔거든요. 중국에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외가 삼아 좀 방조 받아서 온다는 것이 중국 조선족들한테 잡혀서 팔렸어요. “

<증언사례 7>

T43 “경제적으로 집안이 매우 힘들게 살았어요. 살 때 먹고 살거 없고 우리 시부모 자체가 다 굶어서 사망했어요. 정 살기 힘들니까 남편이 집 나가고 우리도 살기 바쁘니까 중국에 가면 산다 해서 중국에 사실 나왔어요. 그 때까지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중국에 가면 잘 먹고 살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하길래 돈 벌려고 나왔었어요.”

T44의 경우는 당 선전원이었으나, 탈북 이후 체포되어 24시간 동안 수용소(927사무소)에서의 매우 힘든 경험을 한 이후 탈북의 필요를 확신한 사례이다.

<증언사례 7>

T44 “40일 동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산 속에서 헤맸어요. 그러다 돌고돌다가 온게 결국 장백현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18덕에서 붙들려 가지고 북한으로 끌려왔어요. 끌려가서 진짜 끌려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아우 잘살던지 못살던지 그래도 제 나라 제 고향에서 굶어죽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 미련가지고 갔는데.....너무 끔찍해서 세상에 북한 사람들은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고 진짜 그 안에서 그 실태를 놓고 내가 진짜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거 서른 여섯 살 동안 거기서 살면서 최하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느끼지 못했던 거 나는 거기 들어가서 정말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이런 사회를 놓고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제일이라고 맨 선두에서 마이크 쥐고 우리가 이 사회주의를 위해서 목숨바쳐 싸워나가야 된다고 막 외쳤던게 너무나 혐오스럽고 내가 내 자체가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가 내 조국이지만 이런 나라를 조국이라고 믿고 있는 게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내 죽어도 다시는 이 땅에 발 길 돌리지 않는다 그 때 결심을 든든히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 들어오기 전까지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보위부를 찾아가서 자수를 하고 내 잘못을 단동을 하고 정말 다시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게 거기서 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는 내 죽어도 이 나라 땅에 발 길 돌리지 않는다 내 다시는 그렇게 맘먹고 나오자마자 저 그 다음 날 저녁으로 중국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2) 연쇄탈북 현상

연쇄 탈북의 경우 T06, 31, 33, 36, 45 등이 있으며, T06의 경우 탈북하고자 했던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모친이 먼저 탈북하자 이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결국 탈북하게 된 사례이다.

<증언사례 1>

T06 “동기가 그야말로 수용소 가기 싫어서, 엄마의 탈북으로 인한 수용소 생활이 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체제에 대한 반항이죠 뭐 솔직히.”

<증언사례 2>

T31 “그때까지 올려고 결심 안했어요. 2002년에 다 나가고 그래요. 같이 있던 사람이 나왔어요 8월달인가 하나원 졸업했어요. 저한테 전화왔어요. 빨리 나오라고 남쪽으로 오면 좋다고해서. 길은 모르지, 베트남쪽으로 갈 방법은 없지. 그런데 누가 소개해 준다고 해서 1000원 주고 기다렸죠. 근데 잘 안됐어요. 근데 올 초에 연락왔어요. 그래서 왔죠 뭐.”

<증언사례 3>

T33 ” 한국으로 올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언니가 먼저 연길에서 한국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어떻게 오는 지도 모르고 했거든요. 언니가 먼저 와서 전화해서 마음먹고 왔어요. “

<증언사례 4>

T45 “조사들어오고 죽으나사나 이 한국 길밖에 갈대 없다, 그래서 한국 오는 거 같은 동네사는 김여순이라고 먼저 2년돈가 1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그 사람이 소개해서”

3) 생계형 한국행

T09의 경우는 독특한 사례로서, 북에 있는 가족을 불러오기 보다는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보내주는 것이 북한가족들의 생계에 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T15의 사례는 중국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지만 불안한 생활을 해소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독특한 사례이다.

<증언사례 1>

T09 “저도 북한에 엄마가 있고, 형님이 있고, 누이가 있어요.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 잘 지내고 있대요. 내보내주고 그런거나 뭐 하고 하지요. 안들어올 작정이예요. 돈이나 좀 내 보내서 한국동 한 100만원만 나가면 1년을 한 잘살거든요.”

<증언사례 2>

T15 “다시 붙들리기 싫어가지고 아무래도 아들 딸 공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 돈이 없잖아요. 못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붙들리는데, 몇 번 벌금을 계속 물고, 한번은 또 감옥살이 했지 하니까 이제는 더 못살겠다. (남편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키워야 하잖아요. (중국방문에 대해서) 아니 뭐, 간다면 가고 못가면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도 자식 키울 방도는 이거밖에 없는데.”

4) 일시적 재입북 사례

단신 또는 일부 가족이 탈북한 후 나머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북한으로 잡입하는 경우는 T06, T15, T2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97년에 혼자 탈북한 여성 T15는 4년후 북에 있는 딸을 데리러 북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 여성은 몇 차례 중국에서 붙들렸었는데, 지난 2003년에는 딸과 같이 도문에서 8개월간 투옥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T27의 사례는 1999년 탈북했지만 2003년 10월 북한에 들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증언사례 1>

T06 “둘째가 제일 어려운 때 95년도 생이거든요, 애가. 95년 12월 생인데, 애는 진짜 젓 떼고 잇밥 한번 제대로 못 먹어 봤어요. 네 살이니까 그때 금밤 아빠 엄마 떼고 금방 걸음마 떼고 이럴 땐데 예는 왜 못데리고 왔는가하면 이거 그 국경 넘을 때 밭에 일하러 가는 것처럼하고 저희가 온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애는 젓먹이라면 한 두 살 짜리면 업고 가겠는데, 네 살짜리니까 업자해도 크고 걸리자해도 그렇고, 그야말로 업기도 그렇고 걸리기도 그런 애거든요, (중국으로 오고 난후)아 나 너무 그게 밍혀와 가지고 내 죽더라도 새끼를 구원하고 죽자, 근데 저희 애를 뒀기 때문에 애 때문에라도 그야말로 모진 마음 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는 큰 애를 남겨 두고 그래도 작은 애 구할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 밭로 걸어 들어갔어요.”

5) 국경경비대의 협조

탈북자의 상당수는 ‘뇌물공여’에 의한 국경경비대의 협력 없이 탈북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T25에 의하면 노령으로 인해 수심이 얇고 강폭이 좁은 곳을 선택했지만, 이런 곳에는 경비가 많아 더 많은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비용은 90년대에 1인당 중국

인민폐 100원 가량이었고, 최근 탈북자들의 경우 1인당 중국 인민폐 200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증언사례 1>

T02 “잡히는 날에는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처벌을 받으니까 다 군대를 끼고 이미 전에 군대랑 사업해 가지고 군대들이 얼마나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높으면 깎아 감서, 이렇게 흥정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어 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 오지요. 갔다와서, 거짓말도 좀 쳐서, 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돈 더 주겠다, 올때 이 선으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철떡같이 해야만 자기네도, 군대들도 이렇게 별 단 사람들이 아닌 경우는 이런 병사들은 그저 이런 근무 선다 뿐이지 그 사람들도 만약에 눈에 띄면 군복을 벗고 고향에 이렇게 이래 돌아가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짜고 들어오는 거지.”

<증언사례 2>

T25 “경비대에 돈을 많이 주고 또 물이 적(강폭이 좁은 곳)은 곳이라서 돈을 더 많이 주었죠. 경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물이 적으면 힘들단 말예요. 물이 약하면 경비도 세단 말입니다. 물이 많은 데는 깊으니까 빠져 죽으니까 나이든 사람들은 적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많은 데는 못 간단 말이야. 그러려면 경비대에 돈을 많이 주어야 해요.”

또한 T03의 경우는 국경경비대가 눈감아준 경우에 속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은 자세히 모르지만, 다른 사람(브로커 등)에 의해 일정정도의 금액이 전달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T20의 경우 경비대에게 줄 돈이 없어서 어렵게 몰래 도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증언사례 3>

T03 “경비도 있는데 그 운이 좋다 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오다가 붙잡혔는데, 경비대한테. 근데 같이 온 사람이 경비대를 알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저 왔죠.”

<증언사례 4>

T20 “우선 북한에서 두만강에 들어서자면 경비대를 깨야 하는데 경비대한테 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비가 교체되는 고 시간을 리용해가지고 빈구간을 통해 가지고 도강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가서 변방대 눈길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산을 타고 강을 건너 걸어가는 과정에 먹을 것도 가지고 안 떠났기 때문에 굶으면서 이렇게 하면서리 그랬죠.”

5. 소결

이상 살펴 본 바로부터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지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내에서 항상 쫓기게 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이 중국 이외의 제3국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임시거류증을 발부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하여 탈북자를 공식 인정하고 체류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중국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실제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하는)의 경우 탈북자와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북자의 장기체류 또는 인신매매가 가져 온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중 탈북자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비정치적이고 초범의 경우 1-2주일만에 풀려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제 낙태가 비위생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계인권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을 비롯한 제3국 경유 한국행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한국행을 원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장기간(2-10개월) 호텔에 대기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들 제3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조기 입국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으로의 입국 이후 여러 해결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브로커에 의해 기초생활자금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착지원자금의 지원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목돈으로 지원되고 있는 임대주택 비용의 경우 정부가 장기간 대리 임대자가 되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점차 탈북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식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률적인 정착자금 지원보다 취업 보장을 통해 점차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경제적 · 사회적 권리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 사회적 권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인의 경제활동권, 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1. 생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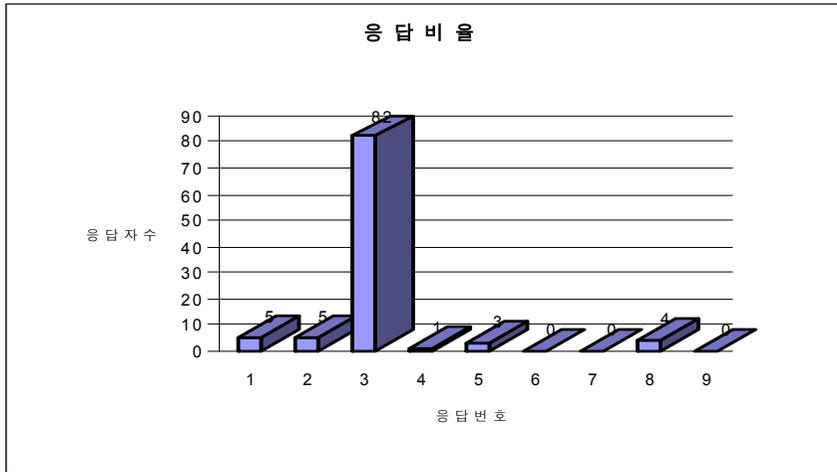
199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히 북한사회에서 ‘고난의 행군기’로 불리어졌던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식량난이 극심할 당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실태를 조사하였다.

1) 식량부족의 현황

① 식량부족의 시기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난이 시작된 시기는 대체로 1990년대 초반부터이며 가장 심각했던 시기로는 95년부터 98년까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림 10> 최악의 식량난 시기



설문지No.10) 북한에 있을 때 식량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① 1985-1990년 ② 1990-1994년 ③ 1995-1999년
 ④ 2000년대 이후 ⑤ 잘 모르겠다

위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설문에 응했던 탈북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1995년에서 1999년까지의 시기가 82%로, 가장 식량난이 극심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1990년~1994년까지와 1985~1990년까지로 답한 응답자가 각각 5%를 차지하고 있다.

<증언사례1>

T35, “김일성이 돌아가고 94년부터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려워서 학교도 다 때려치고.”

<증언사례2>

T44, “식량난이라는 거는 95년도부터 배급을 주지 않으니깐 사람들이 갑자기 오직 국가에서 배급 하나 바라보고 먹고 진짜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배급이 쏴아드는 거예요. 이케 되니까 계속 죽 먹고 나가 일하지, 그것도 한 달 단 두 키로 세 키로라도 주면 정상적으로 주면 죽이래도 먹어요 풀 섞어서, 죽이래도 쭈어먹

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푹 끊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고저 풀, 이런 풀 불래야 볼 수가 없어요. 가축이 어떻게 됩니까 소 먹을 풀도 없는데 사람들도 다 뜯어먹어 가지고 어지간한 독풀 제외하고는 풀이 없어요”

<증언사례3>

T46, “언제부터가 하면 96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98년도 97년도 그때는 아주 어려웠어요. 직접 보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밑층에서 누가 죽었대 이렇게 노인들이 주로 많고 밖에 나와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추워서 먹지 못하고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얼어 죽는 것은 어디서 많이 봤냐 하면 역전 같은데 역전에 밤에 겨울에 추우니까 배고파서 먹지 못하고 역전에 들어와서 아침이면 시체를 세 개네 개 보통, 죽은거 보통 보면 여자들도 흑간 있고 아이들이 주로 있고 노인들이.”

<증언사례4>

T41, “아주 심각한 거는 97년도, 98년도. 96년-98년 3년여 동안에 제일 그런 일이 많았어요. 2000년도 나가니까 죽을 사람들은 다 죽고 2001년도도 잡혀 나갔거든요, 8월 달에, 2001년도에 나가니까 죽을 사람은 다 죽고 힘있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나 들면서 식량을 좀 얻어왔다면 그 식량을 밀천 잡아가지고 산뽕기밭을 일궈 가지고 심어서 먹으니까 좀 나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북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다음의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이 탈북자는 80년대 중반부터 누적된 경제난이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진단하였다.

<증언사례5>

T42,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거 그게 어느 순간에 들어닥쳤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난은

심하게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좀 진통을 겪고 있었죠. 사회주의가 다 붕괴되니까 90년도 초부터 함경북도는 쌀을 안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모가 함경북도 사니까, 그러케 했었는데 그게 점차 적으로 악순환이 되나 나니깐 계속 배급을 안주다나니깐 나라에서 주겠지 주겠지, 당만 믿고 살던 사람들이 그 때는 장사도 안했어요. 당에서 하란 대로만 했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고, 장에다 팔고, 이렇게 하다가 팔 것도 없지, 나라도 안주지 하니깐 그 때부터 굶어죽고 막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게 아니라 95년도부터 많이 시작이 된거죠. 근데 이거를 김일성 사후부터 더 심해지지 않았느냐, 사실 김일성 사후하고 연결시킬 거도 없어요. 사실 이게 계속 지내오던 순환인데 그 차에 김일성이 죽어버린 거지, 김일성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 때부터 그러니깐 그 연속적으로 계속 오던게 재산까지 다 팔아버리니까 그땐 뭐 팔 게 없어요. 주지는 않지, 팔 거는 없지, 돈이 있어야 사먹지, 이러니까 죽은 아사가 시작됐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꽃제비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된거지” (40세. 여. 사무원. 평남도 남포시. 02년8월탈북 02년12월입국)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90년대 들어와서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아예 식량공급이 중단되기도 하고 절반씩 6개월분을 주기도 하는 등 식량이 안정적으로 배급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94년부터는 거의 국가 배급이 끊겼다고 한다. 그러나 94년에는 명절날 등에는 소량의 배급이 지급되었고 한다. 탄광 실험기사였던 한 증언자에 따르면, 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배급이 밀리기 시작했으며 배급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96년경이라고 언급하였다.

<증언사례6>

T43, “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부터는 배급 밀리면서 카드에 미기재만 했어요, 그제 올리기만 하고 주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갔어요. 탄광분야, 제가 탄광에 있었으니까 우리 기업소는 일부 탄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급을 드문드문 주는데 그것도 탄광에 갱내공, 1급 대상자들만 배급을 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급을 많이 밀리고 그랬는데 95년도부터 배급을 안주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95년?)네, 5년도부터는 배급을 안주다가 가을이 되면 이삭 강냉이를 배급소에서 안주고 농장에 가서 배급표를 떼주면 거기 가서 타고 오고 했는데 그러던 게 96년도에도 전부 배급을 안줬어요”

<증언사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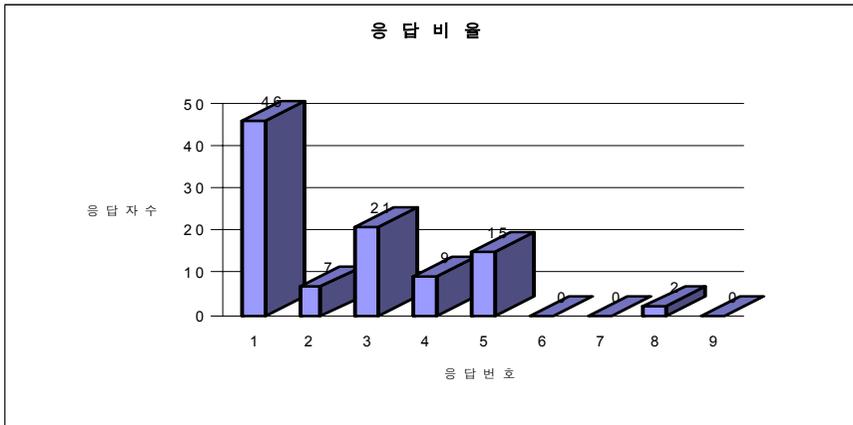
T04, “96년도부터는 완전히, 완전히 안줬어요. 주질 않고 자체로 노력해서, 그리고 직장이 좋은 데 다닌 사람들은 외화벌이 직장이라도 이렇게, 직업이 좋은 분들은 직장에서 자체 외화벌이 해 가지고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창작사라면 중국하고 뭐 그림하고 교환해서 저네끼리 해서 외화벌이해서 쌀 구하는 직장도 있고, 그답에 완전히 노동자들은 바꿀게 없으니까 자기네 직장물건, 공장 기계제품 다 뜯어서 팔고 이렇게, 어쨌든 식량이 딱 막아 놓으니까”

위의 증언들을 통해 볼 때 배급이 끊긴 시기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빠르게는 90년대 초반부터 늦게는 96년을 전후하여 배급이 중단되었으며 이 시기에 이르러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식량부족 현황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생활할 때 겪었던 가장 힘든 일로 “먹는 문제”를 꼽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인식



설문지No7> 북한에 있을 당시 주로 먹었던 식량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쌀, 보리 등 곡류 ② 감자, 고구마 등 ③ 미음이나 죽
④ 원조 식량 ⑤ 기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비교할 때 ‘쌀과 보리 등 곡류’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위의 설문의 경우 북한에 있을 당시 식량의 경우로 질문되어 식량난이 심각해지기 이전의 경우까지 포함된 응답인 것으로 추측된다.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식은 주로 강냉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외에 송근, 풀 등을 대용하기도 한다. 식량난이 심각했을 당시에는 강냉이 껍질, 쌀겨 등을 갈아서 풀과 섞어 먹기도 한다. 독초를 제외하고는 야산에 있는 거의 모든 풀을 식량으로 대용하였다고 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함경북도의 경우가 가장 식량난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농업지역이고 쌀값도 싼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의 경우에는 쌀밥과 강냉이밥을 먹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를 낀 지역에서는 조개를 잡아다가 밀가루와 바꾸어 죽을 쑤 먹기도 하였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강냉이 1Kg으로 8일을 지냈다고 하는데, 1Kg의 강냉이를 가루로 만들어 8일치 분으로 나누어 종이 봉지에

나누어 두고 산에서 캐어 온 풀에 섞어서 먹었다고 한다. 그것마저 떨어지면 썩을 삶아서 절구에 쪼아서 풀처럼 풀어서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풀만 먹는 경우, 변비가 생겨서 심하게 고생한다고 한다. 1주일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변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심한 변비로 탈장이 생겨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또 다른 경우는, 쪽으로 떡을 해 먹고 독이 올라서 얼굴이 붓고 갈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간부들의 경우는 굶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사례1>

T38, “군이 30리란 말예요, 립산이란 말예요, 나무벌목하고, 립산구역에서 살던 사람인데, 거기에는 바닥을 밟는작물, 농사짓는 사람들 땅이고, 산골에 마을에서 한 40분, 한 50분 산골에 가서, 생나무판을, 나무 비고, 거긴 또 그대로 해서는 못먹어요, 멧돼지가 많아요, 산돼지, 장을 막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지. 감자 심거나 무슨 보리 심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94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순수 국가 배급이, 없대면 어찌지만은, 고뎌 준다고, 명절날, 국가에서 주는 쌀 식솔에서 먹으면 하루 먹을 거요, 명절 날이라고, 그렇게 밖에 안주기 때문에, 그거는 안준다는 말을 안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거 뭐 하루분, 한 달에 하루분”

또한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먹고 살 것이 없고 장마당에 내다 팔 물건이 없게 되는 경우,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집을 파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친지의 집에 얹혀서 살거나, 장마당을 배회하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에 내 몰리게 된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심각한 식량난에 내몰려 있는 주민들에 비해 당국의 대책은 상당히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에서 지원된 구호식량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으며 구호식량들이 당간부들을 통해 시장으로 빼돌려져 비싼 값에

거래되는 등 주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국에서 취한 대책이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나가자” 라는 구호들을 통해 전형적인 사상적 방침으로 주민들을 관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언사례2>

T13, “(북한 당국의 대책은) 났됐지 않구요. 그렇게 아사자가 많아도 국가 배급이 우리 탄광지역에가 외국에서 미국에서든가, 주로 미국에서 쌀이 이렇게 오는데,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이라고 이렇게 포대들이 왔어요. 그런데 배급소에 이렇게 오면 한 세대에 이래 다섯키로씩 열키로씩 한번에 공급한다하면 그저 줄을 이루죠. 인산 인해를 이뤄요. 막 이래 우리 송화군 같은데도 탄광지대라서 사람 많아 갖고, 그래가 모든 집에서 다섯키로 열키로 겨우 타가는데 그런 배급이 들어오면 공급하기 전날에 벌써 한다하는 간부들, 탄광 초급당일군들, 이런 몇몇 사람들 포대로 그런 집들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막 몇십키로씩 들여가서 그 사람들 먹고 남지요. 그러니까 공급 기준에 우리 탄광에 한 집에 만약에 열키로를 준다하면은 공급되는 건 다섯키로밖에 안되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돌아앉아서 시장에서 한키로씩 팔전짜리 쌀을 시장에 돌아앉아서 백원씩 팔아먹는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자가 안되겠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증언사례3>

T14, “대책이라는데 생각에는 그렇게 죽어 넘어 가는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 나가자 이런 구호나 잔뜩 붙어대고 뭐 그러다 뿐이지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위에 사람들만, 아래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식량이랑 많이 보냈는데, 여기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런거는 우에서는 어떻게 보냈는지 아래서는 볼 수가 없어요” (30세. 여성. 함경남도 허천. 98년탈북)

<증언사례4>

T15, “(북한당국의 대처는)없어요. 대처가 그저 이 구멍 틀어막고, 저 구멍 틀어막고 그저 그런 식이지. 뭐. 그저 여기서 대량으로 뭐 밭에 통강냉이를 막 두드려가 그저 젖은 거 막 갖다 주지, 그러니까 막 그저 사람 못 먹겠어. 좌우간 몇 키로씩, 그저 한 가정에 한 여덟키로 열키로씩 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저 말고, 그래요”

<증언사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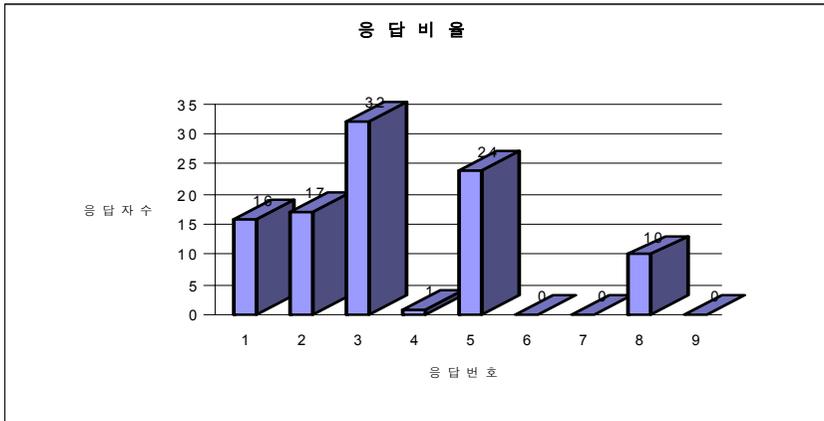
T38, “대책이 없어요. 우리 북한에서 여기 남한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온 그 지원미는 인민들한테는 한 키로도 돌아오지 않아요. (군대로 가는건가) 예 이 선군정치, 김정일 자체가 선군정치하고 이러니까 거기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데는 안전부, 보위부, 그다음에 이 검찰, 그다음에 당일군 이런데다가, 간부들한테다 종시 주고나면 인민들은 그거 바라보질 못해요” (70세. 남성. 기계별목. 함북 연사군 삼포리. 03년12월 탈북 04년3월 입북)

식량난이 심화되고 아사자가 급증함에도 북한 당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외부세계의 식량지원도 군에 전용되고 당관료들이 착취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③ 2000년대 이후의 식량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난은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2000년 이후 식량난 호전 상황



설문No11>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 ① 끼니는 거르지 않을 정도로 나아졌다 ② 조금 나아졌지만 끼니를 거를 때가 있다. ③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
- ④ 식량 걱정은 이제 하지 않는다 ⑤ 2000년 이전에 탈북하여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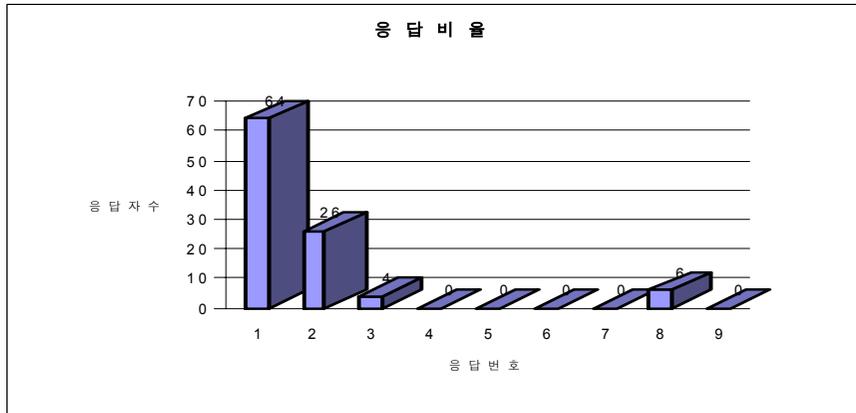
200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식량난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사자들은 크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당시에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아사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식량난이 조금 완화된 것도 한 이유이지만, 굶주림에 취약한 노인과 병약자들은 이미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존의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은 또한 당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여전히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2) 대량 아사자 실태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 설문 응답자 중 64%가 직접 보았다고 응답했으며, 소문을 들었다는 경우가 26%로 직간접적으로 아사자를 목격한 경우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8> 아사자 목격의 경험



설문지 No.8>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직접 보았다
- ② 본 적은 없고 소문만 들었다
- ③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에 따르면, 아사자가 가장 많이 나는 연령대는 주로 노인층인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는 북한주민의 평균 연령이 74세였으나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60대 노인의 사망이 일상화되었다고 한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영아 사망자와 노인 사망자가 급증하였다. 식량난이 심각하던 97년, 98년의 경우 아사자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아사자들을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도 닥칠수 있는 일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전부나 보위부일꾼, 당일꾼의 가정에서는 굶어죽는 일이 없으며 농민, 힘없는 사람, 밀천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사례1>

T46, “언제부터가 하면 96년도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98년도 97년도 그때는 아주 어려웠어요. 직접 보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밑층에서 누가 죽었대 이렇게 노인들이 주로 많고 밖에 나와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추워서 먹지 못하고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얼어 죽는 것은 어디서 많이 봤냐 하면 역전같은데 역전에 밤에 겨울에 추우니까 배고파서 먹지 못하고 역전에 들어와서 아침이면 시체를 세 개네 개 보통, 죽은거 보통 보면 여자들도 흑간 있고 아이들이 주로 있고 노인들이” (62세. 여성. 방역과 의사, 함경북도 무산군. 03년9월탈북 03년12월입국)

<증언사례2>

T41, “갓난 애기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못먹으니까 애기는 보름이 안가고 죽고, 노인들은 헌 데는 영양실조를 해가지고 많이 혈 짱아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여기 쇠파리들 앉고 구더기 끼고 실지로 난 사람 살에 구더기 끼는 거 봤어요. 끼면 쌀뽀대나 뜨개 바늘 같은 거로 삼대포대로 파내면 그냥 썩어들어가면 죽었는데 굶어 죽었다고 봐야 하는지 굶이 들어가 죽었다고 봐야 되는지, 그런 실례가 많아요” (54세. 여성. 유치원교사. 함북도 온성군 삼봉구. 98년 2월탈북 03년6월입국)

<증언사례3>

T42, “이제 평안남도 온천이라는 데가 남포를 끼고 있어요, 온천군이라는 게, 그 온천을 가면 서해바다 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서해바다 그 독에다 독을 파고 독막살이를 했어요, 여름에는 거기에서 비닐 방막 뒤짚어쓰고 자고, 비오면은, 습기찬 데서 죽써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때는 바다에 나가서 물 때 맞춰서, 조개 한 키로 잡아다가 밀가루 한 키로 바꿔다가 죽 써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다 나가도 북한도 내 맘대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예요. 바다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출입증을 겨우 만들어가지고 나가는데 겨울이면 추우니까 다 얼어죽었죠. 그 얼어죽은 사람들이 남포시에서도 아주 연약한 사람들, 간부들은 하나도 없고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

들, 서민들하고 장애인들, 외부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해 바다 기슭이라고 조개라도 잡아먹고 살아 불려고 왔고, 항을 켜었으니까 항에 물자가 있잖아요, 훔쳐 먹고라도 살아불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겨울이면 많이 죽었어요, 꽃제비들도 아침에는 제가 출근할 때는 95-96년도는 굉장했어요, 아침마다 매일 시체 보면서 다녔으니까 그 때는 진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40세. 여성. 사무원. 평남 남포. 02년8월탈북 02년12월입국)

<증언사례4>

T44, “시장에 가보면은 시장에 굶어죽은 시체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서 떡 장사를 해요, 음식 장사를 해요. 떡도 팔고 뭐도 팔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고저 보통 하루 시장 안에 일고 여덟 굶어서 열 명 정도 시체들 실려 나가는 거 보통이 거든요, 그 사람들 단가에 담아서 어떤 데 가다가 고저 야산 땅 밑에 파가지고 거기 다 시체 무더기로 넣고 매몰해버리는 거예요. 개 죽음이나 한가지죠. 그 속에서 진짜 살아남는다는 거 보통 악이 세지 않은 사람음 살아남질 못해요.” (42세. 여성. 문화회관관장. 함경북도. 98년1월탈북 04년입국)

이상의 증언들을 통해 볼 때 배급이 끊기게 되는 95년경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식량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위에서 아사자를 쉽게 목격할 만큼 아사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아동의 생존권

식량난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연령대가 노인과 함께 아동 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먹지 못해 굶주리는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먼저 가족과 함께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을

들 수 있다. 굶주림에 가장 취약한 유아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으로 어린이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증언사례1>

T01, “(아이들 영양문제는) 말할 수 없지요. 우유도 어떤 때는 보장 안되고. 우리 어릴 때는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키 크는 빵도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거 없어요. 간식 주는 것도 없고”
(45세. 여성. 평양시 보통강구역. 01년10월 탈북 03년3월 입국)

<증언사례2>

T13, “영양상태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아이들부터 뭐 나서 죽고 어린 아이들부터 죽고, 노인이 죽고, 그저 이렇게 죽는데 정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불쌍해요. 그 때문에 자식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돌이 낳는데, 혹시 못사는 사람이 또 자식도 많이 나아요. 또 그런집 아이들이 대개 많이 또 죽고, 이렇게 죽고. 낳자마자 일반 무슨 이런 예방주사 같은 거는 무료로 의무적으로 놔줍니다. 보건상태라는게 그 이상 없죠. 뭐. 전염병이 돌까봐 일체 약을 다 시장에서”

또 다른 경우는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고아가 된 경우, 또는 식량을 구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부모들이 떠돌아다님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이다.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일명 ‘꽃제비’ 라고 불리는 떠돌이 아동들이 증가했는데, 굶주림으로 집을 나온 경우, 부모에게 버려진 경우, 또는 부모가 굶주림으로 사망한 후, 고아로 남겨진 아이들이 시장을 떠돌며 구걸행각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증언사례3>

T45, “한 번은 길 가는데 장마당에서 조선에 꽃제비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일어날 힘도 없는 거 같

아요, 자는지 죽는지 모르잖는디, 파리가 막 와서 붙더라고요. 죽기 직전인지, 사람들이 그케 얘기해도 자기 먹고 바쁘니까 도와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가 죽은 것도 있고 벌어먹일 힘이 없으니까 버린 애들이 많아요. 장마당에서 엄마엄마 찾으면서 맨발바닥으로 겨울에 다니는 것도 많이 봤구요. 그래도 그 아들은 파는 사람들이 아가 너무 불쌍하니까 빵 한조각이라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그케 못해주잖아요.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고.

하루에 엄마아버지가 실어나가면 아이들만 남고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요, 어느 누가 국가에서도 데리다 먹일 형편이 못되니까 고아들이 많고 장마당 가면 시장가서 사 먹으면 사 먹는 사람이 가슴이 떨려요, 딱 덮치는 꺼난 한 입 떼도먹고, 국수를 판 데 가서 국수물이라도 달라고 아이들이 막.....그 물이라도 먹겠다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증언사례4>

T14, “그 영양실조 걸린건 말로대 못해요. 부모 없이 다니는 애들도 많고, 영양실조 걸려서 이 뼈만 남았어요, 딱 그저 가죽만 씌웠다 뿐이지, 아예 뼈예요 몽땅, 그런 애들이 신의주 그 뭐냐, 농업 그거, 저기 뭐냐 장마당이란게 있어요, 그 장마당에는 그 무리지어서 아이들 다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북에 다시 가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신의주 그 역전려관이란게 있어요. 거기 전문 이런 부모들 없는 아이들”

<증언사례5>

T15, “아이들의 영양상태라는 거는 뭐 영양을 따져가면서 먹일 형편을 못됐구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아이들은 뭐 이밥도 잘 못먹는 상태도 굶기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저 이 강냉이 밥이라도 배불리 먹였으면 하는게 엄마 소원이고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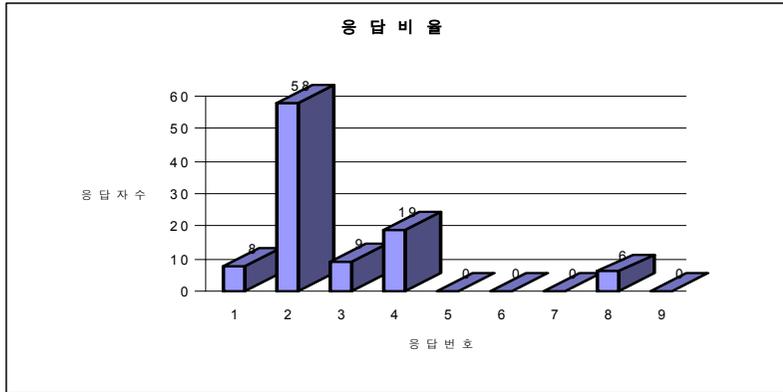
이상의 증언들을 통해볼 때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어린이

들이 극심한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극심한 성장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결과 아동들의 신장이나 체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모의 사망 등으로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교육과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성 발달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의료현황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무상치료를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크게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치료의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약이 모자라 병원에서 약을 주지 못하며 개인이 약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뇌물을 주고서야 약을 받을 수 있는 등 국가가 치료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돈이 없는 경우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림 14> 의료 실태



설문 No.14> 환자가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 ① 병원에서 치료 받는다
- ②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는다
- ③ 옷돈이나 뇌물을 주고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한다
- ④ 치료나 약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의료체계의 부실로 인해 아이들이 아픈 경우, 병원치료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었으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환자가 직접 약을 구해 와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약국에서 싼 가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식량공급이 중단되면서 약국 또한 마비상태로 들어갔다고 한다.

<증언사례1>

T37, “치료 같은거 옛날에는 무상으로 줬거든요 지금은 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알아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했거든요 제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약 같은거 사서”

한편 병원에서의 약부족을 더욱 가중시킨 요인 중 하나는 병원의 의사, 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약을 빼돌려 시장에 파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증언사례2>

T06, “근데 거기 뭐랄까 여기서 의사 월급, 여기서 만약에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랄까 금전, 이 저 환율관계랄까, 여기서는 만약에 제일 하층 월급이 70만원이라 해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쌀 기껏해야 5만원어치 사면되고, 저기는 의사 월급이 기껏 많아도 150원이거든요, 150원인데 그걸로 쌀 세키로 사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되는 거예요.... 약 빼돌리는 것도 정도지, 사실 저도 약 빼돌리는 것도 조금, 조금 장난질은 좀 해봤지만은 기껏해야 그 폐니실린 두, 석대지”

<증언사례3>

T47, “병원은 유엔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지원해주니까 약은 대체적으로 많은데 많더라도 외국 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의사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약을 먼저 떼내서 보름 전에 들어오면 장마당 가서 팔고. (일반인이 아플때?) 일반인이 아프면 내 돈내고 장마당 가서 약을 사야지 무슨 약 사오라고 약이 어디서 공급된 단위가 없어요 장마당에 보면 동약을 산에가서 약초캐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신약을 파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란 거 책임한계가 있거든요 사인추적도 하는데 죽으면 현실적으로 병원에 약이 제한돼 있으니까 너 대학병원에 갔다오라 하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차비도 없고 하니깐 그대로 죽고 마는 거. 여기서처럼 암이 많지 안는데 암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진단을 제대로 못내린다는 데도 있지만 질병이 점점 적어지는 사람이 최빈사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만큼 적어지는 거 결핵이 많고 전염병이 많고 전염병 예방접종이 말이 안되거든요 ”

따라서 병에 걸린 경우 돈이 없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처방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굶주림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한 질병들이 만연하게 되었고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층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

<증언사례4>

T49, “아픈 친구는요 병이 낫자면 약초 쓰고 감기 걸렸을 때는 북한에서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요. 약먹고 주사 맞고 해도 안되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 해도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북한에서 병원을 못가고요. 집에서 물로 찬물로 계속 차서 머리다 놓고요 (약사기 힘드나?) 네, 돈이 없어서요.” (14세. 남아. 03년가을 탈북)

<증언사례5>

T25, “거기서 결핵성내막염이라면은 전신결핵이거든요. 결핵성내막염을 발생시킨 담당구역 의사는 그거는 아예 의료사고라고 했던 말예요, 75년도 까지만해도, 그런데 소아결핵성내막염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거든요. 소아결핵이라는 건 결핵 그 자체가 피로하고 기아로 오는 빈민병이라 그러잖아요, 소아가 영양상태 그걸로 해서 결핵, 전신결핵이 걸리는 사람, 그 전신결핵이 걸리는 사람, 그 전신결핵이 저항성이 떨어져서 내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늙은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오는게 아니라 소아들, 여자들 이렇게 많았던 말이에요.”

2. 개인의 경제활동권

1) 이동권

북한은 1998년 9월 개정된 신헌법 ‘김일성 헌법’ 제 75조에서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이동권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식량을 구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이동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 증명서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돈을 준다는가 하는 탈법적인 방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언사례1>

T34, “그런 건 없어요, 이동은 증명서가 있어야만 자유롭잖아요, 증명서 떨어지면 힘든데, 돈 주면 다 해결되요, 돈만 주게 되면 어디까지 오는데 천원, 어디까지 오는데 삼천원, 어디까지 그는데 만원,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그저 돈만 주게 되면 증명서는 해결되는데,” (41세. 여성. 수의사. 함북 청진. 04년2월탈북 04년7월입국)

<증언사례2>

T35, “장사 우리는 함흥은 공업도시예요, 주로 공업품, 공장있는 데서 빼내서, 사기도 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예요, 우린 싸게 팔아가지고 다른 농촌에 가서 철강지역이니까, 장사를 한단 말예요. 기차로 하죠, 통행증 같은 거는 돈만 내면 통행증 같으면 직빵 나오니까, 원래는 그케 안되죠, 법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바뀌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며칠 걸려야 되니까, 돈만 쥐어주면 뭐”

<증언사례3>

T41, “우리동네는 백살구가 많았어요, 백살구 같은 그걸 장마당에 나가 팔아든가 아니면 백살구 없는 고장으로 강냉쌀로 바꾸려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먼데 가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되죠, 한 정거장 가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는데 그 분수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자면 내가 분수소 소장이나 누구한테 담배라도 한 보루 싸준다던가 아니면 술이라도 한 병 사주던가 해가지고 증명서를 떼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내가 물건을 팔러가는 데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꼭 해야 가는거, 그렇게 되요.”

이상의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주민들은 이동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고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여행증 떼지 않고도 직접 돈을 주고 무마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여행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돈을 주면 승무안전원들이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에 숙박하는 경우 안전원들이 숙박 검열을 철저히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증언사례4>

T42, “북한은 이전, 여행에 자유란 게 없잖아요. 일단 여행, 어디로 가려면 여행증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행증은 이전하고 똑같죠. 여행증 없으면 못 다니죠. 근데 기차를 타면 그때부터는 뭐가 통했냐면 돈만 있으면 여행증 없이도 통했어요. 기차에 올라서 그냥 그 승무안전원들한테 돈 먹이고 승무안전원들이 눈감아주고 그렇게는 됐지마는 법적으로는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정확히 여행증 가지고 다녀야 되며, 모든 통제는 똑같았죠. 근데 단지 뭐만은 눈감아 줬냐면은 함경북도 사는 사람이 벌어먹기 위해서 남포시로 왔잖아요, 그럼 남포시에 오면 숙박등록을 해야 되요, 원래는. 북한은 무조건 이 거주지에서 떠나 남의 거주지로 갔을 때에는 여행증을 가지고 가서 딱 숙박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여행증 기간이 되면 돌아가게 되었었어요. 안전원들이 숙박 검열하게 그랬는데 이걸 안했어요. 그 기간에 이걸 안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남포에 와서 1년 2년 살아도 말을 안했고, 함경북도 사람이 집을 비우고 1년 2년 떠나 있어도 잡지를 안았어요. 이 때는 누가 어데 나가 어데 죽었는지 어데가서 사는지 주민 통제가 안되었었어요.”

<증언사례6>

T06, “공식적으로는 제한을 했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열차라는게 승무원이 따로 있고 열차안전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열차안전원은 너 무조건 열차 타라 이렇게 되니까 열차안전원이 여행증 검열하자면 견잡을 수 없이 많거든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너 여행증 너 왜 안그랬냐 그 이전엔 여행증 없는 건 무조건 도중역에서 내려 놓고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뭐, 어

째 직결소에 갖다 넣고 그랬는데, 이젠 아니거든요. 이 열차원들은 머리가 터 가지고, 어 너 가겠냐 그러면은 돈 50원만 가져와라, 청진까지는 뭐 돈 50원, 다음 동까지는 돈 100원 그렇게 하면 음 거기까지는 무사히 갖다 주마,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여행증 없어도 돈 50원, 거기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행증 없이도 다니는 그런”

경제난이 심화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통제가 어느 정도 느슨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동의 통제가 느슨해졌던 이유는 생존에 대한 주민들의 절박함과 함께 단속을 하는 안전원들 역시 생존의 방편으로 부정확한 방법에 의존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증언사례7>

T42,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말단 단위, 제일 밑에 단위 사람들도 그 때는 악박에 안남았으니까 국가에서 쌀을 안주는데 나를 굶어죽으라는 건가 너 때문에 굶어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니 뭐라겠어요, 당에서도 계속 통제하라고는 강하게 그 때 당시는 방침던지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법은 법대로 집행하면서도 유순하게 놔둔 거지요.”

<증언사례8>

T43, “그 장사를 다니면 식량을 한 사람이 몇 톤씩 움직이는데, 그 다 열차원들하고 끼구서 해요, 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행증도 돈으로 사고 그 때만해도 여행증 단속을 많이 했어요, 잡히게 되면 안전원들도 살아야 되니까 법에서는 승인 안하지만 비법으로 다 살아요. 단속해서는 적잖은 데서 다 뺏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부정축재해요 안전원들이..”

2) 경제활동 보장권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국가의 배급체계가 와해됨에 따라 주민들의 장마당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행위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장마당이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용료는 7.1경제개선조치 이전에는 5-10원이었다고 한다.

<증언사례1>

T42, “어쨌든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시장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때 당시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5-10원이었어요, 7월1일 경제개선 전에는 5-10원인데 내가 팔잖아요, 예를 들어 배추 놓고 팔다가 달라 그랬어요, 시장 요금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도 못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못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요, 그럼 넘어가요 이쪽으로, 그렇게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딱 이렇게 너무 진행이 될 때는 시장에 나오는 사람이 아마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또 여기서 시장요금 안 내겠으면 나가라 그러면 어차피 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요금 5-10원을 다 물고 장사를 하죠”

장마당 사용료의 부담 때문에 돈이 없는 주민들은 시장 밖에서 좌판을 벌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단속원들의 단속을 받게 된다.

<증언사례2>

T43, “장사도 맘대로 못하게 했어요. 장사를 하게 되면 딱 장마당 안에서 다 장세를 내고 하는데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장세를 바치며 장사한다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장마당으로

안가요, 장마당 밖에서 하게 되면 안전원들이 단속해요, 잡아서 막 물건 빼앗고 단속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물건 제한이 많고 술을 못 팔게 했어요, 근데 우리 평민들이 살아가는 길이란 게 물건이 집에서 돈주고 사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형편이 안되니까 집에서 술을 만들고 두부를 하거나 엿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건 얼마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장마당에서 팔면 장세를 바치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장마당 밖에서 파는데 그거 통제를 많이 했어요. 잡아서 길에서 파는 음식은 이거는 음식이 보건부에 합의를 못받고 하는 거라고 무조건 빼앗고 그 담에 술 못팔게 된 걸 판다고 빼앗고”

위의 증언에서처럼 장마당 밖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심한 단속으로 고생을 하게 되지만, 장마당 사용료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법적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주로 장마당에서 거래 금지된 상품의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농업생산품을 거래하는 농민시장으로 허용되었던 북한의 장마당이 80년대 후반부터 금지품목인 공업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지품목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단속을 당하게 된다.

<증언사례3>

T42, “북한 장마당이라면 지금은 종합시장이지만 그 때는 농민 시장이거든요, 농민시장은 무조건 농수산물만 팔 게 되었었어요. 쌀은 제외구요 그렇게 되었었는데, 80년대 말부터, 80년대 후반부터 겠구나 장마당에 공업품이 나왔어요, 나오면 단속을 해요. 그러면 숨겨요, 몰래 숨겼다가 또 꺼내팔고, 그렇게 하다가 한창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공업품을 많이 팔았어요. 팔면 단속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단속을 하면 안전원이 오고 노동자 기찰대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통제를 하면 몽땅 회수를 해요. 그 물건을 가지고 검열하는 동안에 도망을 간 사람은 회수를 안당하지만 잡힌

사람은 고스란히 압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쥐고 안주잡아요, 그러면 돈 갖다 바치면서 물건 다만 얼마래도 달라 그러면 다 안줘요, 조금 꺼내주고 그렇게 하죠. 떡거리 음식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름에 튀긴 빵이라던가 떡이라던가 이런 것도 못팔게 되었어요. 그걸 팔다가 잡히면 그걸그대로 가지고 안전부로 가요. 안전부 가면 그걸 몽땅 회수해요. 난 이걸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안전원들이 넬이 뭐 명절이다 이렇게 하면 일부러 더 회수를 해요, 돌아가면서 술 파는 사람 다 단속을 해서 회수하고, 떡파는 사람들 다 회수하고 왜 저희 살아야 하니까, 엄청나요 그런 거는...”

그러나 장마당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가게 됨에 따라 장마당의 거래 상품들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었다고 한다. 탈북 후 북으로 송환되었다가 재탈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장이 많이 개방되었으며 단속의 경우도 한국상품이 붙은 상품 판매, 달러나 인민폐 교환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단속하지 않고 있으나, 단속원들은 시장에서 주민들의 민심동향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사례4>

T43, “국가에서 어느 하라는 건 없지만 꼭 장마당 안에서만 허용한다, 장마당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의류 같은 거도, 미국인 글자쓴 의류는 안된다, 상표에 한국 상표같은 거 붙은 건 무조건 단속하고, 그 때 당시 제한된 물품이 많았어요. 우리가 99년도 나오기 전까지는 제한된 물품이 많았는데 다시 들어갔을 때 북으로 피송되었을 땐 그 땐 제한된 게 없었어요. 많이 시장이 개방됐더라고요, 외국 물건이 많이 나와있었는데 뭘 제한하던가 하면 한국물품, 한국 상표가 붙은 물품만은 단속하더라고요, 계속 보위부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화폐를 돌리는 거, 달러나 중국돈 인민폐로 바꾸는 거 요건 단속해요, 무조건 단속하고. 뭘지 모르게 보니까 안전부가 장마당 많이 감시해요, 보니까 한국 물건에 많이 신경쓰는 거 같았어요. 한국

물건 팔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만 살피고,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민심이 어떤 데로 집중하는가 요거 집중하는 거 같았어요. 시장에 다니면서”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의 배급체계가 와해됨에 따라 장마당이 활성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단속원들의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마당에서의 자릿세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를 받기 위한 청탁성 뇌물수수와 금지물품에 대한 상행위 적발을 통해 뇌물을 받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축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사례5>

T34, “간부라고 안전계통 사람들, 여기서 경찰,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야 판매도 원활하고, 근까 어쨌든지 뇌물이라는 건 제 일을 위해서 누가 요구하든, 어쨌든 바쳐야 하거든요. 그래야 자기 일이 잘 풀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증언사례6>

T11, “안전원 명절이라는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립업명절이라는게 10월 11일 명절이라는게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매 명절마다 다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인민들의 걸 말하자면 정말 내놓고 뺏질 못해서 장마당에 가서 트집을 잡아서 너 이거 단속되는 데 왜 파냐, 그 몰수라고, 이래서 침해당한 개인 장사들이 한 80프로 돼요. 그래 놓으니까 또 그거 빼내자면 뒤에서 돈을 맥여서 그거 또 빼오다간 결국은 망하는건 같습니다.”

<증언사례7>

T46, “안전부 그다음에 담당보위부도 이렇게 있단 말예요. 요구하지 와서 우리 안전부에서 어느 달이 안전원에서 뭘 맞이해서 무슨 12월 19일, 나는 뭘 담당했다 그러니까 달라 이렇게 내놓고 그러고 보위지도원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술 한잔 없나 담배 달

라고 그러지는 못 그래도 아이고 담배 좀 이렇게 해서 계속와 가져가지”

이상의 증언들을 통해서 볼 때,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시장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장마당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이 점차 완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 안전원들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부패현상들을 비판하기 보다는 적응하고 있으며, 생존에 기반한 물질주의에 급속하게 노출됨에 따라 앞으로 심각한 가치관의 혼동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생산물 소유권

북한당국은 텃밭을 이용한 최소한의 개인의 생산권은 허용을 해왔다. 주로 농산품 등을 생산하여 장마당에서 판매하여 개인이 그 수익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텃밭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그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바쳐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사례1>

T41, “높은 산에 사람이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산을 한 두 세 고개를 넘어가야 뛰기밭을 일굴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뛰기밭을 일궈서 거기서 백 키로 나왔다면 30키로는 국가에 바쳐야 되거든요, 뺏으러 와요, 법관들이, 항시 그 법관들이 너 몇 평 되니까 거기서 잘 나왔던 못 나왔던 자기네 예산대로, 백키로 나왔겠다 30키로 바쳐라 이렇게 하요. 그렇게 해요.”

<증언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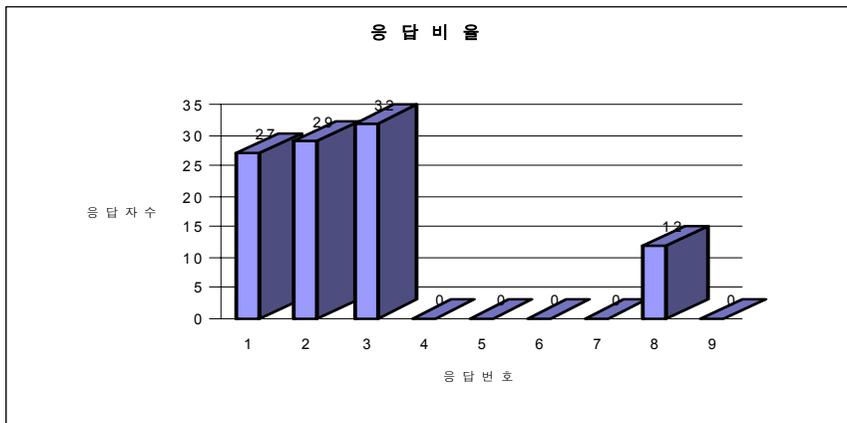
T05, “그걸 하면은 떠질때까지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몇 평에

해당되는 것만 놔놓고 나머지는 배급을 제킨다하는, 배급을 안 줄 때는 그걸 몽땅 국가 토지법에 의해서 그걸 몽땅 몰수하게 돼있어, 그리고 그거만큼 생산물을 국가에 바쳐야 돼”

4) 7.1 경제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면접에 응한 탈북자들은 탈북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2년 이후에 탈북을 한 경우, 또는 그 시기에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에는 대체로 7.1경제조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인지도



설문No.12>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들어본 적이 없다

설문지에 응답했던 탈북자 중 27%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29%가 들어 본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 설문지 응답자의 탈북시기가 1999년 이전이 26%, 1999년이 8%, 2000년이 7%, 2001년이 2%, 2002년이 9%, 2003년이 12%, 2004년이 35%로 2002년 이후의 탈북자가 56%임을 감안

할 때 7.1경제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 한 탈북자에 따르면 6월 28일경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화폐개혁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가 하면, 장마당에서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이미 이때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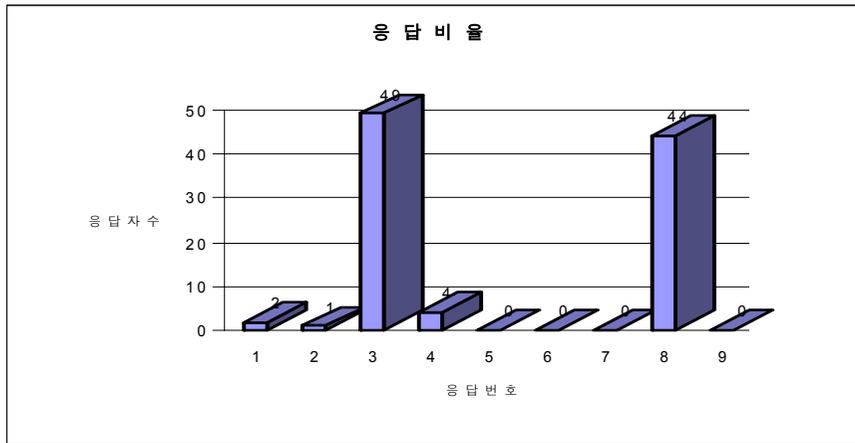
T42, “저는 원래 경제가 전공이거든요, 대학이 근데 완전히 비밀에 붙였어요, 북한도 뭔가 알려면 절대로 안시키거든요. 비밀에 붙였는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게 6월 초부터 막 소문이 났어요. 그 때는 경제개혁이라고 안하고 화폐개혁이라고 나버렸어요. 화폐개혁이라고 나니까 돈을 지금 가지고 있던 돈 못쓴다 새 화폐가 나온다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옳다 막 소문이 나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막 불안하잖아요 이제는, 물가가 떠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7월 1일부터 발표를 했는데 6월 28일부터 완전히 확실하게 소문이 났어요. 화폐개혁이라고 짝 났거든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의문스러워서 화폐개혁이라 했는데 그게 바로 6월 28일이었거든요, 우리 남포시장에 쌀값이 55원이었어요, 55원이던 쌀값이 6월 28일 아직 실시도 안했는데 소문이 나니까 쌀값이 180원으로 급등해버렸어요. 완전히 급등했어요. 그 당시 우리 동생이 제대를 해서 왔어요, 군에 나갔다오니까 내가 그랬죠, 쌀이 비싸서 못사먹겠다 그러니까 저기 평양시 쪽으로 들어가서 쌀 좀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육로로 갔단 말예요, 쌀을 사러 가니까 거기 역시 올랐더라요, 쌀값이, 왜 올랐는가 하니까 거기 역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28일 날 소문이 짝 났다, 일률적으로 이걸 누가 비밀리에 유언비어처럼 퍼뜨려놨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화폐개혁이 정확하다는 거 알고 돈을 은행에다 적금을 시킬게 아니예요, 저금 시켜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화폐개혁이 다 소문이 나니까. 그렇지만은 그 때는 적금

을 시키란 말은 안했거든요, 누구든 안했어요. 발표를 안했으니까 근데 소문이 나니까 뭐 수탄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리어카라는 게 있어요, 끌고 다니는 거 거기 다 돈을 하나 가득 담아서 은행에다 입금 시키고 그랬어요. 돈을 입금시키면 북한 돈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제 돈 넣고 제가 찾으면서 삼십프로는 찾아주는 사람한테 삼십 프로 리자주면서 찾아와야 되요, 국가에다 삼십프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찾아주는 은행 직원한테 삼십프로 리자를 주면서 찾을라니까 얼마나 힘든 노릇이예요. (은행 직원 수입인가?) 지가 몰래 가지는 거죠. 비밀리 몰래. 그러니까 저금을 안 시키고 물건을 사는 게 낫겠다 이게 분명 화폐개혁이라니까. 딱 물가가 급등하잖아요, 그 때 급등한 거만큼 더 올라갈 것이다 하고는 장마당에 물건이란 물건은 다 거둬들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쌀도 모두 다 톤으로 거둬들였죠. 장마당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케 소문이 짝 나더니 6월 30일날이 부기장이라 그래요, 여기는 뭐라 그러지? 어쨌든 돈 다루는 사람들을 은행 말고요 돈뿐만 아니라 기업관리, 회계사 비슷하죠, 부기, 여기 회계사 하고는 딱 같지는 않아도 좀 비슷해요. 그런 부기장들이 우리 구역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시 7월 1일 경제개선에 대해서는, 그 때 경제개선 조치가 내려오는 거 그 때 통과시켰죠, 그것도 전화, 전화 지시라는 게 있어요. 김정일이 전화로 지시내려온 걸 사람들에게 그대로 침투시키는 거, 전화로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옮겨놓는단 말예요. 그거를 육성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풀어서 옮기는 거 전화지시 내려오면서 그걸 쪽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내용들 다 알려줬거든요. 경제관리는 그렇게 나왔어요. 7월 1일날 되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경제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게 아니고, 지방 기업소는 생활비 채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매 사람을 급수에 따라서 생활비를 다시 하고 일체 상점이나 배급소나 올라간 물가를 다 써붙였어요, 국가에서 7월 1일 조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탈북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7.1경제조치

를 물가 인상, 가치관 혼란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3>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영향



설문No.13>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인민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근로의욕을 높여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③ 가격이 너무 비싸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④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와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한다

위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듯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임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49%, 미응답자가 44%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7.1경제관관련 개선조치 이후 주민들은 물가 폭등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사례2>

T34, “물가가 2배,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조금 개선되는

거 같으면서도 개선되는 거 같지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게 되죠 뭐, 기차도 안다니는 거 다니게 되지, 그 담에, 난 그저 기차, 기차 잘 다니는 거, 기차 잘다니면, 뭘 해먹자면, 뭐든 유통이 빨라지잖아요, 시간적 제한이 마니 있으니까, 이동이 원활해야 좋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까, 이동이 자유로와졌잖아요, 기차 타기도 수월해지고. (나쁜 점은?) 물가가 팍 올라가니까, 식량 하나 사먹재도 비싸지고, 무 하나 사먹재도 재게 되고, 월급도 올랐어요, 올라긴 말은 올랐는데, 안 줬으니까, 한 이만하니까, 본래 우리 살던 사회가 공산주의였는데, 공산주의가 이미 지나갔구나, 이제 좋은 사회에서 살기 틀렸다 이러니까, 점차 점차 세월이 간다간다 해도 경제개혁 하면 사람들은 뭐, 정작 경제개혁하고 나니까 서민들은 더 뭐 이래되잖아, 서민들은 식량비 대번 높아지고, 생활비는 보장되는 것 하나도 없고.”

<증언사례3>

T41, “그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대요, 입쌀도 이천원 정도로 천 얼마씩 넘어갔고, 배급 안주면서 식량 값이 더 높아졌고, 중국 인민폐하고 조선 돈하고 바꾸는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백대일, 이백대일로, 그까 쌀값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에 비해서 같이.”

<증언사례4>

T43, “그거 공개했으니까 7월달에 이렇게 하면서도 새 경제관리 체계로부터 임금인상 이걸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하나까 처음에 월급이 다 정해지잖아요, 이 월급에 한해서 선불해줘라, 몽땅 한달치 선불해주고 임금 인상시켰으니까 월급이 낮던게 다 높여놨어요. 첨엔 몰랐어요, 월급만 높여줬지 물가가 따라 오르는지는 생각 못하고 좋다고 인정하고 선불해주니까 생산이 얼마되든지 관계없이 전액을 다 백프로 선불해줘라, 선불했어요 국가가. 그렇게 지고 보니까 그담엔 좋은가 했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그 선불해준 걸 그대로 담달에 가서는 환불했어요. 생산 못한 단위는 그걸 그대로 다시 환불해야 되요. 임금이 탁 올르는 거에 따라서 물가를 다 높여놨어요. 그

러니까 그게 그거다. 올린 거나 안올린 거나 같은 걸 올려놨다, 그리고 살긴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버스비도 대폭 높여놨으니까 어디 다니기도 불편하고 차비도 높아지고 모든 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새 경제관리 체계가 잘되는 거 같은데, 기업 관리가 어떻게 됐나면, 그때 기업소 단위로 기업소가 생산한 것만큼 먹어라, 그전엔 안그랬어요 국가 계획에 물려서 하면하고 그렇게 따라 갔는데, 그 기관 기업소 단위로 한 것만큼 월급 주게 됐는데 그게 그대로 안되었어요. 불만이 참 많죠. 살기도 더 어려워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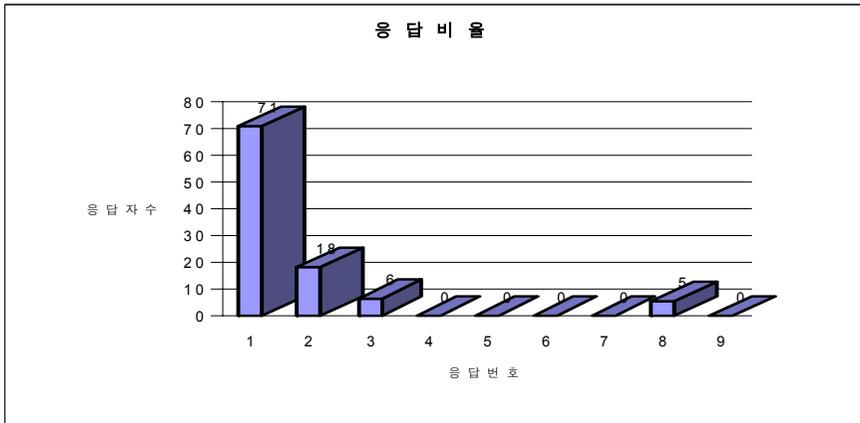
그러나 물가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외하고 7.1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

1) 신분차별

무계급사회,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사회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극심한 신분상의 차별이 자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6> 출신성분에 대한 차별



설문No.16. 북한에서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거의 없다

위의 그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응답자 중 89%가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을 진술했다. 출신성분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는 주로 신분이 정치범 또는 숙청자 가족, 부모나 조부모가 지주이거나 월남자인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서 귀국한 가정의 경우에 신분상의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차별의 양상은 노동당 가입의 불가, 대학진학의 어려움, 직장 배치시 특정 주요 직책 제외 등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경우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증언사례1>

T42, “우리 남동생이 제대를 해가지고 사회안전부 정치대학, 여기로 말하면 형사, 정치대학이라면 안전부 계통의 정치일꾼, 당일꾼, 대단히 높은 직이죠. 거기 갈려고 보니깐 신원에서 걸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농이라고 그니까 그런 쪽으로는 안해주더라고요. 저처럼 경제학 쪽으론 너취도 우리 동생처럼 정치는 안 뽑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때 알았어요.”

<증언사례2>

T43,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 우리 실험실에 기사들이 있는데 한 명은 인정, 그 사람 가족 성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하도 머리가 좋고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실험실에 실장이 써보겠다고 해서 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그 사람 아버지 형이 북한에서 청산대상으로 청산됐다고, 보위부에서 제가 저희 빨갱이 가족이니까 아마 저를 보위부 특무로 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위부에 한 번 갔었는데 그 때 임무를 줬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시하고 3일에 한 번씩 보고하라고. 그 사람이 아버지가 평북도 무슨 무속을 해서 총됐대요, 형도 그렇고 그래서 자식까지도 대학에 갔지만 대학 들어가서 막노동자로 밖에 일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랐는데 그 사람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인젠데, 써주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니까 모두 가 다 치안대 가족이요, 정치범으로 해서 추방되었던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증언사례3>

T45, “신분차별이라는 건 중국서 왔다던가 하면 입당하기도 힘들고 나도 입당하려고 공장에서 밤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처녀 때 국기훈장도 타고 선동원대회도 보내고 다 보내도 입당은 안 시켜요 중국에서 와서 특히 부모들이 월남했다던가 하는 그런 가족은 군대도 못 보내고 그저 종말이 자꾸만 간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가고 그런 차별이 너무도 심해요 계급적 차별이 옛날에 투사가족이나 전사자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지 켈 설분거는 월남가서 그런 정치적으로 들어간 가족 우리같이 귀국민들 그런 사람들 차별이 많죠”

<증언사례4>

T14, “거기는 만약에 부모가 지배인이라면, 아버지가 지배인이면 자식도 거 다 지배인이예요. 그런 정도니까 그 왜 부모가 급이 높으면 자식들까지도 호화로와지고, 하여튼 힘있고 권세가 있어야지. 예, 솔직히 저도 그걸로 해가지고”

2) 직장 및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북한에서는 정권수립기인 1946년에 이미 남녀평등법을 만드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는 양성평등이 구현된 진보적인 사회의 틀을 갖추고 있다. 북한당국 또한 스스로 북한사회를 남녀평등이 실현된 사회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먼저 직장, 학교 등 사회에서의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승진의 경우 남녀 차별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간부가 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또한 임금의 경우, 임금체계가 주로 노동 강도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이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해 크게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해 전통적인 여성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들 스스로도 이러한 여성상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한다.

<증언사례1>

T35, “(간부를)주로 남자가 하죠,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간혹 있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남자가 하죠, 우리 학교는 주로 보면 남자가 해요. 여자들도 (똑똑한 사람이)있긴 있는데, 그래도 통제하니까 남자가 비교적 더 수습다던지, 보면 주로 남자가 해요.”

<증언사례2>

T42, “직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사무원이나 노동자나 같죠. 대학을 졸업했으면 똑같은 지도원이지만 여자는 간부 자격도 안해줘요. 그것도 평등이 아니지, 남녀평등권법령이 나왔지만 여자도 당연히

능력있으면 남자하고 똑같이 간부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잘 안해요. 그렇게 하고 입당시키는 것도 남자 위주로 하지 여자는 잘 안 시켜줘요. 그리고 훈장, 북한 사람들 훈장을 주잖아요, 당에 충실하면, 여자가 더 당연히 충실을 해요 그래도 여자는 잘 안줘요, 남자를 많이 주지. 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해도 똑같이 예를 들어 회계사무실에서 30년을 근무해도 남자는 여기다 훈장을 다섯 개 달면 여자는 겨우 두 개밖에 못따요. 근데 여자들이 그런 일도 그걸 당연한 거라 생각하죠. 우리 남편도 어디 가면 저런 대접을 받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이러면서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난 왜 이케 조금 주나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그거를 크게 불평을 안부려요. 불평 부렸다가는 뭐 불평분자로 낙인이 찍히니까.”

또한 직장 내의 북한여성의 인권침해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직장 내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탈북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승진과 입당 등을 빌미로 해서 여성의 성을 유린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러한 것이 북한여성들에게도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증언사례3>

T41, “북한에서는 여자들 직장 들어가잖아요, 여자들도 내가 당원이 되자,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직책을 가지면 노임이 높아진단 말예요, 노임을 줄 때 내 신상문제, 아니면 내 체면상 내 가정 직업을 잘 주면, 여러 사람 보는 관점도 다르단 말예요, 어쨌건 내가 당원이 되는게 최상이니까 당에 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일도 하는 과정에 당비서들이 그래요, 자자 한 번 자자, 몸을 준다면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 실제로 그래서 당했던 사람 많아요.”

3) 가정에서 여성의 인권

북한여성들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심각한 불평등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북한의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노동이라는 막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 내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의해 가사업무를 전적으로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정경제까지도 여성에게 떠맡겨 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식량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식량을 구해서 식구를 부양하는 것이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어 여성들은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증언사례1>

T40, “그런 거 아직도 북한은 남존 사상이 많으니까요. 그저 지금 그 때 다시 사상은 뭐이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데는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여자를 기본 택해서 가정을 묶거든요, 여자는 죽도록 벌여서 남편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먹여살리는 것이 100% 중에 아마 2-30% 밖에 안 될 거예요. 여자들은 나가서 직장일을 하고 들어와도 어쨌든 먹고 사는 데는 기본 주자로 하고 어떤 남자들이 많은가하면, 그까 여자들 몸 팔아서라도 나 맥여 살려라 그런 남자들이 절반이거든요. 막 벌어들이지 못하면 막 때리고 그런 거 직접 봤어요. 자기 여자가 먹지 못해 아파서 당장 죽게 되었는데도 발로 차고 나가서 벌어들라는 거예요. 그케 막 때리고, 자기는 벌지 못해 있어도 막 아내를 때리고, 나가 버리고 기본이 그래요.”

<증언사례2>

T,43 “체제 자체가 불평등이라는 거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에는 대남주의가 많이 있고, 현재까지도 북한에서는 여자라고 하면 가치 없이 보고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좀 힘들게 하죠. 현 상화에서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움직여서 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일안해도 집에 들어오면 여자들은 많이 싸우고 여자

들을 때려요, 구박받는 일이 많고. 모든 시대들을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 때문에 제가 벌어먹어도 남자들은 큰소리치고, 남자들이 주권 쥐고 이렇게 살아요, 가정에서. 그래도 남자한테 그렇게 그저, 남자들은 여자는 조금 살다가 힘들면 내버리고 내버리고 하니까 그 사회가 그게 좀, 이혼해요. (이혼 사례가 많나?) 네, 많아요. (늘어나나?) 네, 많이 되요. (이유는?) 주로 가정이 지금 살기 힘들니까 살다가 지금은 경제를, 시장경제하니까, 시장 장마당, 장사를 못한다던가, 가정 살림이 어렵다던가 하면 여자한테 다 덮어씌어요, 네가 살림을 잘못하기 때문에 너하고 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걸 걸고, 무조건 이혼하면 여자들은 꼼짝 못하고 이혼해요.”

<증언사례3>

T41, “북한에는 남자가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여자가, 실지 남편이 어느 정도 직책에 있다면, 하다못해 북한은 다 낭구 석탄 때니까 나무 패고, 하다 못해 못 박는 일도 다 여자가 해요. 남자하는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북한 여자들 남자들 뭐 멍멍이 집안에 가둬둔 멍멍이라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다 해요. 못하면 남자들이 왜 너는 못하는가 밥이 왜 이러케 잡곡밥을 주잖아요, 자꾸 자기한테 주는 게 부족하면 자꾸 여자들을 때려요, 술만 먹어도 여자들을 때리지.... 때려도 어디가 하소연할 때 없죠.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 여자 바람 쏘으니까 남편 때렸겠지, 이 정도지, 남자가 여자에 대해 성폭행한다 아니면 남자가 아내에 대해 너무 폭력이 나쁘다 이런 걸 몰라요, 응당한 걸로,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응당 맞고, 직장 가서도 뭐 내한테 불이익이 차려지나 어느 남자가 이걸 요구했다 해서 안줬대서 당당한 게 아니고 여자가 꼬리쳤겠구나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니까 여자가 헤어날 수 없잖아요.”

위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여성들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북한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

상은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여성의 당연한 숙명처럼 용인되고 있는데, 북한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순종적인 전통 여성상을 미화하고 있으며 여성들도 이러한 여성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사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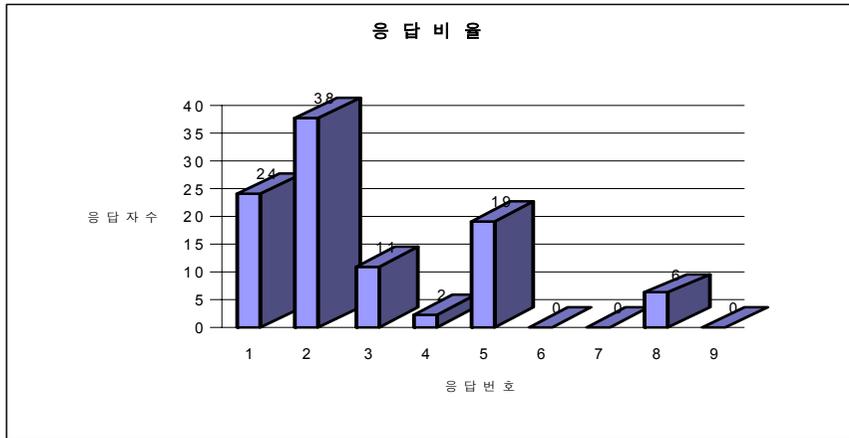
T42, “북한에서 가부장적인 거는 남녀평등권 그런거 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죠. 옛날부터 내려오던 조선 여성의 고유한 풍습을 잘 그게 대대손손 내려온단 말예요. 연애대상을 고를 때도 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여성다운 여자. 그게 바로 뭐냐면 부끄러움을 탈 줄 알고 항상 공손하고, 예절바르고 남편한테 충성을 다하고 이런 거를 택했거든요. 이러다보니깐 그게 가부장적이란 거보다도 여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하고 남자도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데서 남자들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서 코가 더 세가지고 큰 소리 더 치고 그런거죠. 그 개중에는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지역적 차이가 있어서 함경도는 더 가부장적이고 평남도는 좀 더 나아요. 그런 게.”

4) 아동보호권

북한에서 아동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에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한다든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 양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탈북자들의 의견은 24%만이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장마당에서 장사한다(38%), 길거리에서 구걸한다(11%), 집안일을 돕는다(19%)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북한의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



설문No.21> 북한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 ① 학교에서 공부한다
- ② 장마당에 나가 장사한다
- ③ 길거리에서 구걸한다
- ④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 ⑤ 집안일을 돕는다

두 번째로는 아동들에 대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본적으로 굶는 일이 일상화됨에 따라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증언사례1>

T46,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이들 자체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드니까 집을 뛰쳐나오고 보면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오고. 어떤 부모도 못사니까 아이들 밖으로 내뺄어서 얻어먹게 하는 집도 있고 그래요 학교 못 가는 일이 많아요.”

또한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11년제의 무상교육이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 무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부담이 2002년 이후부터는

30%정도만 남게 되고 70%정도를 주민들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필이나 종이 등 교육 비품은 물론이고 학교건축, 학교건물관리, 그리고 겨울철에는 뿔감용 나무 등도 일체 학생 부담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한다. 교과서의 경우는 국가에서 분배가 되지 않아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아예 교과서를 구하지 못한 채 학교에 가기도 한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입을 옷이 없어서, 또는 신고 갈 신발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사례2>

T35, “뭘, 우리 학교 당기는 것은 무료교육이잖아요, 학교 안가는 것은 지들 가기 싫어서 안가는 거지, 학교 자금이 나빠서 못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학교 안다니는 놈은 지금은 학교만 가면 누가 뭐 밥줘요? 뭘줘요? 지들이 나가서 벌어서 살지. 살자고 학교를 다 때려치고.”

<증언사례3>

T34, “아이는 11살, 학교는 다니고. 다른 건 뭐 불편한 거 없어요, 근데 최근에 원래야 사회주의 사회니까 다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고 혜택이, 우리 알게 모르게 한 백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2002년 지나 경제개혁 하면서 국가 혜택이 한 30% 남고 다른 거는 다 없애버렸단 말예요, 학교에서 가져오란 것은 나무도 내야하고, 겨울 되면, 겨울 준비에 교실에서 불 때니까 그것도 보장해야 하고, 그담에 학교건설, 학교 건물관리, 연필이나 종이 그런 건 다 일체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탁아소 유치원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육기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고 한다.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에서 아동들에게 점심 급식을 하지 못함에 따라 오전에만 아동을 받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유치원에 나가는 어

런이들이 점차 줄게 되고,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유치원 ‘높은 반’의 경우는 인민학교에 보내기 위해 억지로 다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에서의 차별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탁아소 또는 유치원도 엄마들이 직장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탁아소나 유치원을 못 다니고 인민학교에 들어가는 경우, 학력 차이가 나기도 한다. 부모의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 차별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교원에게 사례품을 주기도 한다. 달마다 식량 1Kg 정도, 또는 명절에 식량 등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 자식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증언사례5>

T41, “애기들은 엄마가 일하러 다니는 자녀들은 탁아소나 유치원에 받아줘요, 엄마들이 가사일을 보면서 노는 애기들은 가능한 유치원이나 탁아소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전혀. 솔직히 그런 가정애들 학교 붙이는 나이되, 학교 붙이면 공부 잘하는 아하고 못하는 아하고 갈라지거든요. 유치원이라도 다니면 공부를 어느 정도, 가가고교라도 배우고 들어가니까 괜찮고, 솔직히 공부 못하고 유치원 안 다녀본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냥 주눅들고 피해가 심해요. 가정적으로 경제난 때문에” . (54세. 여성. 유치원교사. 함북 온성군 삼봉구. 98년2월 탈북 03년6월 입국)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원들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사업을 등한시하게 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에서 아동들에 대한 노동력 동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에서 아동 노동은 자본주의 발달 초기 단계의 국가 혹은 개발독재국가들의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사적 노동착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북한의 아동노동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교육과 노동을 결합시킨다는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에 입각하여 취해지고 있는 아동 노동이 실제로는 북한 아동들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사례1>

T01, “학교는 잘 다니는데, 여기서는 애들 공부만 시키잖아요. 북한은 공부하는거 보다 오십프로는 동원을 시켜요. 모내기동원, 추수동원 계속 아이들, 사회에 무슨 건설장에도 이렇게 나가고, 어린 애들 어릴 때부터 사회노동에 참가해야지 모든게 어쨌든, 노동을 많이 시켜요. 여기하고 틀려요. 어린애들을 노동을 많이 시켜요. 인민 학교는 간단히 자기 학교주변이나 도로 이런데 나무심거나 이런데 하지만, 벌레잡기 이런거 하지만, 중학교 3학년부터는 모내기 나갑니다. 추수.”

<증언사례2>

T11, “그거는 초중 4학년부터는 이 농촌, 농사를 짓는게 그 농민들이 식량 숫자가 적고 이러니까 그 이 직장이라든가 학교 아이들이 금방 다 나가서 농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70세. 남성. 별 목공. 함북 연사군 삼포리. 03년12월 탈북 04년3월 입국)

이상의 면접조사를 통해 볼 때 현재 북한의 아동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이상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인권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사회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게 된 식량난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이 침해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먼저,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화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이고 절정에 이른 시기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임을 알 수 있다. 배급이 중단된 시기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빠르게는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1996년을 전후하여 배급이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난 타개를 위해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없었으며, 외부의 지원도 북한주민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중 일부는 중간 관리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전반적인 영양부족 상태로 인해 아사자가 발생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났다. 특히 아사자 중에서 노인과 아동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7년과 1998년의 경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 이후 아사자의 발생이 줄어든 것은 식량 문제가 개선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생존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병약자들이 이미 90년대에 아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극심한 식량난은 아동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하였다. 현재 북한의 아동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문

제들은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 성장장애 등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약국과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의사와 약사들마저 생존을 위해 의약품을 밀거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들어 주민들이 식량 확보를 위한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장마당에서의 상거래를 보장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개인의 최소한의 생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상행위를 위해 이동할 때 통행증을 통한 통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여행증명을 발급받고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물가인상,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제품의 절대적 부족 상황에서 물가만을 인상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서 출신성분과 연좌제로 인한 차별이 커 평등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직장에서 승진 및 임금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고, 직장 내의 성폭력도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식량난이 심화된 이후 식량 획득의 임무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들은 식량난 해결과 가사노동 등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의 노동 강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침해현상은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계속된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야기된 식량부족 현상의 장기화되고 이 과정에서 식량배급제를 비롯한 국가·사회적 보장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스스로 생존능력이 부족한 소수자

의 인권은 더욱 보호되지 못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VI.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 장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범주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인권 상황은 외부의 시선으로 북한체제 자체를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북한체제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과 대량 아사자 발생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열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가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각자 자체 생존의 방도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이 그 동안 엄격하게 유지되어 온 기존의 법과 제도를 일탈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국가 통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신변안전권과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의 신변안전

북한의 정치 제도 및 문화 속에서 개인의 신변 안전에 대한 정책 집행상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인의 신변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해 면접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노동당 및 내각 간부들의 공권력 남용 및 공권력 빙자 폭력 실태와 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개편) 등 국가 공권력 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공권력 남용 및 공권력 빙자 폭력

면접조사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 간부들의 공권력 남용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및 내각 간부들의 공권력 남용 여부와 그 실태에 대해서는 탈북 입국자들이 직접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고, 간혹 소문을 들은 경우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생산현장에서 나타나는 간부들의 권력 남용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 남용이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권력의 대리인들 역시 일반 주민들이 경험하는 식량난과 경제적 곤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량난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일반 주민들을 착취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당원들의 부정부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사례 1>

T11, 경제가 어렵고 이래 놓으니까 만약 자식이 셋인데 학교를 대학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 다 돈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안전, 이 파출소 소장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약간 결함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무마해 달라고 그런 사실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쥔 사람들 생활이 낫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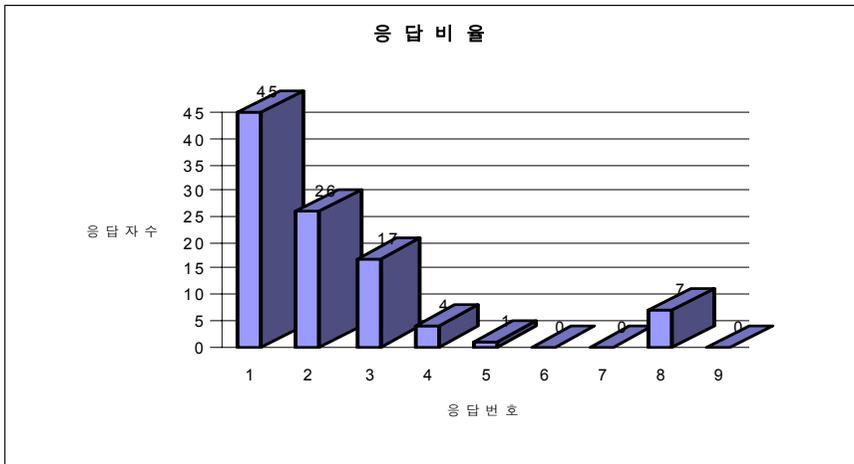
<증언사례 2>

T05, 인민보안성으로 바뀌기 전에 인권침해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뭐 같고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상그루빠해서 집중검열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회가 어찌, 그 뭐랄까, 작동하는 시스템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여기처럼, 그런데 저는 보면 뉴스 채널을 다양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경찰이 비리 해 먹은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비리 해 먹은 것

까지 다 나왔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김일성이 교시하기를, 너네 실지 있는 일이라고 해도 인민들이 알아서 나쁜 일은 불지 말아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탈북자들 왔는데 뭐 국정원에서 하이고 여기는 어찌 이리 화재사고 많고, 도난사고 많고 무서워서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겠나 이렇게 하는데 야, 저쪽에서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여기는 시시콜콜히 다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쪽에서는 언제 어디서 불나 죽고, 어디서 물에 떠내려가 죽고 그거 폭로나 하나

설문 조사 결과도 당원들의 부정부패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와 같이 부정부패 정도가 ‘심하다’라는 응답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심하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심하다’가 26%, ‘조금 심하다’가 1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 당원들의 부정부패 정도



설문지 No. 19) 본인이 생각할 때 당원들의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심하다 ② 심하다 ③조금 심하다 ④ 심하지 않다 ⑤ 없다

일상 생활과 생산 현장에서 나타나는 간부들의 권력 남용에 따른 부정부패는 주민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체념적 상황을 양산하게 한다. 당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민들의 탈법과 범법을 부추기는 구조로 나타나면서 일반 주민들의 삶의 안전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원들의 부정부패에 따른 일반주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증언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증언사례 1>

T05, 뭐 당 간부들은 당당하게 해먹고,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그러니까 바닥새(일반주민)들만 죽을 노릇이다 이런 말이 돈단 말이에요.

<증언사례 2>

T17, 배급 미공급이라서 많아졌어요. 그래도 당간부들은 대체로 배급주니까 적어요. 북한에서 보안소하고 보위부가 있잖아요, 안전원이. 그런 사람들은 다 배급 줘요. 배급을 받는데, 당 간부들은 당간부들 대로, 직업에 따라 그거도 뇌물을 받아요. 이렇게 무역 그런데 있는 그런 사라들은 뇌물 받으면서 여권이랑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안전원들하고 보위원들도 되게 받아요. 내가 나쁜짓을, 두만강 건너 다니자면 우리 구역 담당 보위지도원하고 보안원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을 쥐야만이 내가 살겠거든요. 그래 그렇게, 지금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경비대 출신있잖아요. 두만강 경비대 출신 아이들이 돈을 조금 벌어서는 돈을 투자해서 정복입어요. 정복입는다는 게 안전원복을 입어요. 보위부 아니면 보안소에, 자기도 그렇게 돈을 벌어야 쓰니까 개들은, 여느 안전원들 보다 국경지대 안전원들, 보위원들이 조금 더 좋아해요. 그런데 본인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또 떨어지는 일도 있어요. 배급 미공급이 되니까 나쁜 짓을 해도 돈 많이 있고 중앙당간부들한테 내가 친척이 있거나 아주머니 쪽으로 있으면 간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북한 구호가 뭐인지 알아요? 돈만 있으면 막대기, 막대기 썰다가도 산다고. 막대기라는 게

총살당하는 데 막대기 썰다가도 산다고 그래요.

<증언사례 3>

T02, 그러니까 정치란 거는 서로 정치인들과 평민들이 서로가 합의를 맞아서, 북한으로 말하면 교양을 쥐 가지고 주민들 발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존중 안하고 자기들의 의견만 존중하지. 그게 다 사회가 나쁘다는 거지요. 강압적으로 내리먹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그런게 많아요, 한 달에 얼마씩. 그러니까 나는 처녀시절을 지나가서 가정주부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이니깐 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듣고 왔으니까 넘어오기 전까지, 인민반에서 내라는 게 많아요. 인민군 지원이다, 양강도 자강도 건설하면 건설지원이다, 무슨 쌀 얼마씩 내라, 수갑(장갑)을 얼마씩 내라, 금을, 아니 동을 얼마씩 내라, 철을 얼마씩 수매해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군중들이 있을 수 있는 걸 내야지, 강압적으로 간부들이 내려먹여. 국가에서는 그것도 한 달에 한번씩, 두 달에 한번씩 맨 날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먹고살기도 바쁜데 그걸 해야. 어떤 때는 의견을 피우면, 못 내면 돈이라도 내래요. 돈.

이같은 당 간부들의 뇌물수수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체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증언사례 4>

T17, 불만이 있어요. 있는데, 불만있는 사람은 벌써 못사는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나쁜 짓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저 사람한테 먹여서라도 그 사람 눈 안에 들어야 내가 살아가겠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한테 붙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이 아무리 제기해도 깔아뭉개요. 깔아뭉개고 내가 피해봐요. 그래서 피해요. 그저 모르는 게 좋다. 나 혼자 살아가자(함경북도 회령시, 33세, 여성)

<증언사례 5>

T01, 사회주의 체제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한 간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도, 얘기를 못해요. 여기서처럼 집단적으로, 그런거 못해요. 아예, 하나로 움직이는 나라니까, 말 잘못하면 추방되든, 쫓겨가든, 죽든 하니까. 하나로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저 좋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일이다. 그 간부가 좋다, 뭐 이래야지, 뭐 이야기를 못해요. 딱 세명에 하나씩 감시하는 이런 체계가 있어가지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다 의심하는 정도니까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당원과 주민의 관계가 상보적 관계가 아닌 상호 분리의 과정으로 급격히 변질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불신의 골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체제 유지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것이 장기화되면 체제의 안정성조차 훼손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공권력 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

일상생활에서 경찰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경험을 지적하고 있다.

<증언사례 1>

T13, 북한 안전원들이 그런 인권침해, 대개 다 하죠. 어느 사람이나 정말 겸손해서, 거기도 안전부가 정말 인민들한테 손을 대지 못한다 뭐 이런 법은 다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요? 뭐 성질나고 뭐 죄인 있으면 아니라고 하면 되게 때리고. 근데 그저 북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졌다, 안전부 마당에 발만 들여놓게 되면 맞아도 그저 응당한 걸로 생각해요.

특히 장마당에서의 사회안전부 안전원들의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원들은 일부러 장사를 방해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증언사례 2>

T35, 장사를 하면, 자리가, 여기도 자릿세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돈 있는 사람이 그런데서 장사하지, 웬만한 밀천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자리가 좋아야 잘 팔리잖아요, 장마당 같은 데서는 다 장사를 하는 것 같아도 다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봐줘요, 보위부라든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당연하죠, 뒤에서 누가 있던가, 누가 돈을 많이 줘서 그 자리를 받게 처리했느냐니까 그것도 전투جو(함경남도 함흥시, 23세, 남자, 대학생).

장마당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팔거나, 장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 행위에 가담한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단속과 폭력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증언사례 3>

T05, 그야말로 안전원들이라는 거는 심심하면 장마당 한번 간다 하고 쪽 가서 장에 앉은 사람, 야 이런거 왜 팔아, 왜 팔아 꺼들면 그 다음에는 안전부 가자 그 다음에는 벌금 내라하면 뭐 짝 소리 없이 내야하고, 그저 안전원들이 사는 세상이죠(함경북도 셋별군, 39세, 여성, 의사)

<증언사례 4>

T03, 하나 뭐가 제일 가슴이 아픈가 하면 그때 그 엄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두부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때 벌써 젊은 사람은 들고 뛰거든요, 공안이 오면. 근데 장마당이 서지 않게 된 거예요.

저희가 셋별군에 하지 마라 하는데, 저희는 그쪽으로 해라하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먹고살기 힘들니까 장마당 조그만 한 게 그거 새끼장마당이라 하거든요. 근데 두부를 이렇게 했는데 와 가지고 히떡 던져다가 발로 막 비벼 놓더라고요. 껌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사람은 그게 다 살자고 한 것인데(함경북도 셋별군, 34세, 여성, 주부)

<증언사례 5>

T02, 사회안전원들의 장사 방해 단속이 심하지. 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시작했다하면 1월부터 장마당 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국수를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퍼져가지고 사발에 한 사발에 5원씩 파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사하는 방법을 다 달라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하면, 여러 사람과 담화를 하면 여러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장사하고 싶은 선으로 장사하니까 한결같이 이 사람 국수장사를 하면 다 한결같이 백 명이 다 국수장사 하는 건 아니고, 옷장사, 신발장사, 약품장사, 그 사람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안전원들도 뭐 먹어야 하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물품을 해서 이거를 국가에다 넣는다 해도 그거를 다 국가에다 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넣는 것도 있겠지 몇 프로라도. 그래서 다 안전원들 먹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비사회주의라는 그루빠를, 자기네가 직접 별 달고 못 나오니까, 비사회주의라는 그루빠를 조직해요. 그 그루빠라는 게 사복을 입고 이런 빨건 견장을 달고 나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해. 그 물건 그저, 만약에 단속이 온다면 도망을 가야, 뺏기지 않아야만 밀천을 안 잃지. 턱 잡히면 물건을 몽땅 압수당하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사업에 능력이 좀 있으면 뇌물을 줘요. 그렇게 살아요.

국가 공권력 기관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통수단인 철도의 철도안전원들에 의한 인권 침해 실태도 식량난 이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의 원거리 교통수단인 철도를

통한 상업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도안전원들의 뇌물수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사례 6>

T13, 난 제일 억울하다고 목격한게 우리도 이래 먹을게 없어서 좀 장사하러 다니느라고 보따리 장사, 그래 기차를 타면은, 기차칸의 안전원들이 정말, 오죽하면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북한 들어가서 기차의, 열차 안전원부터 죽이겠다고. 참 못되게 굴어요. 정말 내 동생도, 대게 강제 노동소를 못 보내니까. 통행증이 없어도, 강제노동소라는게 있어요. 거기 끌고가서 한달씩예, 그래 없어도, 자기 엄마 같은 것에도 이 간나같이 쌍년이라고 그저, 우리 보는데도 뻘하고 우리 같은 아줌마들, 조금 이제 스물 서넛짜리들이 붙들려 들어가서 이 간나새끼 비켜봐라, 이쪽 들와라 나가라 그래도 그저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할 수 없죠. 그저 막 그제 다 인권침해라고 해도. 북한에서도 그런다 말예요. 그래도 뭐. 더 심한 사람들, 또 제가 당한 사람들 진짜로 똑똑하고, 딱 법정에 걸어서 또 친척이 힘이 또 있어야 돼요. 또 친척들도 좀 힘있는게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요런거 한번 목격했다면 정말예, 정말 한다하는 집 간부들, 부모들이 코에 걸렸다가는 우리 다 신소하지요. 신소하면 그 사람 정복, 딱 법에 걸리면 정복 벗는다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소하는 법도 아니고, 신소해도 해결도 안되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소 할라하다가 또 가만 있지요.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과정과 철도 이용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뇌물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언사례 7>

T02, 증명서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도둑차를 타고. 도둑차를 타면 기차 안에서 안전원들을, 걸렸을 때는 벌금을 내지. 그런

데 자기가 밀돈있고 이런 경우는 찢러줘서 통과할 때도 있고 그 당
에 지방에서 집에서 떠날 때 려행 발급서라는게 있어, 어쨌든 돈을
먹여야만 발급하고. 그 사람들도, 려행증을 발급하는 사람들도 자기
네도 먹고살기 힘드니까 돈을 받아야, 뇌물을 줘야만 증명을 떼지.
그렇게 떼다고. 다 그렇게 떼지. 한번 뭐 옛날에는 80년대, 70년대
는 동사무소에서 인민반장 도장을 맞아 가지고 그런 용지가 있었어,
옛날에는 그 용지에 신청을 하면 려행증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저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막 식량곤란이 들어서지 아, 안전원
이라고 먹고 살아야되니까 뇌물 받아야 살고, 그 다음에 려행증 떼
는 사람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뇌물 받아야 여행증 떼주고,
이런 방법으로 사회가 점점, 아무리 사회주의 사회라 해도, 말로는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거라고 했지 내부는 뭐 막 썩었지 뭐. 그러니
까 국가에서 막 선전을 이렇게 해도 내부에서는, 김정일이 사회주의
헌법에 맞게,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살자, 이렇게 해도 아래서 움직
이는 사람들도 국가에서 주는 배급량이, 국가에서 배급을 안주니까
비법적으로, 비 사회주의적으로 살고.

이와 같이 개인의 신변 안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 집행상의
현실은 공권력의 남용 및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으로 나타났다. 식
량난 발생 이후 공권력의 일선 집행자인 안전원들의 권력 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상 생활과 생산 현장에서 나타나는 간부들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
패는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일반 주민들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 과정에서 생존권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2.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식량난 이후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
와 준법의식의 약화를 가져왔다. 북한 체제는 이를 묵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

하는 식량을 주민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상황이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존형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속에서 주민들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에서는 공개처형이 이뤄지기도 했다.

1) 수감자 인권 및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여부

면접 조사에 응한 탈북자들이 직접 수감생활을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체로 교화소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이후 대부분의 범죄는 생계형 범죄였다. 국가 소유의 생산수단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식량을 약탈하거나, 그 밖에 법적으로 금지된 경제활동을 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범법자들은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수감되어 교도관들의 고문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언사례 1>

T16, 감옥에 가면 안전원들이 그저 서슴없어요. 우리도 붙들려봐서 아는데, 그거 뭐 삽질하다가 허리 좀 폈다해서 그렇게 때리고 그러고.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딱 꽤면, 대꾸질이라도 하면 그 삽으로 들입다 쳐 가지고, 응, 뭐 팔도 끊어 놔댔어요. 경찰이고 뭐고 감옥에 일단 간 다음엔 사람도 아니고 짐승으로, 그랬어요

<증언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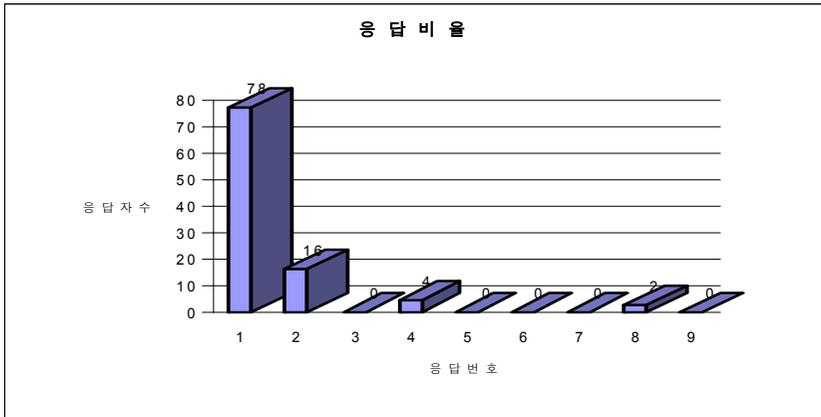
T12, 십일 영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90센티 되나 높이는 보이던데 요만한 구멍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숨을 쉴 수 있고 거기서 밥이 들어오고 거기 들어가서 열흘 한 이십일씩 있다 나오면 견디 못하는 거예요. 평일에 보고 저 사람 내일 죽을 만 하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언어가 “너는 밤나무골에 가라” 이래요.

교화소 수감자에 대한 면회는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지며, 이 때 음식물을 반입해야 수감자가 굶어죽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조차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부실한 영양상태와 비위생적인 생활 때문에 수감자들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한다. 따라서 수감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망률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어 가족들은 수감자를 빼내기 위해 기를 쓰고 큰 돈을 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증언사례 3>

T13, 안전원들도 그 안에 안전원들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내 들어가 보니까, 정말 사회안전원들보다 바쁘지요. 사회에서는 장사꾼들이나 붙들어야 먹을게 많다는데 이 사람들은 따 빼주는 생활을 하니까, 죄인 빼주는 걸로 산단 말입니다. 근데 담당군이 있어요. 담당 군의가 있고 담당 지도원이 있고, 담당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종합이 있어요. 총괄적으로 종합지도원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주면 되는데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돈 올라가기 전에 조선돈 만원, 여기 돈 5만원 찢러 넣어주면 된다 그러더라 말이예요. 찢러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셋이가, 보니까 뻥한 구성이지요. 군의가, 결핵이라든가 그 진단을 딱 붙여준단 말입니다. 개한테. 이 사람은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붙여주면 뻥하게 알면서도 지도원이 담당 지도원이 옳다고 수표하고, 그 다음에 종합에 올라가도 종합 지도원이 옳다고 수표해 주고, 개를 집으로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래 집에와 편안히 있지요. 그리고 또 안전부에서 한 달에 한번씩 애에 대해서 감시 나오죠. 그러면, 군안전부에 또 우리 담당형사 식으로 그런 사람을 또 끼워 넣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담배라도 갖다 주고 그러면 형기가 저절로 물러지고 돈이 많으면, 문건까지도 빼 주고(함경북도 온성군, 37세, 여성).

<그림 18> (정치범) 수용소 인지도



No. 18)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시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소문을 들었다 ③ 없다 ④ 모르겠다

<그림 18>과 같이 설문조사 결과 정치범수용소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8%, 소문을 들은 경우도 16%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면접 결과도 대체로 이와 유사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주민들은 조총련계 귀국자들 중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극소수 기독교인들,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잡혀오거나 귀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증언사례 1>

T01, 일본에서 온 귀국자들이 처음에 몰라 가지고 자본주의 살다가 사회주의로 갑자기 오니까 거기 살던 습관대로 말을 잘못해 가지고, 뭐 하룻밤 사이에 끌려가 가지고, 뭐 온 집안이 끌려가서. 뭐 귀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랑 뭐 정치범 수용소 가서 굶어 죽고, 일하다 죽고, 구체적으로는 못 듣고요. 거기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증언사례 2>

T36, 정치범수용소는 내가 들어봤는데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 봤어요. 왜 가느냐면 그 집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우리도 믿었고 우리는 어떻게 믿었냐 하면 아버지가 중국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래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어머니도 시집와서 같이 믿었어요. 믿다가 조선에 넘어 왔잖아요 넘어 와서 우리 아버지는 몰래 믿었어요. 이불 속에서 몰래 믿었는데 이 집은 자식이 셋이에요. …… 그 사회에선 안되잖아요. 종교는 안되잖아요. 김일성을 믿어야지 다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처음에는 보위부에 들어갔어요. 보위부가 정치범만 다루는 데인데 그 집이 우리가 1998년도 7월에 왔는데 설최고 1월 5일날 밤 11시에 가족 끌고 갔어요. 가족이 모두. 아버지는 먼저 보위부에 잡혀가고 죽었다고 봐야 되요. 그 가족은 아예 정치범수용소에 갔어요. 가족들은 아는 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다 잡혀간 다음에 보위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고.

<증언사례 3>

T05, 정치범수용소가 회령쪽에도 있고, 북창에도 있고, 저기 함북에 주을 쪽에도 있고.... 정치범이라는 거, 뭐, 중국으로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탄광에서 정치범 처단자 가족이야 해서, 아버지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러냐 해서 물어보면 중국으로 뛰다가 잡힌, 그런데 그 자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서 탄광에서도 제일 최하층이에요.

최근에는 남북한 경협이 확대되고, 식량 및 비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더 잘 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정치범으로 몰려 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증언사례 4>

T13, 정치범이 주로 토대가 나쁜 사람들이 정치범에 많이 걸리죠. 원래 좀 토대가. 그런데 걸리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지금은 그렇게 안해요. 말 한마디 그저, 예, 야 북한은 왜 이리 못사나 한국은 잘 산다는데 이런 말을 해도, 같이 술을 먹으며 해도 쓱 가서 애기를 하면 아닌 밤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실어가고,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는데 아닌 밤중에 실어가고 이런 거는 없는데, 지금 정치범이라는 게 내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도 한국에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그저 한국말 하면 정치범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저 그거 밖에는 북한에서 정치죄를 지을게 없죠 뭐.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에 대해 면접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다. 수용소에서는 구타와 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증언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비슷한 수준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 속에는 과장도 있으리라고 본다. 어쨌든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의 인권은 구타, 강제노동 등의 적나라한 사례에서 보듯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언사례 5>

T41, 정치범교화소가 청진 쪽에 나가면 수성에 있어요, 그거는 영원히 못나오는 수용소거든요. 정치범교화소, 명칭이 수성교화소. 거기는 일체 안전원들 외에는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 안에서 사니까 그 안에 내용을 몰라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노무자 일을 했어요. 외삼촌이 떡엄떡엄 나에게 하는 소리는 낮에는 일시키고 밤에는 옷통 다 벗기고, 딱 앉아서 재운데요. …… 회령 쪽에 가면 회령 정거리교화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쇠줄에다 어깨다 메 가지고 본바닥까지 끄집어 내려와서 거기서 가구도 짜고 하는데, 죽어도 내가 만약 10년을 먹고 들어갔는데 10년 간에 죽어도 가족한테 안

알려주고, 10년이 되어 만 알려준단 말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남의 치가 죽어도 병 나 죽었다니 실제 그래요. 그런 일이 많아요

<증언사례 6>

T42, 경험 같은 건 없지만, 개천에 정치범수용소가 있어요. ……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저희가 듣는 거는 가면 평생 못나오잖아요. 평생을 못나와요, 나오는 데도 있고 못나오는 데도 있고 개천은 못나오거든요. 그저 거기 가서 인생을 마감해야 하고 교화소하고 뭐가 차이나냐 하니깐 교화소 같은 경우는 먹을 거 조금씩 주잖아요, 거기도 조금 먹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고, 그런 거는 있죠. 완전히 북한이라는 거는 교도소, 교화소도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는 거죠, 그 때는 요만한 열아홉, 열여덟 짜리 애들이 개새끼, 소새끼하면서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쁜만 아니라 평범하게 북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말을 잘 못해 가지고서, 대체로 말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불쌍하게도 거기 가지고 정말 평생을 사람대접도 못 받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있죠. 근데 죽으면 시체도 땅속에 그냥 묻히지 본인 가족한테 돌려오지도 않잖아요.

<증언사례 7>

T34, 정치범들은 종신이거든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가족이 가는 곳도 있고, 부부가 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거든요. 이럴 때는 우선 가족생활을 시키지 않는데요. 주야로 별의별 일을 시키거든요. 남편이 나가면 아줌마가 들어오고, 아줌마가 나가면 남편이 들어오고 우선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서로 보기가 힘들게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원시생활이나 다름이 없죠. 문화생활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정치범수용소 관련 면접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증언이 하나 있다. 면접에 응한 한 탈북자는 황장엽비서의 5촌 조카가 함경북도 온성

군 산화탄광에서 사로청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며, 황비서의 탈북 후 그가 탄광의 광부로 강등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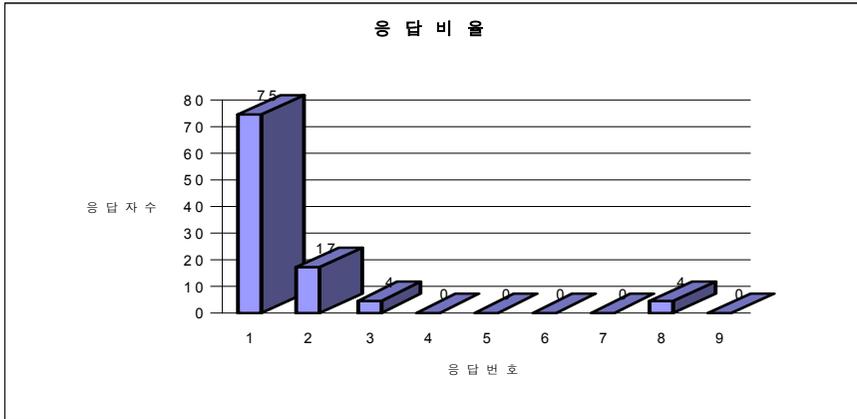
<증언사례 8>

T13, 황장엽 5촌 조카가 우리 탄광(산화탄광) 사로청 위원장을 했던 말이에요. …… 황장엽이 달아났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아버지랑은 다 어디 끌려갔다는 거 같아요. 탄광에서 막장에 들어가, 그래 이 사람은 그저 영원히(함경북도 온성군, 37세, 여성)

2) 공개처형 사례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사회적 이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극약처방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정치범이나 살인자 등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식량난 이후 사회 일탈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느낀 위기의식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공개처형이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주민들의 일탈행위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 이후 북한은 처형 대상을 정치범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법자들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공개처형은 특히 1996-97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공개처형 목격 사례



17. 공개 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은 들었다
- ③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설문조사 결과 <그림 17>과 같이 공개처형은 북한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탈북 시기가 1990년대 후반에 집중된 점으로 미뤄 식량난이 정점이었던 그 당시 공개처형 사례는 빈번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한 경우가 75%에 달하고, 소문을 들은 경우까지 합하면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공개처형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실태 역시 대체로 생존형 중범죄자들에게 집중되었다. 공개처형 대상자는 대개 국가기물을 팔아먹은 주민, 인신매매자, 북한내 탈북 방조자 등이었다.

<증언사례 1>

T18, 제가 있을 때는,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먹은 거 총살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무슨 기본 뭐, 그런 과오가 센 사람 그런 사람들 총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줄을 가지고 우리 북한에서

도 중국까지 와서 월남자 가족 찾아주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올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증언사례 2>

T01, 공개처형, 그런 거는 본 적 있는데, 내가 직접 목격한 거는 이제 과부네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던 여잔데, 데리고 놀다가 돈이 딸리니까, 그 여자를 까서 죽이고 술병으로 까서 죽이고, 도끼로 까서 죽이고, 처참하게 까서 죽이고 그 집 텔레비를 삼만원에 팔아서 그걸로 연회비를 쓰느라고, 그걸 평양에서 살 때 그 사람 하나 놓고 공개처형했어요. 다 모이라 해서 갔는데 그런 남자더라고요. 순천 내려가서 본 거는 한 네 명을 총살하는데 세멘트, 시멘트라 그러죠 여기서는. 그것을 판매과 지도원 여잔데, 자기가 그거를 표 때 가지고 그걸 이렇게 아마 많이 해 가지고 팔고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선 뭐라 그러지, 섹스 그런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북한에서는 완전히 볼 수도 없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테이프를 팔았나 그런 거 같아요. 부자간에, 그래서 그 테이프 때문에 총살하는 거 내가 봤고요. 한 여자는 역전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돈 받고 자기 집에서 채우고, 남자 여자 붙여주고, 뭐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 그렇게 해서 네 명 총살하는 것을 봤어요.

<증언사례 3>

T18,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97년도에 로동단련대에 있을 때에 전국적으로 사람 제일 많이 죽었다고 공화국에 있어서 그 해였어요. 우리는 우선 범죄자니까 맨 앞에 앉히는 거예요. 단련대에서 끌어내다가, 거기서 내가 그때 녀 달 동안 본 것만 해도 한번에 여섯 일곱 명 씩 큰 거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살기 바쁘니까 저녁에 퇴근시간에 석탄차 선을 한 15미터 잘랐더라고요. 그걸로 나와 죽고, 제가 녀 달 동안 본 것만 해도 이삼 십 명은 될 거 같은데요.

<증언사례 4>

T35, 총살같은 거 한 몇 번 봤어요, 총살을 하면요 사람들이 켈

많이 모여드는 장마당이나 시장, 시장같은 데 말뚝박아놓고 한단말
 예요, 두 번 봤어요, 어릴 때 구경삼아 쪽 앞에 나와서, 그날 밥맛
 도 없었어요, 이유가 들어보면은 농촌에 남자가 누나가 있어요, 시
 집갈려고 여자들이 북한은 다 장만한단 말예요, 이불이고 천 옷감이
 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귀가 안좋아요, 동생이 누나 집에 들어
 가서 누나 옷감이고 다 가져가서, 바쁘니까, 말리니까, 결국은 누나
 가 죽었거든요, 지 누나를 죽였죠, 그래서 총살했죠. (최근에는?)
 총살이요? 요즘에는 총살이 중앙까지 올라가요, 군에서 도,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 하릴 보면 이사람 총살하니까 하게
 되는 게 제가 그때 있을 때도 주위에 그런 게 많아나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군에서 이렇게 총살감이 있으면 중앙까지 올라가지 않고
 시행한단 말예요.(많았나요?) 아마, 좀 있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동이란 동은 다빼고, 기계부속품이란빼고 부속품은 다른데 팔아먹
 고, 동같은 거랑 기계 갖고 오면 돈이 좀 많잖아요, 그거 빼가지고
 중국에 팔아먹고, 여러 가지예요, 각박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
 말도 가차없이 별해요.

특이한 것은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축력이자 운송수단인 소를 훔
 치거나 밀도살한 경우에도 공개처형을 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식량난과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
 인 사례라 하겠다.

<증언사례 5>

T14, 공개처형이라는 건, 뭐 다른 사람들 도둑질을 세게 했다던
 가, 소 한 마리 도둑질하면 김일성이 집안을 죽인 것하고 같다, 사
 람 하나 죽인 거 하고 같다, 뭐 이래 가지고 공개처형하고 그랬어
 요. 소 한 마리를 사람 한 사람으로 계산을, 막 취급하고 그랬어요.

한편, 일반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개
 처형 과정에서의 주민동원 사례는 강제 동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
 언과 강제적이지 않다는 증언이 엇갈렸다. 강제 동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은 주민 동원을 통해 범법자에 대해 주민들을 격분시키려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즉, 공개처형을 통해 다수 대중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몽하는 차원에서라는 것이다.

<증언사례 6>

T34, 몽땅 다 동원하죠, 그 지역 주민들 다 동원하죠. 언제 어디서 인민반 회의를 다해요. 오늘 어디서 재판하고 공개처형한다 이거 다 공포하고 시장에서도 또 사람들 켈 많은데 시장에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 안전원들이 다 나와서 시장 사람들 한 명도 없이 몽땅 다 내보내요. 공개처형 장소로 다 가게 해요. 공개처형장 사람들 새까맣죠.

<증언사례 7>

T02, 우리 회령시에서도 강 그쪽에다가, 철다리 그쪽에다가 공개하는데 공판하는 그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 싸매서 이런 자들을 총살한다. 몇 월 몇 일에 아침 몇 시부터 총살하니까 모여라. 거기 또 안 나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인민반장들이 한 인민반에서 몇 명씩 나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불구자들이나 환자들, 이런 총소리에 이런 사람들은 못 나가고. 나도 한번 나가서 봤어요. 도강해 가지고, 인신매매했다고. 인신매매하나, 안 하나 문건에는 중국 갔다 오면 인신매매되니까, 여자들 팔아먹은 인신매매 되니까 총살해 가지고.

그러나 강제로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고 호기심에 참석한다는 증언도 상당수 되었다. 공개처형 현장에는 가도 되고, 안가도 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처형을 언제 실시한다는 포스터가 붙는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참석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증언사례 8>

T30, 함흥에서는 강변에서 하는데요. 총살 있기 이틀 전에 포스터

가 붙어요. 이름 누구누구 죄명 뭐 군중심판 한다 동네에서 놀고 있는 부녀자들, 문제성 있는 대상자 핵심자들을 부르지요. 강변에서 판결문을 읽는 다음에 죄인한테 몇 가지 물어 보죠. 인정하는가 인정한다고 하면 입 틀어막고 총을 쏘죠.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자에 대해서 격분을 일으키죠. 사형을 보고 듣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죠.

<증언사례 9>

T34, 공개처형은 98년도, 99년도, 96-97년 이 때가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북한에서, 총화를 98년도 고난의 행군 총화를 했던 말예요, 그 때 공개처형, 잘 못 산 사람들에게 대한 대가 지불한다, 생활이 각박하니까, 사람들이 공장기업소 물건 뜯어다가 팔아먹고, 동을 중국에다 팔아먹고, 그런 거 갖고 공개처형하고. 그런 공개처형 현장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루 멀지 않고 공개처형이 진행됐는데, 우리 자식이라면 가서 남이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니까 총 땅 쏘니까 고개를 떨구고, 난 웬만해선 총살한다 이런 거는 별로 가고프지 않아요, 난 내 눈으론 못 봤어요,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공개처형한다면 술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증언사례 10>

T13, (공개처형)한다 하는 선전포고는 하지요. 광고는 하지요. 아무 날 어디서 총살한다. 억지로는 안 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거 한다 하면 사람 많이 모이니까. 특수하게 죄를 짓거나 뭐 사회적으로 애를 먹인 사람들은 그럴 때 뭐 대표적으로 뽑아서 몇 십 명씩 데려다가 봐라 너네도 저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줌. 그런 사람들만.

공개처형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이 강연회 형태로 안전원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한다. 그 같은 교양사업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증언사례 11>

T16, 강연회 같은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를 배반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거 없애자, 이런걸 강연회라고 해요

<증언사례 12>

T03, 교양사업 이제 안전원들이 인민반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 때 이런 거 보지 않았냐 각성해라 뭐 이런 거, 교양 같은 거 분기에 두 세 번씩.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사회적 이탈현상이 눈에 띄게 많아지면서,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집중된 공개처형은 사회적 이완현상을 극약처방식으로 바로 잡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3.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자유권 구속과 관련된 문제인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외부정보 접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물론 정치사상의 자유 등을 조사해야 하나, 그러한 자유는 북한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기에 최근 자유권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정보 접근, 종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에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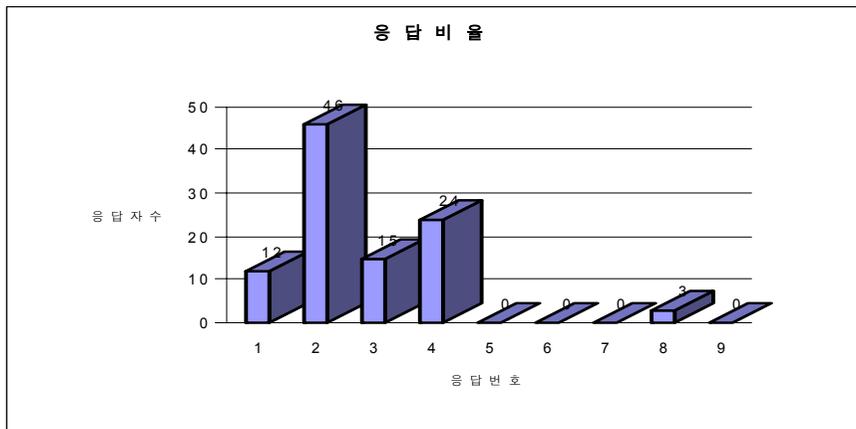
1) 정보접근의 자유

북한체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외부국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횡적인 정보유통은 대단히 어려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외부사회에 대한 정

보를 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외부 정보 입수는 전혀 불가능하다. 공식적으로 남한 및 중국 방송의 시청 및 청취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탈북자들이 북한에 거주할 때 남한 소식을 들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근 남한, 서방 국가 등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기타 유인물 등에 의한 정보 접근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26> 남한 정보 접근도



No. 26) 북에 있을 때 남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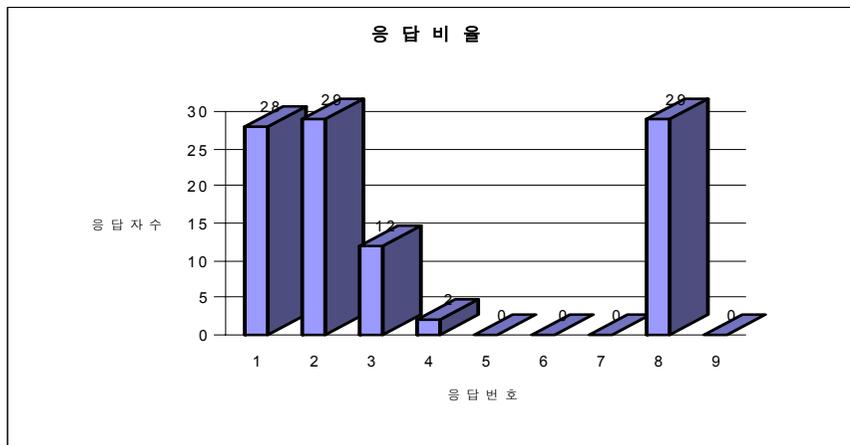
- ① 쉽게 들을 수 있었다 ② 가끔씩 들었다 ③ 듣기가 매우 어렵다 ④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당시 남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정도를 설문조사한 <그림 26>을 보면 남한 소식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는

탈북자가 12%, 가끔씩 들었다는 탈북자는 46%로 절반을 넘고 있다. 듣기 어려웠다는 응답자는 15%, 전혀 들을 수 없었다는 응답자는 24%를 차지했다. 이렇듯 절반 이상의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당시 남한 소식을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이들 탈북자의 다수가 함경도 지역 출신자로서 조·중 국경을 통해 남한 소식을 접하거나, 중국 방송을 불법적으로 청취, 시청하면서 들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설문에 응하면서 중국에서의 경험을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남한 소식을 들은 경우 어떤 소통매체를 활용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는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남한 소식 유입 경로



No. 27) 남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이용하였습니까?

- ① 중국 친척 ② 라디오 ③ TV ④ 지하 문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남한 소식을 들은 경로는 라디오 29%, 중국 친척을 통한 경우 28%, TV 12% 등이었다. 여기서 탈북자들이 남한 소식을 들은 시점과 지역이 탈북 후 중국에서인지, 북한 내부에서였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또한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인

지, 간접적으로 남한 소식을 들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증언사례 1>

T02,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남한 소식을) 중국에 와서 들었어요. 거기 있을 땐 못들었지. 발각되면 큰일나지. 우리 때까지 만해도, 내 넘어올 때까지 만해도 혹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건 비밀이에요. 보진 못했는데 들은 소리 있는데 그거 간부들 자식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도당간부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연락선 배를 타거든. 이런 자식들은 그런 거 좀 듣는데. 메아리 방송 그런 걸 듣는데. 나는 직접 겪어는 못 봐도 들은 소리 있어요. 이남이란 사회가 이렇구나, 이남이란데서는 이렇게, 우리는 정치가 얼마나 그래요, 이남은 우리 학교 때 배울 때 국어에, 험뵈고 굶주리는 뚝뚝 뽕뽕 내 동생 신바람 나서 험뵈고 굶주리는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원물자를 많이 보내자, 이런 공부를 했어. 근데 내 넘어올 때 양천년도(2000년도)까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아 이남이라는 게 이런 사회구나. 정말 사회가 좋은 사회구나.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너나 없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평등으로 사는 사회구나, 자기노력 자기 힘만 있으면 사는 사회구나, 이런 걸 내가 느꼈지. 그러면 느끼면서 생각은 하고 있어도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나 우리 같은 게 언제 한국 가서 살아보나 못살지, 희망은 못 꿰었지. 그러나 중국을 넘어가서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다음에 라디오, 한국에 라디오가 막 들어오지, 위성으로 들어오지 가만히 있어보면, 한국이란 사회가 있구나 한국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 이런 선을 밟고 왔지.

조중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중국 TV 등을 통해 남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중국 TV 시청 역시 불법이지만, 주민들은 안전원들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조치를 취한 후 남한의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사회의 비교가 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증언사례 2>

T41, (남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저들이 사는 고장은 중국하고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중국 사설 여행자들이 대체로 거기는 티비를 다 공개해놓고 보니까 북한에서 있을 때 중국 티비를 많이 봤어요. 중국 티비를 많이 보면 한국 영화랑 나오잖아요. 그 때가 ‘사랑이 뭐길래’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본 기회도 있었고, 중국 사설 여행자들이 너네는 중국이 암만 잘 살아도 한국 대지 못한다, 한국 따라가자면 중국 50년 떨어졌는데 북한은 한 세기가 떨어졌다고, 그 얘기 참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랑이 뭐길래 그 티비를 보면서 문을 다 철가고 이불로 벽을 창문을 다 막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리 그 영화를 보면서 남한은 저렇게 생겼구나. 정말 우리가 배울 때는 남한은 맨 버러지, 강통만 차고 논밭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는 등. 남한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실지 영화를 보면서 아니구나. 국경지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있고 티비를 가만가만 보니까 알고 있어요. 사설 여행자들 통해서 듣는 것도 많이 듣고, 지금 우리 상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강연선을 다른 나라 인접된 사람들은 다 깨고 불평은 있지만 말만하면 널 아침에 잡혀나가니까 종적이 없어지니까 말은 못하고 지금.

<증언사례 3>

T37, 중국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있었고요, (남한노래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냥 방송,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가) 당연히 없죠. (어떻게 들었는가) 제 동생이요,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를 딱 맞춰서 밤이면 열시 지나서 이불 속에서 가만히. 거기서 배운 노래 가요 고향무정을 배웠고요. 토요일에 토요일노래방이 있더라고요 라디오 그거 거기서 들었고요.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들었고요. 주현미 노래 비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사람 현철씨 노래 았으나 서나 당 신생각 (테이프도 있나) 저희들은 그때 그 테이프 남한 노랜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그냥 중국에 연변 쪽에서 돌아가는 노래다 그렇게 알고 많이 들었는데요. 나와 보니까 그게 남한노래인지 당연히 모르

조.

<증언사례 4>

T30, 저는 삼촌이 세 번 방문하셨으니까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이니까 또한 제가 대학 교원이니까 두 번째 방문 하셨을 때 소니 라디오를 주셨고요. 조국방문하는 사람들은 짐을 수색하는 것은 없거든요.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서 KBS 주로 들었어요. …… 2000년 이후에는 김정일이든 국방위원장님이라 그러고 북한의 문화 전통 탈북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뭐 그런 이야기했고 그 전에는 로동당 고급당원들에게 북한 사회를 해부하는 강력한 이야기를 했죠. 그 시간 기다리고 그랬는데, 12시쯤 해서 자지도 않고 듣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소리 방송 많이 들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 납북어선 내부를 보고 남한 사회의 실상을 어렴풋이 느꼈다고 한다. 군생활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 것들을 탈북 후 남한 사정을 알게 되면서, 군시절의 경험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증언사례 5>

T18, 군대 있을 때는 초도 있으면서 배를 봤어요. 그리고 95년도로 기억하는데 인천 앞바다에 있는 동진27호라고 한번 북한에 와 잡혔어요. 그 배가 못 돌아오고 선장이 죽고 갑판장이 거기 잡혀 있고 한 100톤급 70톤급 되겠나 그 배가 그거 잡았을 때 그 배를 내가 들어가 봤었어요.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녹음기부터 시작해서 라디오까지 ‘아이고 우리는 이런 거 없는데’ 생각을 이 정도 했는데 후에 내가 제대해 와 가지고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때 군대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도 ‘자본주의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많이 왕래가 되고 하니까 “한국 잘 산대요” 처음에는 안믿어지더라고요. 자꾸 중국에 와서 그거 스카이라이프 그거 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 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들이 한국 못 가서 막 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사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크게 와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내색도 못하고 그때 당시는.

개인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취득한 후 주민들 사이의 정보유통을 시킬 수 있는 자유는 거의 제한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경우 외부 세계의 정보를 혼자 알거나, 가족에게나 유통시키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경우에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정보 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종교의 자유

면접조사 결과 종교는 마약과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불교, 기독교 등을 탈북 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종교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종교는 자본주의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것과 똑같이 간주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남북 종교 교류 차원에서 불교 사찰, 교회 등이 일부에서 세워졌으나, 그것은 상징적인 차원에 불과할 뿐 일반 주민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까웠다.

<증언사례 1>

T02, 종교활동, 하나님이라면 목이 달아나요. 하나님이란 글자도 몰라요.

<증언사례 2>

T13, 종교의 자유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란 거는 벌써 정치범이에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중국에 가도 교회 믿지 말라, 오죽하면, 중국에 갔다가 붙들린 사람들은 교회 갔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살아난다. ……(종교에 대해)기본적인 생각 없어요. 북한엔, 거의 없어요. 종교 믿으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런 정도지요.

종교 자체가 부인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당국의 종교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면접조사자 중 북한에서 종교를 믿은 사람은 전무했으나, 몇몇 탈북자는 간접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를 경험했다고 한다.

<증언사례 3>

T13, 저희는 좀 촌에 살았어요. 그런 거는 우린데 종교하는 건 목격 못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성경책을, 그 때는 성경이란 걸 몰랐어요, 성경이란 게 뭔가 하고, 성경책 퍼뜨리다 잡혔다 이런 거 들었어요. 우리 남편 동창이 하나 중국에 와서 성경책 받아다가 돌리다가 붙잡혀 정치범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책이라니까 그게 뭔가 했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기독교 책인 걸 모르고, 그 사람이 성경책 살금살금 돌렸어요. 어떻게 발표됐는지 그건 비밀했어요. 그건 잡힌 답에 말도 못 퍼지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면 또 알고 싶거든요. 그간 그런 말 일단 못 퍼지게 해요. 그저 성경책 돌리다 잡혔다 이렇게만 알죠.

<증언사례 4>

T48, (종교) 그런 거는 없는데요 그런 거 한 번 목격한 적 있어요. 잡혀간 것도 보고 우리 동네 있었는데 그거 한 그룹이죠. 한 여자가 무슨 곡을 오르간을 쳤는데 그게 그거란 말예요. 찬송가를 붙이니까 곡만 보고 그게 뭐 찬송간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거기에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단 말예요. 그 조직에는. 그래서 연합기업소 일체가 잡혀가고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찬송가를 가르쳐준 사람은) 없죠. 마지막에 얘기가 보위부에 잡혀가니까 그 사람이 불다나니까 이 조직체가 드러났단 말예요 그 조직은 다 보위부 종신 갔어요. 여자는 모르고 쳐줬기 때문에 보위부가서 2년인가 있다가 나왔죠. (알고 한 경우)그건 몽땅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들어가면 몰라요.

<증언사례 5>

T41, 북한에는 종교를 근본상 말에 입에 담지도 못하고, 그걸 한번도 생각도 못해봤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치만 말로는 평야에 봉수교회 있다고 하지만 봉수교회가 실제로 교회가 아니고, 솔직히 다른 나라들에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갈 때만 교회였지, 다른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라고는 생각도 못해보고 거기에 신경을 써 본 일도 없고 하지만 많이 96년도부터 두만강을 가만 가만 넘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목사님들 만나 가지고 성경책도 들어오게 됐고, 하다가 살던 데 여자 하나는 성경책이 나오게 됐어요 집에서, 한 사람은 교화소에 갔다가 너무 앓아서 못살고 나와서 3년 살고 너무 아파서 나와 가지고 삼일 있다가 죽었어요. 교회란 거는 거짓말이죠 전혀.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접근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종교 활동에 대한 제재는 정치범으로 취급할 정도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역시 매우 소극적이며, 감히 종교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명확히 선을 긋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언사례 6>

T05, 기독교 믿는다는 건 그야말로 공포예요. 우리 병원에 구강과 선생이 잡혀갔죠. 그 기도한다 그래서. 그걸 보느라고 도 보위부 대나 와서 여섯 달 동안을 리보위부에 주둔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감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잡아가서, 오지 못할 데로 갔죠 뭐.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구동성으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민들끼리 공유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초보적으로 가까운 친구들과 남한사회에 대한 이야기나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정도라고 한다.

<증언사례 1>

T18, 술 먹으면서도 치고 박고 하는 게 낫지 말하지 말아야 되요. 조선에서는 말 잘못하면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조선에서는 말 주의안 하면 남하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니까.

<증언사례 2>

T24, 마음을 여는 친구들하고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정세라던가 그런 얘길 하죠. 그러나 보통 친한 사람하고는 주로 남쪽 얘기를 많이 하고 남쪽 테이프도 같이 보고 했죠. 남쪽 테이프 내용을 보고 남쪽 생활을 보고 하죠. 이렇게 같이 본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이 통하니까 말하죠. 야 한국은 노동자 한 사람 돈 벌면 한 2-3,000 달러씩 벌고 하는데 하면, 야 아니야 거기도 그렇게 다들 많이 버니까 다들 힘들고 하지 하면서 논쟁을 하죠. 그런 걸 보면 거리면 거리 아파트면 아파트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끼죠.

<증언사례 3>

T09, 문제제기를 해도 항상 나라하고 불법에 문제제기를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잡아가 버려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래요. 추방시키고 그래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국가에 항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간부들의 비리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완전히 막혀 있다고 한다. 헌법에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 제67조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조문은 사문화되어 있으며,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의사 소통 통로는 심각한 제약 상태에 빠져 있다.

4. 소결

개인의 신변안전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심화 이후 당 간부들의 공권력이 남용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이들의 공권력 남용은 간부 자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발견되고 있다. 장마당에서의 상행위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지 품목을 팔거나,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뇌물 수수가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생존형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속에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자들이 수감되는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서 교도관들의 고문과 폭행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구타와 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증언되고 있다. 공개처형의 경우, 북한당국이 경제난의 심화 이후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강력히 경계하고자 일부 경제사범들을 극형으로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경우, 북한체제는 외부국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세계의 소식에 대한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는 터부의 대상이며, 종교 활동에 대한 제재는 정치범으로 취급할 정도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민들이 국가나 공권력에 대해 항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통로는 없으며,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 제67조에 명시된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VII. 결론

국내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있지 않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난 악화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권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탈북 원인은 여전히 식량문제이다. 물론 2000년대 들어 비율이 다소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탈북 현상은 식량난으로 인한 것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식량 부족현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생계형 탈북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탈북과정에서 겪는 북한 감시원들의 신변위협과 중국 등지에서 현지인들에 의한 인신매매, 고발 등이 그런 현상들이다. 북한으로의 재송환시 겪는 인권침해도 증언에서 발견되고 있다. 탈북한 이후에도 중국에서 고발을 당할 두려움과 임금 착취 및 사회적 불평등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이외의 제3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들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조기 입국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1997-1998년 사이에 아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아사자 중에는 노인 및 아동, 병약자 등 생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식량난이 다소 완화되어 아사자가 줄어들었으나, 이는 이미 1990년대에 아사자가 많이 발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난 악화로 인해 사

회주의 제도의 장점으로 알려졌던 무상치료는 유명무실화되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며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연좌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집단적으로 할 수 없고 외부에 대한 정보 접근도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통하여 남한 등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 악화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은 간부들의 공권력 남용과 부정부패의 양산이다. 간부들은 자신들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주민들에게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품 수수를 요구하고 있어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 내부와 탈북 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기까지 탈북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난 악화는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식량을 포함한 경제문제는 북한 인권상황을 다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 인권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굶주림’에 있다. 근년의 북한내 많은 인권침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아 및 극심한 식량난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은 미국이 앞장서서 제기하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체제전복을 위한 ‘고립압살정책의 2개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는 ‘경색’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s)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인권문제와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위기심화에 따른 ‘내부폭발(implosion)’ 가능성과 정권교체 등을 염두에 둔 대북 압박정책의 일환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논의 중 일부는 이 문제가 미국이 주장하는 ‘불량국가론’ 과 ‘악의 축’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 인권상황을 집중 거론함으로써 북한정권이 ‘악의 축’ 이란 점을 뒷받침하려는 ‘정치적 의도’ 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문제가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것을 경계하고, 말 그대로 인권의 시각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고 대화하고 지원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때를 염두에 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 를 전개해왔으며, 그런 입장으로 인해 때로는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불참하거나 기권한 것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남한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권했다고 해서, 남한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방관하고 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북핵문제 해

결이 북한 인권문제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루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의 생존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모두 중요하다. 민족의 생존권이 담보돼야 인권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전쟁’에서 확인했듯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지 못하고 전쟁의 참화가 한반도에 붙어 닥치면 우리 민족 상당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는 먼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난 해소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은 외부 압력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각 등 내부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가중되면 경제난에 따른 탈북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민주화를 촉진하는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탈북자도 줄고 북한의 인권상황도 개선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우선,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식량부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비료 등 지원을 계속해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이 차별 없이 분배되도록 투명성 제고를 북한에 보다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남한은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북한이 ‘대중용 법전’을 발간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부세계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법

전의 내용에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의지와 경제개혁 및 대외 경제협력을 향한 실용주의적 자세가 반영된 것은 생산력 발전을 통한 경제위기 해소를 필요한 법적 정비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정권수립 이후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 ‘동원체제’를 운영할 때는 주로 지도자의 인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체제관리기로 접어들면 사회주의적 법치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도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의 하나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주의 법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①사회주의 권 붕괴 이후 사회변화, ②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관계 변화, ③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하여 ‘사회주의 법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대중용 법전’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등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탈북자와 북한 내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위 조사결과는 크게 특정 조사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출신 지역 및 탈북시기의 편중 등 조사 표본의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방법의 적용을 통한 사실의 교차확인, 조사 표본의 대표성 획득(균형적인 지역 안배, 계층간, 남녀간 비율 등), 보편적 평가기준의 제시 등 보다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조사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상의 조사결과는 제한적이거나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본격적인 연구조사의 기초자료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2004.
- 서재진,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윤여상, 『북한인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2001.
-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_____,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우영,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원, 2001.
- _____,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4.

2. 논문류

-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4.
- 『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간담회 자료집, 2003. 10. 17.
-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그 해결방안은?』, 북한인권관련 10개 단체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2004. 08. 31.
-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서울,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4. 12. 01.
- 『재외탈북자의 인권: 실태 변화와 관련국들의 정책』,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4. 12. 22.

5. 한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나요?

- ① 중국, 베트남 등 제3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 ② 한국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 ③ 밝힐 수 없다.
- ④ 기타()

6. 탈북 후 제3국에 있을 때 의식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 ① 의식주 해결이 그럭저럭 가능했다
- ② 의식주 해결이 조금 힘들었다
- ③ 의식주 해결이 거의 어려웠다
- ④ 기타()

II. 북한에서의 경제·사회 생활

7. 북한에 있을 당시 주로 먹었던 식량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쌀, 보리 등 곡류
- ② 감자, 고구마 등
- ③ 미음이나 죽
- ④ 원조 식량
- ⑤ 기타()

8.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직접 보았다
- ② 본 적은 없고 소문만 들었다
- ③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9. 굶어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들었습니까?

- ① 직접 보았다는 사람으로부터
- ②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10. 북한에 있을 때 식량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① 1985-1990년 ② 1990-1994년
- ③ 1995-1999년 ④ 2000년대 이후
- ⑤ 잘 모르겠다

11.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 ① 끼니는 거르지 않을 정도로 나아졌다
- ② 조금 나아졌지만 끼니를 거를 때가 있다.
- ③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
- ④ 식량 걱정은 이제 하지 않는다
- ⑤ 2000년 이전에 탈북하여 잘 모르겠다

12.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들어본 적이 없다

13. (위 질문에 ①에 답한 사람만 응답해 주세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인민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근로의욕을 높여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③ 가격이 너무 비싸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⑤ 숨어지낸다

⑥ 기타()

24.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할 때 제3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더 나아졌다 ② 더 못했다 ③ 별 차이가 없다

25. 탈북하다 잡힌 여성 중 강제 낙태를 당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직접 당한 적이 있다 ② 본 적이 있다
③ 소문만 들었다 ④ 전혀 모른다

V. 한국에 대한 정보

26. 북에 있을 때 남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 ① 쉽게 들을 수 있었다 ② 가끔씩 들었다
③ 듣기가 매우 어렵다 ④ 전혀 들을 수 없었다

27. 남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이용하였습니까?

- ① 중국 친척 ② 라디오
③ TV ④ 지하 문건

28. 그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부록 2> 주요 심층면접 질의사항

□ 주요 심층면접 내용(표준 양식)

○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1) 탈북 동기 및 경로?

① 탈북하게 된 동기?

(이를 파악하여 그 동기 유형 및 변화를 분석할 기초로 삼음)

② 탈북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경로?

- 탈북 방법에 관해서는 합법·불법, 단독·집단, 자력·외부의 지원(혹은 연계) 중 무엇이었는지?
- 탈북 경로에 관해서는 탈북한 지점, 체류한 장소,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의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2)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① 북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② 체류지에서의 경험?

- 도피, 의식주, 결혼, 고용 등?

③ 한국 입국 과정에서의 경험?

- 재외 한국 공관 진입과 공관 내 생활과정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

- 한국에 들어온 이후 겪은 인권 침해 사례?

3) 탈북 현상의 평가 및 전망?

- ① 탈북의 불가피성 혹은 예방에 관한 견해?
- ② 대량탈북 혹은 휴전선으로의 탈북 가능성에 관한 견해?
- ③ 한국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 ④ 탈북 지원단체에 하고 싶은 말?

○ 북한주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1) 생존권?

1995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히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던 1995-98년 식량난이 극심할 당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실태 조사

① 식량 부족의 현황?

- 북한사회 전반과 각 지방별 식량난의 정도?
-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식량부족 정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식량부족 사태를 파악하고자 함.

② 대량 아사 실태?

-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의 발생 여부, 그 배경 및 현황?
- 아동, 청소년, 장년, 노년층 등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북한의 대량아사 발생 여부와 그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처 내용은?

③ 아동 생존권?

- 생존권 보장이 가장 취약한 아동의 영양, 보건 실태 및 교육권의 현황?
- 지역, 부모의 직업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아동 생존권의 제한 사례 등을 질문?

2) 개인의 경제활동권?

개인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빚어지는 갈등 및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실태 조사

① 이동권?

- 식량난과 경제난의 지속·심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의 자유 제한 정도?
- 북한은 공식적으로 1998년 9월 개정된 ‘김일성헌법’ 제 75조에서 “국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으므로, 그 법 규정과 현실의 일치 여부와 불일치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② 경제활동 보장권?

- 장마당, 농민시장 등에서의 개인의 생계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의 현황 및 실태는?
- 장마당, 농민시장 등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비공식적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③ 개인의 생산에 대한 권리?

- 농업에서의 개인영농에 대한 권리 제한 실태 및 그 변화?

그것이 개인의 생산 의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

- 개인영농과 기타 개인의 생산에 대한 북한사회의 일반적 인식 변화?

주민들의 개별적 희망 정도?

④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개인 경제활동의 변화 및 개혁 조치 현황?

-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어떤 변화를 주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지?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물가 동향과 그로부터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 영향과 주민들의 반응?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후속 개혁 조치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의 개혁에 대한 희망 정도?

3)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

평등권적 시각에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빚어내는 인권문제,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 실태 조사

① 신분차별?

- 출신성분이 북한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차별로 나타나지는 지? 그로 인한 차별 실태는?

- 정치범의 범주 및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그 가족들이 정치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제한을 받고 있으며, 실제 연좌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② 양성 평등, 여성의 건강 및 모성보호권 침해?

- 북한사회가 강조하는 양성 평등의 실제 상황과 여성에 대한 직장, 사회 일반에서의 성폭력의 존재 유무와 정도 등?
-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영양 공급 정도와 노동 강도 및 실태는?
-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권리 제한 현황과 국가보육시설이 제한하는 여성의 모성보호권 침해 정도 및 사례?

③ 아동보호권?

-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국가 및 사회 일반의 강제 노동 및 노동 강도는?
-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 침해 사례는?
아동보호권에 대한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 현상은?

○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1) 개인의 신변안전권?

북한의 정치 제도 및 문화 속에서 개인의 신변 안전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과 정책 집행상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인의 신변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 조사

① 간부들의 공권력 남용 및 공권력 빙자 폭력 실태는?

- 노동당 및 내각 간부들의 공권력 남용 여부와 그 실태는?
- 일상생활 혹은 생산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부들의 권력 남용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 간부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책과 주민들의 반응?

② 인민보안성 등 국가 공권력 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 실태?

- 일상생활에서 경찰기능을 갖고 있는 인민보안성 소속 공안요원들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 실태는?
- 국가 공권력 기관원들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2)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감옥에서의 비인도적 처우나 공개처형 등 반사회적 처벌의 실태 조사

① 수감자 인권?

- 범법자에 대한 교도관들의 고문이나 폭행·폭언 등 인권 침해 실태는?
-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여부와 구타, 강제노동 등 정치범에 대한 비인도적 처벌 및 행위에 관한 실태는?

② 공개처형 및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 사례?

-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사회적 이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이 실

시하고 있는 공개처형 등의 사례와 실태는?

- 내외적으로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 등의 사례는?

③ 공개처형 과정에서의 주민 동원 사례?

- 일반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공개처형 과정에서의 주민 동원 사례는?
- 공개 처형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례 등은?

3)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자유권 구속과 관련된 문제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

① 정보접근의 자유?

- 최근 남한, 서방 국가 등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 및 기타 유인물 등에 의한 정보 접근 실태는?
- 외부세계의 정보 취득 후 주민들 사이의 정보유통의 자유와 이에 대한 제한 정도는?

② 종교의 자유?

-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종교 활동의 자유의 범위와 관련 정책을 파악함.
- 북한당국의 종교정책 실시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 종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접근 가능성 정도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제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③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집단적 의사의 공유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를 제한하는 국가의 법률적·실질적 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 주민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실태는?